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13

중부산 문화권 민요(II)

부산진구 · 연제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로 중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부산진구·연제구의 민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민요,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Ⅲ. 문헌 소재 민요로 편성하고, 각 장의 민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민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민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민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민요의 경우 먼저 출판된 민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민요라도 전개 방식이나 세부적인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민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민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3) Ⅰ부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4) Ⅱ부 기존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5) Ⅲ부 문헌 소재 민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각권별편제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부산진구·연제구 편 - [2019년 발간]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21년 발간]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부산진구·연제구 편 - [2021년 발간]

제14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제15권 부산의 구술문화 - 설화·민요(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 i

Ⅰ. 현장조사 민요 ····· 1

1. 부산진구 민요 ····· 3
2. 연제구 민요 ····· 167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 239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 241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 308

Ⅲ. 문헌 소재 민요 ····· 361

- 부산진구 민요 ····· 363

※ 참고문헌 ····· 368
※ 제보자 색인 ····· 369
※ 민요 제목 색인 ····· 373

Ⅰ. 현장조사 민요

1. 부산진구 민요
2. 연제구 민요

Ⅰ. 부산진구 민요

[부산진구 민요 1]

너냥 나냥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부산진구 민요 2]

사발가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풍풍 나는구나
우리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에라 풍~풍 닐리리야

[부산진구 민요 3]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1] 둘이다잡고 그네를미니
임이타면은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뭐, 그기지 뭐.)
임아임아 줄살살걸어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그기지 뭐.)

[부산진구 민요 4]

모심기 노래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말로 하며]
백살겉은 (뭣이라 캤노?) 백살같은 흰나부는[2] 부모초상을 이었던가[3]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다리[4]밭으로 날아간다
(조사자: 이거는 모심기 노랜데 그지예? 할머니.) (응. 그거는 모심기.)

[부산진구 민요 5]

노랫가락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뭣고?)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만 기다린다 (마 그런 기다.)

1) 추천당 세모진 나무.
2) 백설같은 흰 나비는.
3) 일반적으로 '부모님 몽상을 입었던가'로 부름.
4) 장다리는 배추, 무 등의 꽃줄기를 말함.

[부산진구 민요 6]

시집살이 노래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말로 하며]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지만은 (뭐.) [조사자: 둥글둥글 그 뭐 도리판에.]
둥글둥글 도리판에 수제[5]놓기 어렵더라 (뭐, 그기지 뭐.) [조사자: 중우 벗은.]
중우벗은 시동생 말하기도 어렵더라 (그기지 뭐.)

[부산진구 민요 7]

방귀타령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말로 하며]
시아바씨방구는 호령방구
시오마이[6]방구는 앙살방구
(또.) 시누부[7]방구는 연지방구
동서방구는
(뭣이라 하더노? 심술방구라 하던가?) (청중: 심술방구.) (시누방구가 연지방구라 안 카더나?) (조사자: 신랑방구는?) (신랑방구는 호령방구. 아! 시아바이 방구가 호령방구.) (조사자: 신랑방구는예?) (신랑방구가 뭐 도둑방구라 하더나? 연지방구라 하더나? 그것도 인자 모린다. 다 잊아뿌고.)

5) 수저.
6) 시어머니.
7) 시누이.

[부산진구 민요 8]

다리세기 노래

이경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남강 도만강
짝바리 이양강
도래줌치
(도래줌치 뭣이고? 그것도.)

[부산진구 민요 9]

너냥 나냥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한라산 내려올때 신랑신부가 되었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10]

도라지타령(1)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도라~지
하도 날때가 없어서~
양바위 사이틈에다가 났느~냐
  에헤이야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살~짝 다녹인다

[부산진구 민요 11]

도라지타령(2)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모른다.) (청중: [노래로] 한두 뿌리만~.)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처리철철 넘노~나
  에헤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살살 다녹인다 [청중 웃음]

[부산진구 민요 12]

노들강변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노들강변 백사장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흩어지는 가지마다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나 메여나볼까
  에헤~요~ 에헤~요~
(안 하다 보이 모른다. 옛날에는 했는데.)

[부산진구 민요 13]

사발가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버구버구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난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설설 다녹인다

[부산진구 민요 14]

창부타령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노자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부산진구 민요 15]

백발가

강팔문(남,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나도어린 청춘이었더니 하루아침에 노인이됐네
백발보고 웃지마라

[부산진구 민요 16]

아리랑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난다. (청중: 잘한다.)

[부산진구 민요 17]

너냥 나냥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부산진구 민요 18]

다리세기 노래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지맹구 도맹구
사다리걷고 다마고
지김치 장두칼 (그 뭐.)

[부산진구 민요 19]

도라지타령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처리철철 넘누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이~요
  어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설설 다녹인다

[부산진구 민요 20]

밀양아리랑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조사자: [노래로] 정든님이 오셨는데.)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여라난다 지화자자 좋~네
  니가내간장 스리스리 다녹인다

[부산진구 민요 21]

창부타령

최명남(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늴리리야 늴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네 얼씨구나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펄펄 꽃을찾아 날아든다

[부산진구 민요 22]

파랑새요

김계숙(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말로 하며]
새야새야 파랑새야 (청중1: [노래로] 녹두낭게[8] 앉지마라 청포장사 울고간다.) (그거는 뭐 저 책에도 다 있는 가산데 뭐.) (청중2: [노래로] 청포장사 울고 간다.) (청중3: 옛날에는 다 그래 불렀다.)

8) 녹두나무.

[부산진구 민요 23]

노들강변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린데 칭칭돌려서 매어나볼까
에헤헤요~ 봄버들도~ 못믿을 이로다
푸른하늘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부산진구 민요 24]

노랫가락 [나비 노래]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청산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내품안에 자고가소 (그란다.)

[부산진구 민요 25]

모심기 노래(1)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이물끼저물끼[9] 폭파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 (뒷자리는.)

9) 이 물고 저 물고.

문어전복[10] 대전복은 손에들고 첩으집에 놀러갔소 (그란다.)

[부산진구 민요 26]

모심기 노래(2)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싸래[11]지고 장찬밭[12]에 목화따는 저처자야
(그러 카고. 고기 앞소리다. 앞소리고.)
모시적삼 새적삼에 알롱달롱 저젖보소
(저 젖 보라 한다. 젖꼭대기 알른하다[13] 안 하더나.)

[부산진구 민요 27]

모찌기 노래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한강에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그란다.)
우리 (뒷자리는.)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숨가 정자로다 (그란다.)

[부산진구 민요 28]

쌍가락지 노래

10) 문어와 전복.
11) '사래'의 방언.
12) 이랑이 긴 밭을 말함.
13) 알른거리다.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놋가락지 (그란다.)

[부산진구 민요 2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어데서 왔는고

[부산진구 민요 30]

모심기 노래(3)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나
해미년은[14] 어디가고 사우판에 다올랐나
(에미년은 어디가고 사우판에 다. 저거 인자 영감이 인자 할마이 인자 수제비 껀데기 사우 다 주뿌고 맹물만 준다고. 그래 한다.)

[부산진구 민요 31]

모심기 노래(4)

14) 보통은 에미년이라 함. 애미는 어미의 방언.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15]한상 떠나오네
우런님은[16] 어디가고 연개[17]낼줄 모르는고
(뒷소리는 "우리임은 어데가고 연개낼줄 모르는고." 집에 밥하면 연기가. 다른 사람 은 임이 있어 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임이 없어, 마누래가 없어서 밥을 못 한다 이기라. 그런 뜻이다.)

[부산진구 민요 32]

화투타령

박순옥(여, 192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말로 읊조리며]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두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늙어
팔월공산에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은나무
시월단풍에 뚝떨어져뿠다

15) 어떤.
16) 우리 님은.
17) 연기.

[부산진구 민요 33]

너냥 나냥

박용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웃음]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에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34]

사발가

박용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솔솔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부산진구 민요 35]

다리세기 노래

성덕순(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짝바리 해앵근
도래줌치 사래도
웃도웃도 저래도

(요래 딱 옹그리고[18] 그래.)

[부산진구 민요 36]

너냥 나냥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노래하며] 너냥 나냥.)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에헤야 우는새는 배가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고만 인자.)

[부산진구 민요 37]

모심기 노래(1)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19] (조사자: 무정하다.) (저기.) 무정한 저남편이 (카고 그랬는데.)
(조사자: 나도 죽어)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기린다
(조사자: 처자권속 섬길라네.) (그래. 에나 다 했는데 이래가.)

[부산진구 민요 38]

모심기 노래(2)

18) 다리를 오그린다는 의미.
19) 벼랑 끝에.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다팔다팔 다팔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엄마 산소등에 젖묵으러 내가간다

[부산진구 민요 39]

모심기 노래(3)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모야 모야 노랑모야 맞지예?)
[말로 읊조리며]
니운제커서[20] 열매열래 칠팔월에 (조사자: 이달 크고 훗달 크고.)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부산진구 민요 40]

모심기 노래(4)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퐁당퐁당 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요놈우할마씨 어데가고 딸로 시키는고 (뭐 잊어뿠다.)

20) 이 언제 커서.

[부산진구 민요 41]

모심기 노래(5)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저기.) (조사자: 문어야. 문어야 대전복 손에 에와들고)
등넘에 첩을두고 첩집으로 간다
(카든가? 뭐 잊아뿠어. 하기는 마이 해쌌는데 잊아뿠어,)

[부산진구 민요 42]

모심기 노래(6)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서마지기 이논빼미는 반달겉이도 떠나간다
니가무슨 반달이고 내가 (뭐 끝에 잊아삤어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43]

시집살이 노래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성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가더만은 도래판에 판놓기도 애렵다[21)]

21) 어렵다.

(뭐했다. 그런 거 다.) (조사자: 중우 벗은 시동상.) 말하기도 애럽다

[부산진구 민요 44]

양산도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웃음]
에헤이요 간다 못간다 (아이고! 내 인자 안 할란다. 다 잊아뿠다.)

[부산진구 민요 45]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말로 하며]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가 어데갔다왔노
(경상도, 경상도 무슨 불매라 그리 칸다. 나 모르겠다 인자.)

[부산진구 민요 46]

노랫가락[나비 노래]

송순금(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청산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내품안에 자고가소 (그란다.)

[부산진구 민요 47]

노랫가락[나비 노래]

조우임(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청중: 아이고! 잘한다.)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이속에라도 자고가자
산이 높아야 골도 깊으지
쪼그마난 여자속이 좋~다 얼마나 기쁠소냐
신작로 널러서 질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좋~다 임찾기 좋구나
  아노세 좋구나 젊어서 놉시다
  나많고 빙들면[22] 좋~다 못노나니라 (됐다. 인자 그만.)

[부산진구 민요 48]

다리세기 노래

조우임(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짝바리 해양근
도리줌치 장두칼
육구육구 찔레육구

22) 병 들면.

당산에 먹을갈아
엎어질똥 말 똥 (죽었다.)

[부산진구 민요 49]

권주가

조우임(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뭐라 카더노?) (조사자: 먹고 노자는 동배주요.)

[부산진구 민요 50]

노랫가락

박용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죽일년아 살릴년아 거무줄[23]에다 목맬년아
낙동강으로 [웃음] 떠밀년아
어린자식을 잠들여놓고 병든가장을 뉘여놓고
새복바람[24] 봄바람에 밤보따리가 웬말이냐 [웃음] (그기 끝이다.)

[부산진구 민요 51]

파랑새요

23) 거미줄,
24) 새벽바람.

문봉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사[25] 울고간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내두고서 가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52]

이갈이 노래

문봉자(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줄께 새이다오 (이라고 지붕 위에 떤진다.)

[부산진구 민요 53]

다리세기 노래

문봉자(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빡구 돌빡구
연지탕에 열두양
조래짐치 장두칼 [청중 박수]

25) 청포장사를 잘못 말함.

[부산진구 민요 54]

진도아리랑

문봉자(여, 1947년생),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문봉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신작로복판에 하이야가 놀고
하이야속에는 신랑각시도 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늙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리리가 났네 (인자 모르것다.)

[전수정]
놀다가소 놀다나가소
저달이 떴다지도록 노다나가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부산진구 민요 55]

다리세기 노래

박갑식(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빡구 돌빡구
도리짐치 장두칼

[부산진구 민요 56]

화투타령

박갑식(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에맺어
이월매단에 맺었던가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숭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날어
유월목단에 나비왔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만 바랐더니
구월국화 굳었던꽃은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57]

개타령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개야 개야 삽살개야
개야개야 삽살개야
개야개야 삽살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짖는개야
야월삼경 설운둥에
우리임이 오시거든
개야개야 검둥개야
개야개야 검둥개야
짖지를 마라
짖지를 마라
멍멍 멍멍
짖지를 마라

[부산진구 민요 58]

꽃타령[26]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꽃사세요 꽃을사세요 꽃을사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 사랑의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러매고 꽃팔러 나왔소
붉은꽃 파란꽃 노리고도 하얀꽃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울긋 빛난꽃
아롱다롱 고운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사시오 꽃을사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봉울봉울 맺힌꽃 숭울숭울 달린꽃

26) 제보자 가창한 꽃타령은 1980년대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로 이인선 작사, 김영종 작곡, 김세레나 노래다.

봉실봉실 웃는꽃 활짝피었네 다핀꽃
벌모아 노래한꽃 나비앉아 춤춘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사시오 꽃을사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59]

너냥 나냥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노래로]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로 갔는데
태풍아 바람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웃음]

[부산진구 민요 60]

늴니리야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건너마을 김선달네 하량룸아가씨 얼굴에피었네
사주단자 받았다고 문밖출입 안한다네
  니나노난실 니나노난~실 얼싸 내사랑아~

[부산진구 민요 61]

밀양아리랑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조사자: 정든 임이.)
정든임이 오셨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산진구 민요 62]

새타령[27]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새가 날아든다 왠갖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상보곡식 무인초 술이비조 물새들이[28]
농청하단에[29] 짝을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27) 김세레나가 1964년에 민요 곡조로 부른 대중가요이다. 진선미 작사, 김부해 작곡의 신민요에 해당한다.
28) 원래 가사는 '산고곡심 무인처 수립비조 뭇새들이'임.
29) 원래 가사는 '농촌 화답에' 임.

저쑥국새가 울음운다 울어~울어 울음운다
이산으로 가이면 쑥국 쑥국 쑥국
저산으로 가이면 쑥쑥국 쑥국
아하~ 어히~ 이히이히 이히~ 이히
좌우로다녀 울음운다 [청중 박수]

[부산진구 민요 63]

사발가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요놈의정도 안나고 (나 그것밖에 모르겠다.)
(조사자: [노래로]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퐁퐁 나고요.)
연기만퐁퐁 나고요 (조사자: 요내 가슴.)
요내가슴에 타는데 연기도한숨도 안나네 (나 이 노래는 잘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64]

성주풀이[30]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관령으로 서리서리 나리소서~
한송정 솔을베어 조그맣게~ 배를지어
술렁술렁 배띄워놓고 술이나한줌 가득실고
강릉경포대로 달구경가세 두리둥실 달구경가세~

30) 김세레나가 1969년에 신민요로 부른 대중가요이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낙양산 십리허예~ 높고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누구냐
우리네인생 한번가면 저기저모양 될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관령으로 서리서리 나리소서 (좋다!)

[부산진구 민요 65]

태평가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어화~ 어화~ 둥둥두둥둥 둥둥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한송이 떨어진꽃이 낙화진다고 서러워마라
한번피었다 시들줄을~ 나도본연히 알면서도
모진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릴거늘 무심코~ 밟고가니
낸들아니~ 슬플소냐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아파서 못살겠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좋~다

[부산진구 민요 66]

진주난봉가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어머님 하신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 볼라거든 진주강에 빨래가라
진주강에 빨래가니 난데없는 말발소리
떵떵떵떵 돌아보니 하늘같은 말을타고
구름같은 갓을쓰고 본체만체 지나가네
검은빨래 검게하고 흰빨래 희게하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어머님이 하신말씀
얘야아가 사랑방으로 들어가라
사랑방에 들어가니 오색꽃을 화량하고
기생첩을 옆에끼고 손주장을 하는구나
버선발로 뛰어나와 명지수건[31] 석자석치
목을매어 죽었노라 진주낭군 그소식듣고
(조사가: 버선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세상은 내사랑아
본처는 백년이고 기생첩은 삼년인데
어허둥둥 내사랑아

[부산진구 민요 67]

회심곡

전수정(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일심으로 정념은 나미타불[32]
도~ 오~~ 오색창생이라 (청중: 좋다!)
여보시오 만님시주님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인간세상에 다나온 은덕을랑
남녀노소가 잊지를말고
근명전에 법화경이로다

31) 명주 수건.
32) 나무아미타불.

곤명전에 언중이로다
우리부모 날배실제
백일정성 산천기도라
명산대찰을 다니시며
왠갖정성을 다드리시니
힘든남기[33] 꺾어지며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라
석가세존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제석님전 복을빌고
칠성님전 복을다빌어
열달을 배설한후
이세상에 태어나니
우리부모 날기르실제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천금을주어 만금을다주어
날곱게 길렀건만
어려서는 철을몰라
부모은공 갚을소냐
다섯하며 열이로다
열에다섯 대장부라
인간칠십 고래해요
팔십장년 구십충강
백세를 산다고해도
병든날과 잠든날을 다제하고나면
단사십도 못다사는인생
만민시주님네 회심곡을 허서말고
부모님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허고

33) 나무.

업장닦아 극락세계로 나가~세~ [청중 박수]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부산진구 민요 68]

화투타령

김천등(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심어놓고
이월매따리 맺었구나
삼월사쿠라 (조사자: 산란한 마음.) (뭐, 그걸 모르겠네.)
사월흑싸리 흩어진마음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날라든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구월구화가 뭐?) (청중: 구월 국화야 꽃 자랑 마라 시월 단풍에 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69]

비 노래

김천등(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가매문에[34] 비뿌린다 (뭐)다홍치마 얼룽진다 [일동 박수] (다 잊아뿠다.)

34) 가마 문에.

[부산진구 민요 70]

두껍이집 짓기 노래

김춘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흙을 이래 모아갖고 이래이래 뚜드리고 이랬는데.)
두껍아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돌라
(그래 모래밭에 가서러. 강뚝에.)

[부산진구 민요 71]

이갈이 노래

김춘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이로 빼면은 인자 그거로 요새는 그지? 빼면 그냥 버리는데 와 지붕에다가 던지면서로.)

까치야 까치야
헌니 가가라 (카매 던지대.)
내새이빨 도고[35]

(조사자: 웃니는 어디다 던지고?) (청중: 웃니는 웃청에 던지고 아랫니는 아래청에 던지고.) (촌에서 그라대.)

웃니빠진 개우지
앞니빠진 소우지
(소가 아랫니가 없거든. 그래놔놓이.)

35) 다오.

[부산진구 민요 72]

밀양아리랑

김춘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기주소 (그랬나? 모르겠다. 나도 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빵긋 (그거는 우째 아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겨주소
(그렇나? 모른다 끝을. 앞은 알고 끝은 모르고 이렇다.)

[부산진구 민요 73]

화투타령

이정길(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말로 읊조리며]
정월솔가지 솔솔은마음
이월매조 맺었던가
삼월사쿠라 (조사자: 산란한 마음.)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청중: 사월흑싸리 흩어놓고.) 헛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떨어지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뜨고
구월국화에 꽃자랑마라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몰라 마.) [일동 박수]

[부산진구 민요 74]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조필수(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불매 불매
(이래 시킸다꼬. 아로 앞에다 세와놓고, 세와놓고. 겨드랑밑에다 손을 옇어가지고)
불매야 불어라
불매불매 불매야

[부산진구 민요 75]

밀양아리랑

조필수(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입고자다가 벗고자니까 와이래좋노 [청중 웃음]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혼자자다가 같이자니까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와이래좋노~
디비자다가[36] 포개자니까 와이래좋노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36) 엎드려 자다가.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이 노래가 있어.) [청중 박수] (이 노래가 있다. 이기 장개를 못 간 노총각이 그거를 해가. 이런 노래가 있어.)

[부산진구 민요 76]

노랫가락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청중: 잘한다.)
인생은 일자춘몽에 아니놀지를 무엇하리 (좋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77]

청춘가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열두칸 기차야~ 소리말고 가거라~
산란한 이내마음 좋~다 더살랑 하누나~ (청중: 잘한다.)

괄새를 말어라 괄새를 말어라~
이팔청춘아 좋~다 너괄새 말어라 [일동 박수] (청중: 아이구! 잘하네.)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 가슴에 좋~다 희망도 많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요렇기 좋으면 못살겠네 [웃음]

[부산진구 민요 78]

신아리랑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시접을[37] 못살면 걱정이되나요
야마도 공장에 실풀러가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좋아~
보리쌀로 씻가가 오줌을싼다 [일동 웃음]

오줌을 쌌으면 작기나[38]샀나~
열두폭 속곳밑이 다젖었다 [일동 웃음] (인자 나는 고만해도 되지예.)

[부산진구 민요 79]

노랫가락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아지으난 밥은[39] 미도많고서 돌도~많다
언제나 유정님만나 미돌없는밥 먹어볼까
좋다~ (받으소.) [일동 웃음]

37) 시집을.
38) 작게나.
39) 아! 지은 밥은.

[부산진구 민요 80]

사발가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폴폴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한품에 든지도모른다
어야라 디야 디여라~ 얼싸안고 [웃음] 내사랑이로다 [일동 웃음]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요렇게 좋으면 딸놓겠네 (좋다!)

[부산진구 민요 81]

모심기 노래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물길은청청 열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청중 웃음]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첩으야방에 놀러갔지

윤유월이 두달이면 첩으를팔아서 부채사지
(조사자: 아, 어머니 그 뒤에 가사가 그거네. 무슨 놀이하는 거지요 그게? 6월 6일. 음력 6월 6일.) (내나 그 모 심으면서 하는 거.) (조사자: 아, 그 부채 나오는 거.) (그 저 첩을 팔아, 윤유월이 두 달이면 너무 덥어서러 첩을 팔아가 부채를 산다.) (조사자: 첩을 왜? 덱고 살 땐 언제고.) (워낙 덥으니까, 그래 워낙 덥으니까 좋아하는 첩을 팔아갖고도 사야 되겠다 이기라. 워낙 덥어서.)

[부산진구 민요 82]

권주가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은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동배주요 (그러면 다 안 하나?) [일동 박수]

[부산진구 민요 83]

너냥 나냥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웃음]
(조사자: 그 뒤에도 쭉 있는데.) (그 자꾸 넣으면 돼. 자꾸 뭐로.)

[부산진구 민요 84]

진도아리랑

이옥분(여, 1939년생), 김갑례(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이옥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김갑례, 이옥분]
문경새재는 왜생깄나

첩의야 구부구부에 눈물이난다 (그 모르겠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산진구 민요 85]

파랑새요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쥐는쥐는 궁개자고 새는새는 낭개자고
우리겉은 애기들은 엄마품에 잠을잔다
(조사자: 너무 좋다.) (이란다. 이절이라.)

새는새는 낭개자고 쥐는쥐는 궁개자고
우리겉은 애기들은 엄마품에 잠을잔다
(청중: 기억력 좋네.) [일동 박수]

[부산진구 민요 86]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불매불매야
이불매가 누굴매냐
경상도 무슨불매

(할매 무슨 성을 들믹이면서는, 무슨 불매다.)
후라라딱딱 불어라
얼씨구 좋다 불매야 (이라대.)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87]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자장자장 우리개야
우리개는 자는데는
앞집개도 짖지말고
뒷집개도 짖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끝이다.) [일동 박수]

[부산진구 민요 88]

청춘가

이옥분(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허야디야 허야디야 호야~
훨훨훨 늘어지고 사랑이로다
에헤~ 청춘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희망도 많다

에헤~ 호야디야 호야디야 호야
훨훨훨 흐러지고 사랑이로구나

에헤~ 청춘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들 가슴에 햇살이 많다

에헤~ 호야호야 허야디야 호야
훨훨훨 늘어지고 사이다방아로구나
에헤~ 새끼야 백발은 씰곳이[40]있고요
사람의 백발은 씰곳이 없다

에헤~ 허야허야 허야디야 허야
훨훨훨 늘어지고 니하고 내하고논다
(좋다! 넘어간다.) [일동 웃음] (조사자: 어머니 진짜 잘하시네.) (오늘 마이 했다. 오늘 땀이 찡찡 나도록 했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89]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재옥(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41]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여
님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님이민다
님아님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90]

모심기 노래

최재옥(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40) 쓸 곳이.
41) 세모난 나무.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청중: 환승할래.) (뭐라 카노? 그거.)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부산진구 민요 91]

노랫가락[그네 노래]

황봉선(여, 1945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팔각정경로당]

헤~수천당 세모진낭개 둘이타자고 그네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어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아이구! 몬 하겠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92]

보리타작 노래[42)]

김행임(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때리라 때리라
여기 때리라
제수도 내좇만 바래고
형수도 내좇만 바랜다 [웃음]
(보리타작하면서 쎄가 짤라가[43)].)

42) 혀가 짧은 이가 부르는 보리타작 노래다.
43) 혀가 짧아서.

[부산진구 민요 93]

성주풀이[44]

이기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저건네 잔솔밭밑에 슬슬기는 저포수야
오만짐승 다잡아도 금빛달키는[45] 잡지마소
　얼씨고 절씨고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94]

청춘가

이기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조그만 요내가슴 (조사자: 좋다!) 수심도 많노라 (끝이요.)

[부산진구 민요 95]

화투타령

이기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조사자: 정월.)
정월솔가지 속속헌마음
이월매주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속속헌마음

44) 김세레나가 1969년에 신민요로 부른 대중가요이다.
45) 금빛 닭은.

사월흑싸리 흩어지고
오월난초 나리던나비
육월목단에 다떨어진다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조사자: 팔월.)
팔월공산이 달밝는다 (거 11월달은 몰라.)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조사자: [노래로] 오동추야 달이 밝아.)
달이밝아 (모른다 그거는.)

[부산진구 민요 96]

진도아리랑

이기자(여, 1941년생),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이기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건너간다
  아이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정명남]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나
전기전마당이 한강수됐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청춘하늘에는 잔별도많고

요내야 가슴에는 수심도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고무신신었다꼬 빼똥빼똥 말어라
그고무신 떨어지면 니나내나 똑같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구나

[부산진구 민요 97]

각설이타령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에~이 씨구씨구 씨구씨구 돌아간다
야한정에 봄이로다
품바라 품바라 잘한다
어허 뿟뿟 잘한다
뿌~뿌 잘한다
여름바지는 합바지
겨울바지 저바지
저바지 개바지
개바지 소바지
소바지 합바지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98]

너냥 나냥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서방님 줄라꼬 호박을 삶았더니
작은정신에 삶아서 오강단지를 삶았네

서방님 줄라꼬 맹태를 삶았더니
작은정신에 삶아서 다듬방맹이를 삶았네
(조사자: 너냥.) 내냥 두리두둥실 얼찌고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서방님 줄라꼬 꽃개미를 꾸웠더니
작은정신에 꾸웠더니 시똥무디기를[46] 구웠네

[부산진구 민요 99]

밀양아리랑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산진구 민요 100]

시집살이 노래(1)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시접을갔네[47] 시접을갔네 진주덕산으로 시접갔네

46) 새똥 무더기를.

시접가던 삼일만에 서방님이 백리더러
능라점에 옷을팔아 공방에라 월자팔아
인삼사고 산삼사고 약방에라 약을지어
약단지를 끌어놓고 앉아종친 벗어종친
석달열흘 종친을하여 임가시는줄 내몰랐소 (그 카며.)

[부산진구 민요 101]

시집살이 노래(2)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열다섯에 머리를얹어 열여섯에 시접을가니[48]
다문다문 다서나식구에[49] 나하나 사느니라꼬
나무는 소고늬를 날먹었다고 다썪았네
나안꺾은 언봉숭아 날꺾었다고 다써가니
나안꺾은 추자나무를 난꺾다고 다써갔네
아버님도 여앉지소 어머님도 여앉지소이
마리앉아[50] 막말을하고 청에앉아 정말하는데
석자수건 목짤라죽을라하여 글자야한자에 몬죽겠고
한강수에 폭빠쟈죽을라하여 글자한자에 몬죽겠고
오나는가요 나는가요 새다리공굴로 중되러가요

[부산진구 민요 102]

양산도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47) 시집을 갔네.
48) 시집을 가니.
49) 다섯 식구에.
50) 마루에 앉아.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에헤이여~
노자 좋구나 젊어서놀아 늙어야지면 몬노나니~
  에라 동둥이야라 아니나 몬놀것네~
  능기능기를 하야 나는 몬노리로다

에헤이여~
시방세때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에라 둥기둥기디여라 아니나 몬놀것네~
  능기능기를 하야 나도 몬노리로다

에헤이여~
너하고 나하고 비빌때면
빗자리몽댕이 싹싹씰어 한강물에다 옇고~
없는간장 있는간장 한탄을 말자
  에라 둥게두여라 아니나 몬놀것네~ (모르겠다.) [청중 박수]

[부산진구 민요 103]

다리세기 노래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전도맹근 도맹근
짝바리 해양근
도래줌치 사래야
육구육구 절래육구
동산에 먹을갈아
엎어질똥 말 똥

[부산진구 민요 104]

주머니 노래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올라가는 저군들아 밀어오는 저군들아
다른구경 다제치놓고 줌치구경을[51] 하고가소
줌치싸 잘집었건만은[52] 누가집은 솜씨로고
어제왔던 꺽개씨 오늘왔던 꺽개씨
둘이솜씨가 집으로다

[부산진구 민요 105]

노랫가락(1)[연정가]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과한눕은[53] 손수건에다 사랑의애자로 수를나여
임오시면 드린다고 가수분깊이다가 넘겼더니
그손수건 끊기도전에 이별별자가 왠말이던가

[부산진구 민요 106]

무정한 오빠 원망 노래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51) 주머니 구경을.
52) 잘 기웠건만.
53) 뜻을 알 수 없음.

진주남강 남강우에 시누올키[54] 꽃따다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남강물에 떨어졌네
우리오빠 거동보소 쇠까꾸리 손에들고
흘레발레 오시더니 옆에있는 저거동생
짚은물로[55] 껀져옇고 짚은물에 저거처자
손목잡고 가는구나
처자는 죽으면은 있고있고 또있는데
동생은 한번가면 싹이나나 움이나나
분살같은 이내살키 허레밥이 다되었네
분살같은 [말을 바꾸어] 삼단겉은 이내머리 오장깐이 다되었네 (청중: 좋다!)
나도죽어 후승가서 남자한분[56] 되여가주[57]
처자부터 심길라네[58]

[부산진구 민요 107]

노랫가락(2)

정명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청강낙수 흐르는물에~
(조사자: 해주이소. 하시는 물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예?) (내가 잊아뿔랐다.)
청강낙수 흐르는물에~ 배챠씻는[59]저큰아가 (청중: 좋다!)
겉에그잎 다제치놓고 속에속대를 나를도라이
당신이 날언제봤다고 속에속대를 도라이~[60]
뒷동산 꽃꺾을때게 너랑나랑 안꺾었나

54) 시누이와 올캐.
55) 깊은 물에.
56) 남자 한 번.
57) 되어서.
58) 섬길라네.
59) 배추 씻는.
60) 나에게 달라.

[부산진구 민요 108]

모심기 노래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넝창넝창 비루끝에[61] 무정할사 저오랍아 (청중: 그거 아이다.)
나도죽어 후승가서 낭군부터 섬길라네 (우리는 그래 해.)

[부산진구 민요 109]

너냥 나냥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너냥 나냥.) 두리둥실 얼씨고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내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네
  너냥내냥 두리둥실 얼씨고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내사랑이로고나

[부산진구 민요 110]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61) 벼랑 끝에

(조사자: [노래로] 불매 불매.)
불어라
이불매가 누불매고 (뭐라 카노? 뭐라 카노? 모른다 고마.) (조사자: 경상도.)
경상도 대불매
불어라 딱딱
불어라 (다 불렀어.)

[부산진구 민요 111]

파랑새요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새야새야 퍼랑새야[62] 녹두낭게[63]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만 청포장사 울고간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112]

사발가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조사자: 석탄.) 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부산진구 민요 113]

노랫가락[그네 노래]

62) 파랑새야.
63) 녹두 나무.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추천당 세모진낭게 늘어진가지다 그네를매어
임이뛰만 내가밀고요 내가뛰면은 임이미요
임아임아 줄밀저마라[64] 줄떨어저민은[65] 정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114]

양산도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햄양산청[66]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러집에 우런님은 나를안고 돈~다 (우리는 글캐.)
(조사자: 에헤야.) 데헤야~ (끝도 모른다.)

[부산진구 민요 115]

백발가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완절마라
나도어제같이 소년이니 백발보기가 아주○○[67]했네

64) 줄 밀지 마라.
65) 줄 떨어지면은.
66) 함양산청.
67) 가사를 얼버무려 알아들을 수 없음.

[부산진구 민요 116]

다리세기 노래

허학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맹근 도맹근
짝바리 히양근
도래줌치 장두칼
정천에 물묵고
아즘고개로 넘어가네

[부산진구 민요 117]

노랫가락 차차차

금자야(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라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와라왕창 호시절에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부산진구 민요 118]

양산도

금자야(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낭군 나를안고 돈다
  어허라 니월아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119]

창부타령

금자야(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한숨을 쉬어서 무엇하나 짜증을 지어서 무엇하나
일생 일자춘몽인데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봄나비는 이리저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낭군님이 다시돌아온다
공수요 공수~레에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청중 박수]

[부산진구 민요 120]

너냥 나냥

금자야(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생그래서운다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씰곳이없네
(아이고! 눈물 날라 칸다. 내가.)

[부산진구 민요 121]

노랫가락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그것빽에 없다.)

[부산진구 민요 122]

진도아리랑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문경새재는 웬고갠가
굽우야 굽우굽우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노다가세 놀다가 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놀다가 가세 [웃음]

[부산진구 민요 123]

사발가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폴폴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인자 그래한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124]

강강술래(1)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강강술래 이술래가 누술랜가
마당임개 술래라네 강강술래
술래명창 돌아간다 강강술래

[부산진구 민요 125]

강강술래(2)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늘에다 베틀놓고 강강술래
구름잡아 잉에걸고 강강술래
탱자나무 북에다가 강강술래
잎으야나무 포두집에 강강술래
돌아간다 돌아간다 술래맹창[68]이 돌아간다 (그러믄.)
앞문에서 받어갖고 뒷문에서 피어보니
시가죽은 편지라네 강강술래
소금에도 썩은밥이 육장에도 담더다네[69] 강강술래
(그런 노래 있어. 인자 그만해.)

68) 술래 명창.
69) 뜻을 알 수 없음.

[부산진구 민요 126]

비 노래

김처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형님 시집갈때
가매[70]꼭지 물들어간다
비단치매 어룽진다

[부산진구 민요 127]

백발가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절마라
어제같이 소년인데 백발되기 잠깐이다 (그 뿐이라.)

[부산진구 민요 128]

아리랑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청춘 하늘에 잔별도많고
요내야 가슴에 희망도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70) 가마.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고개
정든님 고개는 단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산진구 민요 129]

밀양아리랑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넘가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넘가주소

정든님이 가라캐도 갈똥말똥하는데~
되지못할 시오마씨 날가라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넘가주소

삼동시야 사동시야 다모여라
되지못할 시오마씨 망깨를놓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고마 하자. 마이 했다.)

[부산진구 민요 130]

화투타령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말로 하며]
(가만 있어봐.)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리 매쌍하네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련한나비
육월목단에 공달아들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뜨오고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동짓달은 뭐라 카노?)
오동동동 값많다해도
비삼십오륙만 몬당하더라

[부산진구 민요 131]

청춘가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소년몸 되어서 학문의 명문을 닦아를 봅시다
산좋고 물좋고 경찰서 짓고요
키크고 곧은나무 전봇대 세웁시다

[부산진구 민요 132]

노랫가락

김학임(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바람불어 쓰러진낭개[71] 눈비온다꼬 일어나리
내만년에 병들어누여난사람 약을쓴다꼬 일어나리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면
대장부 살림아살이 요만하면은 대땍이지

[부산진구 민요 133]

파랑새요[72]

윤선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가 울고간다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좋구나 차차차
  와라왕창 호시절에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부산진구 민요 134]

모심기 노래

윤선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71) 쓰러진 나무.
72) '노랫가락 차차차' 음률에 맞춰 가창함.

[말로 하며]
포롱포롱 (봄배추가?) (조사자: 예.) 봄배추는 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조사자: 옥에 갇힌.) 옥에갇힌 춘향이는 님오도록 기다린다 (조사자: 맞아예.)

[부산진구 민요 135]

다리세기 노래

윤선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두만강 (그 다음은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136]

이갈이 노래

윤선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는 니하고
새이는 나주가[73]

[부산진구 민요 137]

비 노래

최경순(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73) 나에게 다오.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세이[74] 시집간다
가마꼭대기 물이든다 (안 하나.)

[부산진구 민요 138]

다리세기 노래

강윤철(남,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망근 너른들
(아이고! 다 알았는데 모르겠네 인자.)

[부산진구 민요 139]

파랑새요

김은희(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부산진구 민요 140]

다리세기 노래

74) 우리 언니라는 의미.

김은희(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만도 대만도
짝바리 애앙실
다르매중태 장두칼
꼭꼭 묶어서 (그래갖고 모르겠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141]

모심기 노래(1)

문봉순(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말로 하며]
오늘해가 다졌는데 이골저골 다심어도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부산진구 민요 142]

양산도

문봉순(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요
우리집에 우런님은 나를안고 돈다요
(그래 불렀다. 우리 고향이 산청이라.)

[부산진구 민요 143]

모심기 노래(2)

문봉순(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말로 하며]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오마니 무덤에 젖묵으러 나는가요 (그러 칸다.)

[부산진구 민요 144]

다리세기 노래

이순녀(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구맹근 두맹근
짝바리 하양근
도리줌치 사루 육

[부산진구 민요 145]

너냥 나냥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146]

노들강변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잊을이로다

[부산진구 민요 147]

태평가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짜징을내어서 무엇하나 (청중: 좋다!)
한숨만 쉬어서 무엇허나
오동추야 긴긴밤에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안 넘어간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나비는 이저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아이고! 대죽겠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148]

밀양아리랑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중: 좋다!)

[부산진구 민요 149]

새타령[75]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새가 날아든다 왠갖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산조곡심 무인초 수립비조 뭇새들이
용천바다에[76] 짝을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부산진구 민요 150]

양산도

박윤금(여,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햄양산청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도는데
우리집에 저양반은 기생만안고 돌고돈다

75) 1964년에 진선미 작사, 김부해 작곡, 김세레나 노래로 부른 대중가요이다.
76) 원래 가사는 '농촌 화답에'임.

에라 대라~ 흐아~ 어허야
어헤 에요라~ 방아로구나 (청중: 잘 한다!)

[부산진구 민요 151]

비 노래

배분돌(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말로 하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갈때
다홍치마 다젖는다 (그것밲에 모르니까네.)

[부산진구 민요 152]

사발가

배분돌(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가창
[당감2동 제일경로당]

석탄백탄 타 (나 모른다. 까묵어가 모른다. 처음 불러본다.)
석탄백탄 타는데~ 요내가슴은 안타느냐 (그거밲에 모른다.)

[부산진구 민요 153]

도라지타령

오순근(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목이 이래가지고.)
한두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어리절반 넘는구나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우여로 난다~ 기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설설 다녹인다

[부산진구 민요 154]

파랑새요

오순근(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77]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부산진구 민요 155]

백발가

오순근(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몸되어~ 명문대학을 배웁시다
청춘홍안 자랑마라 (어, 저게.) 허송세월이 백발되누나

개울천 박힌돌은 부딪쳐서 하얗고요
이내몸은 시달려서 백발되누나

병두산 약수대 꼭대기에
외로이 홀로선 저소나무는 나와같이 외롭구나

77) 녹두나무.

[부산진구 민요 156]

너냥 나냥

오순근(여, 1942년생), 전덕순(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조사자: 호박은.) 늙어서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쓸모가 없다 카지?) 쓸모가 없다

[부산진구 민요 157]

백발가

오순근(여, 1942년생), 전덕순(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괄세마라
나도어제 이팔청춘이데 백발되기가 일소로다
  얼씨구나 좋다~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158]

모심기 노래

이희순(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퐁당퐁당 찰수지비[78]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맘은 어데로가고 저동자를 딸맽깄노

78) 찰 수제비.

[부산진구 민요 159]

노랫가락

전덕순(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말로 하며]
담너매 저총각이 꼴베는 저총각아
언제커서 내낭군될래 (노래가 있긴 있는데.)

[부산진구 민요 160]

모심기 노래

전덕순(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같이 남았네

[부산진구 민요 161]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전덕순(여, 1938년생)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지금도 하는데.)
불매야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냐
우리집에 대들보
(내나 이러쿠고. 노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162]

양산도

전덕순(여, 1938년생)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말로 하며]
함양산청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그렇게 노래 해. 다 잊아뿠어.)

[부산진구 민요 163]

다리세기 노래

전덕순(여, 1938년생)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망근 도망근
짝바래 애알
(뭣이 어떻고. 탁 이래 잡는다. 인자 뭐 안 나온다.)

[부산진구 민요 164]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전덕순(여, 1938년생)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잠드는데
뒷집개야 짖지말고

앞집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잠깨면은
(뭐라 카는지 모르겠다. 뭐.)

[부산진구 민요 165]

화투타령

전덕순(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정월이라 산란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솟아난다
오월난초 흑나비는
육월목단에 춤잘치고
칠월이라 홍돼지란놈이
팔월공산을 내다본다
구월국화 궂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동지섣달 설한풍에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부르며]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임도잠도 아니나오고나 (뭐라 카는데 또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166]

노랫가락[그네 노래]

전덕순(여, 1938년생), 최옥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79] 군대를 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어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웃음]
줄이사 떨어지건만 깊이든정이 떨어질소냐

[부산진구 민요 167]

모심기 노래

최옥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상주함창 공골못에 연밥따는 저아가씨
연밥을랑 내따주께 내품안에 잠들어주오
잠들기사 어렵지않소마는 연밥따기가 어려워요

[부산진구 민요 168]

노랫가락[춘향 노래]

최옥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새들새들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룡오기만 기다리고

[부산진구 민요 169]

화투타령

최옥남(여, 19385년생) 가창

79) 추천당 세모진 나무.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정월초라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임을잃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에 꿈을꾸니
오월난초 나비가날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달구경하네
구월국화 곧으난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져서
동지섣달에 오신단님이
눈비가와서 못오시나 [웃음]

[부산진구 민요 170]

화투타령

김유화(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말로 하며]
(조사자: 정월.) 정월솔가지 (모르겠어.)
이월매자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뭐.)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청중: 흩어졌다.) 흩어놓고
(조사자: 오월 난초.) 나비가되어
오월난초 나비되어
육월목단에 춤을추네
(조사자: 칠월 홍돼지.)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뜬다 (청중: 팔월 공산에 똑 떨어졌다 이란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청중: 똑 떨어지고.)
(또 뭐더라?) (조사자: 오동추야.)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웃음]
님오도록 기다리나 [웃음] (모른다. 우리 인자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산진구 민요 171]

파랑새요

김정자(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말로 하며]
새야새야 (청중: 파랑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80]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중: 청포장사.)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래.)

[부산진구 민요 172]

이갈이 노래

손태금(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조사자: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내헌니줄께 새이다오 (이랬다 아이가.)

80) 녹두나무.

[부산진구 민요 173]

너냥 나냥

손태금(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조사자: [노래하며]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그리워 운다
너~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좋다!)

[부산진구 민요 174]

다리세기 노래

손태금(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구 도맹구
까마우 까악
노리야 범 (모르겠네.)

[부산진구 민요 175]

다리세기 노래

양순연(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아잡아[81] 아잡아
아잡아 아잡아
새잡으로 간다
몇마리 잡았노
다섯마리 잡았다
한마리 주가
꾸우묵자 (이랬다꼬.)

[부산진구 민요 176]

권주가

최귀자(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조사자: 받으시오. 옛날에는 또 술을 줘도 이렇게 멋있다 아입니꺼? 그지예. 받으나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나시오
(조사자: [노래하며] 이 술은.) 이술은 술이아니오~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부산진구 민요 177]

파랑새요

최귀자(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말로 하며]
새야새야 우지마라 녹두밭에 앉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카든가? 뭐.)

81) 아저씨.

[부산진구 민요 178]

사발가

최귀자(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말로 하며]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 풍풍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뭐.) (조사자: 연기도 김도.) 연기도짐도 안나네
(카고, 그런 거를 애릴적에 하더라고.)

[부산진구 민요 179]

밀양아리랑

노상주(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남촌강[82] 구비쳐서 영남로를 감돌고
병풍에 그린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겨주소~ [웃음]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오시는데[83]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겨주소~ [웃음]

82) 영남루 인근의 남천강을 말함.
83) 원래는 '정든님이 오시는데'이나 가창시 앞 소절 가사를 생략했다.

[부산진구 민요 180]

다리세기 노래

노상주(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도만두 두만두
짝발레 후알레
밤송이 뚜드랑
땡 (이랬다.)

[부산진구 민요 181]

진주난봉가

노상주(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신말씀
애야애야 우리아가 진주남강에 빨래로가라 (청중: 해봐.) (맞다.) (조사자: 맞아예.)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청중: 돌도 좋고 물도 좋아.) 돌도좋고 물도좋아
껌둥빨래 희게빨고 흰빨래 껌게빨고 (청중: 흰빨래는 희게 빨고.) 희기빨고
구름같은 서방님이 (뭣을 타고 오고 그렇다.) (조사자: 구름같은 갓을 쓰고.) 갓을 쓰고 (잊아뻤다. 인자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182]

시집살이 노래

박병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고
시집살이 말도마라 친정살이 흉도많더라 [웃음]

[부산진구 민요 183]

다리세기 노래

박병순(여, 1939년생), 정기저(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박병순]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빡구 돌빡구
연지탕에 열두양

[정기저]
도래짐치 장두칼
단도머리가 사래 양 (그랬다.)

[부산진구 민요 184]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84] 늘어진가지에 군대를매어[85]
임이뛰면 내가야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84)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85) 그네를 매어.

임아임아 줄살살밀어 줄떨어진다면 정떨어진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185]

모심기 노래(1)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다풀다풀 타박머리 (다풀, 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다 (조사자: 해다진데 어데가노.)
(이러쿠면만 알지.)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엄머니 산수등에[86] 젖묵으러 내가가요

[부산진구 민요 186]

쌍가락지 노래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먼데보니 달이로다 옆에보니 처녀로다
그처녀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부산진구 민요 187]

모심기 노래(2)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86) 산소등에.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침[87] 남았구나
제가뭣이 반달이고 처승달이 반달이다 (그것도 그기 끝일 끼요.)

[부산진구 민요 188]

밀양아리랑(1)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좋아~ (뭣인교?)

[부산진구 민요 189]

쌍가락지 노래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수시때기 민가락지 [웃음]
(모르겠다. 그만침밲에 몰라.)

[부산진구 민요 190]

밀양아리랑(2)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87) 반달만큼.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정든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내가넘어간다

[부산진구 민요 191]

노랫가락[춘향 노래]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갔던 춘향이는 이도룡오기만 기다리고

[부산진구 민요 192]

화투타령

박순득(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정월솔갱이 솔씨를맺아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흑쓰러졌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뚝떨어졌네 (청중: 잘한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솟았네 (청중: 좋고!)
구월국화 맺은마음
시월단풍에 탁떨어지고
동지섣달 서남풍에 (동지섣달 뭐라캤노?)
동지섣달 서남풍에 임오기를(그런가?) (청중: 임 오기만 기다린다.) (맞제? 그제?)
동지섣달 서남풍에
임오기만 기다린다 (그래.)

[부산진구 민요 193]

파랑새요

안의자(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88]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러면, 그 밑에 뭣이 또 있는데 고거는 모르겠다.)
(조사자: [노래하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부산진구 민요 194]

다리세기 노래

안의자(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88) 녹두나무.

천도만두 도만두
진때기 열두냥
까막까치 양지봄에
들음빡꾸
똥 땡

[부산진구 민요 195]

너냥 나냥

장신자(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어미그리워 운다
  너냥너한량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작로 복판에는 하이야가 놀고요
하이야 안에는 신랑신부가 논다 [웃음]
  너냥너한량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196]

다리세기 노래

정기저(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박구 돌빡구

연지탕에 열두양
수무리 박구 돌빡구 [웃음] (뭐 있는데 잊아뿠다.)

[부산진구 민요 197]

창부타령(1)

오진삼(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사람마다 혼령이되면 농부될사람 어데있노 (청중: [박수를 치며] 좋다)
의사마다 빙곤치면은[89] 북망산천이 왜생기노 (청중: 아이구 잘하신다.)
얼씨구나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서 지가디나[90]
너를두고 가는내가 가고싶어서 내가가나

[부산진구 민요 198]

청춘가(1)

오진삼(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집과집 담장은~ 높아야 좋고요~

[부산진구 민요 199]

창부타령(2)[91]

89) 병 고치면.
90) 지고 있나.
91) 제보자는 흥이 나서 <쾌지나칭칭나네>의 후렴을 부른 후 <창부타령>의 후렴을 붙여서 가창했다. 전체 노래가 창부타령 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목을 <창부타령>으로 잡았다.

오진삼(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쾌지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정말로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청중: 삼 년만 있으몬 백 살.)
쾌지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정말로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담넘에 꼴비는 총각
니언제 커서로 내낭군 돼
  얼씨구나 좋고 정말로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신작로 널러서 질가기 좋고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200]

창부타령(3)

오진삼(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골골 내아들아 어지수년에 메늘아[92]
일월여지 내손자야 샛별같은 내딸이야
동방에 화초라 내사우야[93]

찹쌀서말 멥쌀서말 백일이라 백화주야
은잔놋잔 옆에놓고 유리잔에다 술을부어
이술받아 자네가들고 자네야청은 내딸주고

92) 며느리야.
93) 내 사위야.

[부산진구 민요 201]

청춘가(2)

오진삼(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이팔에 청춘아~ 소년만 되어서~어
니언제 커서러~어 내낭군 될까나

청천에 뜬구름~ 비실러[94] 가고요~오
앞강에 뜬배는 좋~다 날실로[95] 온단다

[부산진구 민요 202]

창부타령

김기남(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아니~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잊어달라면 잊어주마 못잊을내가 아니로되 (청중: 좋다)
나를 잊어서 행복이 온다면 내마음을 달래면서도 잊어주마
믿지말에 정두지마라 본처가있는 그사람 정두지마래이

살자할때는 백년인데 정떨어지면은 허사로다
죽일사람 살릴사람 대동강물에다 목벨사람
헐은내가슴 멍들여놓코 너잘살기를 바라더라

잘살아라 잘살아래이 본처로 달이고서 잘살아래이
이층삼층 다딤이방에 진땀이 흐르두록이나 잘살아라
너가 잘살까 내가 잘살까 두고두고서 두고보자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94) 비(를) 실러.
95) 나를 실러.

아니 놀지를 못하리래이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진주덕산 안사랑안에 바닥두르는 저근자야
여중일색 너거누이만 날만주면 남중일색을 너를주지
여보당신이 날언제봐서 우리누부를[96] 달라하요
야야총각 그말마소 알고보면은 내천한뱀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진주한량 말을타고 진주야못으로 썩올라서니
연꽃은피어서 만발하고 수양버들은 척늘어졌네
춘낭의집우로[97] 찾아가서 춘낭의방으로 들어가니
춘낭이는 간곳이없고 사장구[98]하나만 남아있네
장구장구 사장구야 니가없으면 내가몬놀고 내가없으면 너몬논다
너와나와 만났을직에 뚜당땅뚜당땅 놀아보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203]

달거리 창부타령

김기남(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아니~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정월이라 초하룻날은 새교[99]묵는 명절인데
복조리는 사라하는데 임건지는 조례는 왜없는공
이월이라 초하룻날은 계자[100]야죽은 넋이든가

96) 우리 누나를.
97) 춘향의 집으로.
98) 장구통을 사기로 만든 장구.
99) 새 교자(餃子). 즉 새 만두.
100) 계자(繼子) 즉 양자이거나 계자(季子) 즉 막내아들일 수 있음.

무덤을 찾아가서 통분하니
무정하고도 야속한님아 왔나소리도 아니하네
삼월이라 삼짇날은 강남갔던 제비한쌍이
옛집을 찾아서 오건만은
울언님는[101] 어디를가고 일년에한번도 집안찾노
사월이라 초파일날은 석가모니 탄생한날인데
집집마다 등불로달아 자석발언을[102] 하건마는
이몸은 이몸이 쓸데있나
오월이라 단오일날은 오색가지를 군디[103]를매어
녹에행상 행인들이 손목을잡고서 뛰건만은
울언님은 어디를가고 그니[104]뛰려고 말이없노
유월이라 유딧날[105]은 떡보리범범을 묵는날인데
사람마다 먹건마는
울언님은 어디를가고 떡보리범벅도 못먹는고
칠월이라 칠석날은 건아야[106]직녀도
은하수야 깊은물로 일년에 한분을 만나는데
울언님은 어디를가고 일년에 한번도 못만나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팔월이라 보름날은 새교묵는 명절인데
집집마다 송핀[107]을맨들아 사람마다 먹건마는
울언니는 어디를가고 이송핀 하나도 못묵는고 (인자 고마 한다.)

[부산진구 민요 204]

태평가

김기남(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8일 채록

101) 우리 님은.
102) 자식 발원(發願)을.
103) 군데. 즉 그네.
104) 그네.
105) 유두날.
106) 견우와.
107) 송편을.

[범천2동 선인경로당]

하늘같이 높은사랑 항해[108]와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문이날에 빗방울같이도 반긴사랑
장명화[109]에 양귀비든가 이도령의 춘항[110]이라
일년삼백 육십일을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
  늴니리~ 리리리리리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봄들었네 봄들었네 이강산삼천리에 봄들었네
푸른것은 오돌개[111]요 누런것은 꾀꼬리라
황금에같은 저꾀꼬리는 구름속으로 날라들고
백실같은 흰나부는[112] 짱다리밭[113]으로 왕래한다
  늴니리리리 릴리리야 니나노~ 늴니리야 늴니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늴릴릴릴 늴리리

[부산진구 민요 205]

잠자리 잡는 노래

김화자(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먼데가면 니죽는다
앉은자리 꽁꽁 앉아라
(조사자: "앉은뱅이 꽁꽁" 우리는 앉은뱅이.) (앉은자리 꽁꽁 앉아라 이랬어예.)

앉은자리 꽁꽁

108) 일반적으로 하해(河海)라고 부름.
109) 일반적으로 '당명황(唐明皇)'이라 한다.
110) 춘향.
111) '오돌개'는 오디의 경남 방언. 오디는 뽕나무 열매를 말함. 일반적으로 "푸른 것은 버들이요"로 부른다.
112) 백설같은 흰 나비는.
113) 장다리 밭. '장다리'는 무나 배추의 꽃줄기.

먼데가면 니죽는다 (그라고 했어요.)
(조사자: “앉은자리 꽁꽁 먼 데 가면 니 죽는다” 하면서.) (앉은자리 앉아라.) (조사자: 앉은 자리 앉아라 먼 데 가면 니 죽는다.) (니 죽는다 그랬어.)

[부산진구 민요 206]

기차 소리 흉내 노래

박두복(남,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밥만 먹고 똥만 뀐다
밥만 먹고 똥만 뀐다

[부산진구 민요 207]

객귀물리는 소리

박두복(남,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야 이 귀신아 들어봐라
성도 알고 이름도 알고 다 안다
이거 받아가지고 물러가야지
만약 안 나가면은 무쇠가마 덮어씌워가지고 저 물에 갖다가 물에 갖다 옇는다
이래 썩 돌아가정 나가라 어셔~ [웃음] [일동 박수]
(청중1: 춤[114] 세 번 받고.) (조사자: 침 세 번.) (청중2: 물로 해가.) (청중1: 환자가 세 번 받는 기라예. 그 사람은.) (칼로 가지고 머리 이래, 멀꺼딩이[115] 이래 세 번 이래 뜨가지고. 여러 가지로 옇는 기라. 꼬칫가리[116]도 옇고, 밥도 옇고, 여러 가지 옇어가지고 거서 인제 해가지고설랑 머리끄댕이 땡기가지고 춤 세 분 받

114) 침.
115) 머리카락.
116) 고춧가루.

고, 받아가지고 나거거든. 칼은 문 앞으로 떤지몬 거기 희안해요 역시. 어떤 때는 칼이 날이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되지, 인자 들오몬 안 되는 기라. 칼로 떤지만 희안하게 끈티가[117] 밖으로, 문 앞으로 딱 끄티이 나가는 기라. 그라몬 물러가는 기고. 또 인제 칼날이 안으로 들오몬 재차 들와가지고 또 밥을 더 섞아 옇고, 또 꼬칫가리 더 옇고, 이라고 또 물리는 기라. 함부래 내가 물러달라몬, "니가 진짜로 무쇠가마 덮어씌가고 물 알로 보낸다. 밥 무러 받아가 나가라." 이래 또 떤지는 기라. 그라몬 대문 쪽으로 밖으로 나가요. 칼날 이기. 그기 신기해요.)

[부산진구 민요 208]

모심기 노래

박두복(남,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에루여 알~사 저어라
나도죽어서 어승[118]가서 낭군부터 섬길라네

퐁당퐁당 찰수제비 사우[119]상에 다올랐네
요년의할매 어데가고 사우상에 다올라가나

새벽같은 저밭골이 반달만침 떠나오네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물기저물기[120] 다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나
(또 모르겠다.) (조사자: 문어 전복.) (끝에 잘 모르겠다.) (조사자: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첩의 방에 놀러갔다.) (첩의 방에 놀러갔다. 그래 맞다.)

117) 끝이.
118) 저승.
119) 사위.
120) 이 물꼬 저 물꼬.

[부산진구 민요 209]

비 노래

박옥주(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응가[121] 시집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부산진구 민요 210]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박옥주(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앞니빠진 개오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조사자: "붕어새끼 놀랜다." "송어새끼 놀랜다." 뭐 그래 하던데.) (아니.) (조사자: 기억 나는교?) (우물가에 가몬 뭐 수, 숭언가 붕언가 모르겠다. [웃음]) (조사자: 붕어새끼 놀랜다.) (예.)

[부산진구 민요 211]

이갈이 노래

박옥주(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121) '응가'는 언니를 말함. 제보자는 '응가'가 마산 방언이라고 말함.

가치야 까치야
(집어 떤지고, 이빨을 지붕 우에 떤지고.)
내이빨 가지가고
새이빨 올리라 (해달라 그런 기 있다.)

[부산진구 민요 212]

다리세기 노래

정복조(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맨동 도맨동
추무리 박구 도박구
연치댕이 열두가지 (이카고 우리는 이랬다.) (청중: 우리도.) (우리 청도서는 그래 했거던.)

[부산진구 민요 213]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정복조(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지접죽고 자석죽고[122]
내혼자만 살았구나 (이래 들린다고 그랬어요.)

[부산진구 민요 214]

비 노래

12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정복조(여, 1946년생) 가창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색시 시집가면
다홍처마 얼룩진다

[부산진구 민요 215]

파랑새요

김말순(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부강경로당]

(조사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몰라 옛날에 그거 하다가 다 잊아뿌고 뭐.)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개[123] 앉지마라
(뭣이고?) (조사자: 녹두꽃이 떨러지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부산진구 민요 216]

사발가

조덕진(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부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폴폴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난다

123) 녹두나무,

[부산진구 민요 217]

파랑새요

조덕진(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부강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다떨어지면 청포장수가 울고간다

[부산진구 민요 218]

백발가

조덕진(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부강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어제는 청춘이더니 오날날[124] 백발이됐다

[부산진구 민요 219]

다리세기 노래

조덕진(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부강경로당]

(조사자: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우리는 이거리 저거리 안 하거든.) (조사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예?)

한나 만나
내구 때구

124) 오늘.

천지 만지
구름에 자고
내조새 반 틸
(이렇게, 우리 고향은 그걸 그렇게 했거든.)

[부산진구 민요 220]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맹분남(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불매불매 (이래 하더마는. 아!)
누불매고 (조사자: 경상도 대불매.)

[부산진구 민요 221]

잠자리 잡는 노래

손도점(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짠자리 꼴꼴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이러 캤어.)

[부산진구 민요 222]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이명순(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풀꾹새가)
구꾸구꾸 (청중: 뻐꾸기라. 그건 뻐꾹새지마는.) (아이.)
지집죽고 자석죽고
걸까진지 숲에당코
어예사노 어예사노 (거 카이, 거 카고 뭐라 카더라.) (조사자: 어예 사노? 어예 사노?) (그래 거 카고 뭐라 카는가 그거는 모리.)

[부산진구 민요 223]

이갈이 노래

전봉연(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헌니[125] 주께
새이 다오 (그거빽이 몰라.)

[부산진구 민요 224]

이갈이 노래

정김해(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헌니는 니가하고
새이는 나도고[126]

[부산진구 민요 225]

할멈 그리는 노래

125) 헌 이.
126) 나(를) 다오.

정김해(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할마이 할마이
우리 할마이
우리 할마이
내다릴랑 니한테걸고
니다릴랑 내한테걸고
둘이둘이 자던잠을
독수공방 홀로누워
앉아생각 누워생각
간절하기나네
(그거 뭐.) 머리빠진데 [말을 바꾸어] (자.)
머리신데 먹칠하고
눈빠진데이 불콩박고
이빠진데는 박씨박고 (거 다지 뭐.)

[부산진구 민요 226]

다리세기 노래

이복심(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만주 또만주
짝발라 히야서 (육도 뭐라 있더마는.)

[부산진구 민요 227]

모심기 노래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성장할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성장하지

(조사자: [노래로] 퐁당퐁당.) 찰수지비 (조사자: 사우야판에.)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요놈의할마시 어데가고 사우야판에 다올랐나

모시야적삼 안서방에~ 분통겉은 저젖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낱만큼만 보고가소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할망구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느냐
밀양아삼당 국노숲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너거야~집은 어데두고~ 어덥두룩 연밥따노

[부산진구 민요 228]

밀양아리랑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날쫌보소 날쫌보소 날쫌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쫌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고개를 날넴기주소

[처음에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을 먼저 부른 후 “뭣이고”하며 더 이상 부르지 못하자, 청중들이 노래 가사를 “정든님이”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자가 그렇다고 하며 다시 부르기를 요청해서 부름]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고거뿐인가 또 있는가 모르겠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고개를 날넴기주소 (모르겠다.)

(조사자: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네야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고개를 날넘기주소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229]

창부타령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자춘몽[127]인데 아니노지는 무엇하리~

[부산진구 민요 230]

노랫가락(1) [그네 노래]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수천당 세모전낭게[128] 가지가지다 추천을 매여

127) 일장춘몽.
128)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저마라[129] 줄떨어지면은 줄떨어, 정떨어진다 (청중: 잘한다. 백점.)

[부산진구 민요 231]

노랫가락(2) [나비 노래]

손희기(여, 1929년생), 이덕숙(여, 1928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손희기]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길가다가 저물거들랑 풀밭속에서 자고가자
[이덕숙]
꽃에서 푸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가세

[부산진구 민요 232]

청춘가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마러라
아까운 내청춘 좋~더라 다늙어지노라

[부산진구 민요 233]

다리세기 노래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129) 줄 밀지 마라.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영두맹근 두맹근
염 두 칼

[부산진구 민요 234]

양산도

손희기(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에헤~헤~이~요
놀아라 놀아라 저리젊어서 놀~아~
늙거나 병들면 못노나니~라
(조사자: [노래로] 아서라 말어라 네가 그리를 말아.) 오고가지를 마라

(조사자: [노래로]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도~올~고~
우리집에 저문디는 나를안고 도~온~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235]

노들강변

이덕숙(여, 1928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라 칭칭돌려서 맺어나볼까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믿을리로다
푸르른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부산진구 민요 236]

너냥 나냥

이덕숙(여, 1928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야밤에 우는새는 님이그려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237]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덕숙(여, 1928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꼬꼬닭아 우지말고
멍멍개야 짖지말고 (모르겠는데.)

[부산진구 민요 238]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이덕숙(여, 1928년생) 가창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지집죽고 자석죽고[130]
내호문채[131] 우찌살꼬
구구구구 [웃으며] (그래 한다. 그래 한다 아인교.)

[부산진구 민요 239]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이상해(남,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기집죽고 자식죽고
서답빨래 누가할꼬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240]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박형식(남, 1941년생), 이상해(남,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박형식]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남강 도망경 (뭐뭐 뭐라 쌌는데 그 뒤로는 또.)

[이상해]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뭐 인자 말했다. 잊어.) (조사자: 도망근.) (예, 예.)
추바리 박구 독박구 (경상도서. 다 거 경상도 사투리라예 거.)

130) 계집 죽고 자식 죽고.
131) 내 혼자(서).

[부산진구 민요 241]

비 내리기 비는 노래

이상해(남,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비야비야 오너라
콩볶어 묵구로

[부산진구 민요 242]

잠자리 잡는 노래

이상해(남, 1947년생) 가창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암잠자리를 잡아가, 다리 저 실로 묶아가 막대기 기다라게 빙빙 돌리면 그 저 숙놈이(숫놈이) 거 와가 붙거더예. 그라먼 그 잡고.) (조사자: 그 잠자리 잡을 때 이래 뭐 그 무슨 소리 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아아, 그거.)

꼰자리 꽁꽁
붙은자리 붙어라
천리만리 가면
니목숨 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243]

다리세기 노래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단주맹근 또맹근[132]
짝바리 이양건[133]
도르매줌치[134] 장돗간 [웃으며] (뭐? 또 끄티 뭐꼬?)

[부산진구 민요 244]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웃니빠진 개오지[135]
(조사자: 아랫니 빠진 갈가지.) 아랫니빠진 개오지
새밋가[136] 가지마라
빈대한테 빰[137]맞는다 (이래 쌌지.)

[부산진구 민요 245]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불꾹 불꾹 불꾹
제집[138]죽고 자석죽고

132) 진주망건 도망건.
133) 휘양건.
134) 도래줌치, 즉 도래주머니.
135) '개오지'는 범의 새끼를 말하는 방언.
136) 새미 가에. '새미'는 우물.
137) 뺨.
138) 계집.

불꾹 불꾹 불꾹 불꾹
내흔차서
[다시 반복]
제집죽고 자석죽고
내흔차서 우찌살꼬
(똑 불꾹 카는 기 똑 그 소리같에예.) (청중: 그 새 울 때 소리 따라 하몬 딱 고래 돼.) (하모. 고래 딱 돼. 장단 딱 맞차 그래 보몬, 고래 딱 돼예.)

[부산진구 민요 246]

잠자리 잡는 노래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부산진구 민요 247]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맨고
정상도[139] 대불매 (쌈서 그래 쌌다.)

139) 경상도.

[부산진구 민요 248]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진주댁(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달강달강 달강달강
(조사자: 달강 달강, [노래로] 서울 가신 선비님이 밤 한 되를 사와서.) (사와서.) (조사자: [노래로] 살강[140] 밑에 옇었더니 머리 까만 새앙쥐가.) (우리는 챗독 안에 옇어놨다.) (조사자: 챗독 안에.)
챗독[141]안에 여었더니
달강새가 다까묵고
한토리[142]가 남았네 [웃으며] (이래 쌈서 그래.)

[부산진구 민요 249]

진주난봉가

김서운(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와삼년을 살고보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에양반을 보았느냐
진주양반을 보실라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140) '살강'은 선반의 방언.
141) 쌀독의 방언.
142) 한 톨.

물도좋고 돌도좋아
난데없는 발재죽소리[143]
옆눈으로 거쳐보니
하늘같은 갓을씨고[144]
구름같은 말을타고
몬본체로[145] 거쳐가네
흰빨래는 희기씻고
껌둥어빨래는 껌기씻고[146]
집이라고 찾어오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에양반을 보았느냐
진주양반을 보실라거든
아리야방문을[147] 열어봐라
아릿방문을[148] 열어보니
오색가지 안주에다가
기성첩을[149] 옆에다두고
권주가를 하는구나
그것바 본처가되게
지방으로[150] 올라와서
석자세치 맹지수군에
목을조아서 죽었다네
그소리들어 진주양반
버선발을 뛰어와서
여보당신이 무정하요
여보당신이 야속하요

143) 발자국 소리.
144) 갓을 쓰고.
145) 못 본 체로.
146) 검은 빨래는 검게 씻고.
147) 아래 방문을.
148) 아래 방문을.
149) 기생첩을.
150) 제 방으로.

본처정은 백년이요
첩우야정은[151] 석달인데
여보당신이 무정하요 (끝이라.) [일동 감탄하며 박수]

[부산진구 민요 250]

시집살이 노래(1) [부모부음요]

김서운(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말로 읊으며]
메같이 짓은밭을[152]
한골매고 두골매고
나의부모죽은 부고왔네
비녀는빼서 품에꽂고
신은벗어 손에들고
한고개를 넘어가니
까막까치가 진동하고
또한고개 넘어가니
곡소리가 진동하고 (그거 뭐 다 있어요.)
(조사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뭐 상여가 나가는 거지.) (그래 어마이 저 뭐 얼굴로 한 번 볼라 카이꺼네, 오빠 되는 이가 그 엄마 얼굴 볼라마 하루라도 빨리 오지 카는 거. 그래 인자 그거 오빠가 어마이를 안 비조서(보여주어서) 동네사람을 봐갖고 널 따까리(뚜껑) 열어보이, 말만 들은 처매잎이 지름마 따른 적삼잎이 갖고 그래갖고 초상을 칠라 하는 거로 딸이 인자 광목을 떠다가 옷을 해가지고 인제 입히가 초상을 치고, 낮으로 인자 올케인테 하는 말이.)

[다시 노래조로 읊으며]
성아성아 올케성아
쌀한되로 밥을지마

151) 첩의 정은.
152) '메'는 산. 즉, 산을 일구어 지은 밭을.

니도묵고 나도묵고
꾸중물이 나오면
니소주지 내소주나 (이래 그거 노래가 있어요.)

[부산진구 민요 251]

시집살이 노래(2)

김서운(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성아성아 올케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다캐도
중우벗은 시동상은[153]
말하기도 어렵더라 (그래 나온 노래가 있어. 거 다 몰라예.)

[부산진구 민요 252]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서운(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자장자장 자장개야
뒷집개도 짖지마라
앞집개도 짖지마라
우리아기 잠자는데

153) 중우는 중의(中衣), 즉 바지의 방언. 중의 벗은 시동생은.

[부산진구 민요 253]

다리세기 노래

백윤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글루핑

[부산진구 민요 254]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백윤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웃니빠진 갈가지[154]
샘갓에[155] 가지마라
피리[156]새끼 놀랜다

[부산진구 민요 255]

이갈이 노래

백윤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이빨은 가져가고

154) 개호주. 즉, 범 새끼를 말함.
155) 샘, 즉 우물 가(근처)에.
156) 피라미의 방언.

새이빨은 다오

[부산진구 민요 256]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백윤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계집죽고 자석[157]죽고
내혼자 어째살꼬 (이란다.) (청중: 뻐꾹새가 그라지.) (뻐꾸기가 내나 비둘기라.) (조사자: 산비둘기라.)

[부산진구 민요 257]

다리세기 노래

서당내[158](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한다리 건다리
너거 삼촌이 어디 가더냐
하산 뒤로 해따러 가더라
몇말 땄냐
닷말 땄다
하나 둘 셋

[부산진구 민요 258]

다리세기 노래

157) 자식.
158) 고향이 전남 해남이라고 함.

오가화[159](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연치맹공 도맹공
가모 갑집
기미통에
떨 꺼 덕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259]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이옥순(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지집죽고 자석죽고[160]
내한몸체[161] 어째살꼬
(청중: 빠꾹 빠꾹.)

[부산진구 민요 260]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거창댁(여, 출생년도 미상)[162]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앞니빠진 개옹[163]아

159) 고향이 밀양이라고 함.
160) 계집 죽고 자식 죽고.
161) 내 한 몸체. 일반적으로 '내호무차(내 혼자)'로 부른다.
162) 제보자가 경남 거창 출신이라고 했지만, 성명과 출생년도를 밝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거창댁'이라 표기했다.
163) '개옹'은 흔히 부르는 '갈가지'나 '소오지'와 같이 호랑이 새끼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뒷도랑에 가지마라
송에새끼[164] 놀랜다

[부산진구 민요 261]

다리세기 노래

거창댁(여, 출생년도 미상)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도망도 도망도
짝바리 히양서
도래줌치
육구육구 전라육구
당산에 먹을갈아
엎어질똥 말똥 (이카면서 요기 딱 되몬 고기 오무리는 기라.)

[부산진구 민요 262]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기정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앞니빠진 개오지야
새밋가 가지마라
주개[165]한테 빰[166]맞는다

164) 송어 새끼.
165) 주걱.
166) 뺨.

[부산진구 민요 263]

강피 훑는 부인 노래

기정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이산저산 다넘어가도
갱피[167]훑는 저할망구 간데쪽쪽[168] 갱피훑네

[부산진구 민요 264]

너냥 나냥

박영순(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호박은 늙어서 맛이맛이 있고요
사람은 늙으면 공동묘지로 간다

[부산진구 민요 265]

청춘가

박영순(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말어라~어~
아까운 요내청춘 어~허 다늙어 가노라

167) 강피.
168) 가는 데 족족.

[부산진구 민요 266]

모심기 노래

변상희(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퐁당퐁당 밀수제비 사위야상에 다올랐네
이내만님은 어디를가고 딸에동자 시킸던고

다풀다풀 다방머리 해다진데 어디를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먹으로 나는가요

낭창해창 저비리끝에~ 무정하신 울아바야
나도죽어 후승가서 낭군한분을 심길라네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그젖을한번 답싹쥐고 영길영천에 귀향가네

[부산진구 민요 267]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변상희(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짖지마라
뒷집개도 짖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잘잔다

[부산진구 민요 268]

아기 어르는 노래

변상희(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느냐
은을주면 니를사나
금을주면 니를사나 (예, 그래.)

[부산진구 민요 269]

모심기 노래

변상희(여, 1943년생), 전명수(여, 1936년생)[169]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전명수가 창부타령조로 부름]
서마지기 논빼미는 반달겉이 떠나가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청중: 시집갈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여지

[변상희]
(그거는 그건 소리하모 안 되고, 성님아.)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도 심어간다
(그라몬 또 다음 줄에 답을 하면서.)
니가야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그래하는 거다 그기.)
[바로 이어서 전명수 가창]
초생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이지

169) 경남 의령이 고향이라고 함.

[변상희]
물꼬는허리청청 헐여놓고 주인네서방님은 어디로갔소
산넘어서 첩을두고~ 첩의방에 놀러갔소

[전명수]
물꼬는청청 헐어놓고 주인한량 어디갔소
등덤에 첩을두고 첩의방에 놀러갔소

첩의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인데 연못에금붕어 사시사철

[부산진구 민요 270]

다리세기 노래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건 도맹건[170]
짝바리 희양건[171]
도래줌치[172] 장두칼[173]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섣달 대서리
머구밭에 덕서리
수마이 종지가
꼬 빡

170) 동사 망건 도 망건.
171) 휘양건.
172) 도래주머니.
173) 장도칼.

[부산진구 민요 271]

창부타령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엊그지[174] 소년인데 백발되기가 잠깐이다
머리샌데 먹칠하고 이빠진데 박씨박고
사리[175]진데 분바르고 소년단으로 놀러가세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니라

새끼야 백발은 쓸곳이 있지만
인간의 백발은 쓸곳이 없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272]

너냥 나냥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신작로 널러서 질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낮이나 낮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174) 나도 엊그제.
175) 사래. 즉 이랑. 또는 골.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그리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밤이나 밤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273]

밀양아리랑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린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랑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부산진구 민요 274]

사발가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아니난다

[부산진구 민요 275]

창부타령(1)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부산진구 민요 276]

창부타령(2) [임 생각 노래]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임은가고 봄은오고 꽃만피어도 임의생각
앉아생각 누워생각 생각생각이 임의생각
바람불어 씨러진낭기 눈비온다고 일어나나

[부산진구 민요 277]

노랫가락(1) [나비 노래]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176] 꽃밭속에서 자고가세
꽃에서 푸대접하면 잎속에서라도 자고가세

176) 저물거든.

[부산진구 민요 278]

노랫가락(2) [그네 노래]

전명란(여, 1939년생), 전명수(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전명수가 먼저 불렀으나 "님이뛰면"부터 전명란과 함께 부름]
수천당 세모진낭게 (뭐라 카노? 그네를 매어, 그것도 안 부르이까 잊아삤다.)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279]

이갈이 노래

김길자(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이 주께
새이 다오

[부산진구 민요 280]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윤두이(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웃니빠진 개오지[177]
아랫니빠진 개오지

177) 범의 새끼.

도랑건너 가지마라
송어새끼 놀랜다

[부산진구 민요 281]

아기 어르는 노래

정형순(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우리애기 자는데
뒷집개도 짖지마라
앞집개도 짖지마라
우리애기 잠을잔다 (쿠고 그라대.)

(그래 일러쌌고. 뭐 어리는 기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금자동아 옥자동아
손에들면 날아갈까봐
쥐면은 꺼지까봐 (마 그래 싸고 얼러쌌대예.)

[부산진구 민요 282]

다리세기 노래

정형순(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178]
도리김치 장듯간[179]

[부산진구 민요 283]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하영조(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아랫니빠진 소오지
웃니빠진 개오지
우물가 가지마라

[부산진구 민요 284]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풀국새 노래]

하영조(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기집죽고 자석죽고[180]
내혼차 우째살고

[부산진구 민요 285]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권태순(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178) 동사 망건 도 망건.
179) "도리줌치 장도칼"이 와전되어 불리는 형태이다.
180) 계집 죽고 자식 죽고.

[전포2동 부흥경로당]

불매[181]불매 불매야
이불매는 누불매고
정상도[182] 대불매
새는새는 어디새
전라도 초롱새 (이라대.)

[부산진구 민요 286]

다리세기 노래

김귀자(여, 1941년생)[183]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신재만재 주만재
짝발로 이양금
도래주만치 사래주
육대육대 전라도
한입이 제비 똘똘
모라 장두칼

[부산진구 민요 287]

모찌기 노래(1)

박부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181) 풀무의 방언.
182) 경상도.
183) 제보자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라고 했다.

쫄우자 쫄우자 이못자리를 쫄우자
쫄우자 쫄우자 영감할마이로 쫄우자
쫄우자 쫄우자 담배삼지로 쫄우자

[부산진구 민요 288]

모심기 노래(1)

박부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쓸앗[184]을씌고서 어디로가노
첩의야집으로 가거들랑 나의무덤을 보고가라

[부산진구 민요 289]

모찌기 노래(2)

박부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한강에다 물을부어 모쪄내기 난감하네
저하늘에 목화를심어 목화딸일이 난감하네

[부산진구 민요 290]

모심기 노래(2)

박부임(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184) 삿갓.

물끼[185]야처정청 헐어놓고~ 쥔네야영감은 (어! 서방님은.)
[말을 바꾸어] 서방님으는 어디로갔노
(그래 첩의 집에 갔는 기라. 모 숭구는데.) (조사자: 그러고 받는소리는?) (예. 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기 또 있던데.) (조사자: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첩의 방에 놀러갔네." 그래 안 하든가?) (첩의야 집에.) (조사자: "등 넘에다 첩을 두고 첩의 집에 놀러갔네.") (예. 그래 "이왕 가거들랑 내 죽는 꼴로 보고 가라." 이카고 그래 뭐가 있더라.)

[부산진구 민요 291]

다리세기 노래

박부임(여, 198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금 동구리
짝짝 도루미
얼루고 쫄르고 돌아라
도래미 장채 가거라
어서 어서 가자
놀고 뛰고 놀자
어서 빨리 가자
(우리는 그래가 여어 저 고무줄도 없이 새끼, 새끼로 거 놓고, 왜놈 때 커나노이, 손을 비비가 새끼 그것도 꾸아가 놔놓고, 와라지, 신이 있나요? 삼을 신고 그래 했다 아이요.)

[부산진구 민요 292]

모심기 노래

185) 물꼬.

안수자(여, 1944년생)[186]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요 (쿠모 그 받는 게.)
우리엄마 무덤가에 젖먹으로 나는가요 (그라모, 어 눈물이 날라 칸다.)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마큼 남았구나
그게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제 (둘이 받는 기라. 한 사람이 몬 하고.)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다 연기가나네
우러님은[187] 어디로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부산진구 민요 293]

다리세기 노래

안수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거맹근 도맹근[188]
짝바리 히양감[189]
도로매 줌치[190] 장돗간
동지섣달 대서리 (우리 진주는 그래 했어.)

[다시 한 번 더 부름]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지맹금 두만금

186) 제보자는 고향이 진주라고 함.
187) 우리 님은.
188) 동사 망건 도 망건.
189) 보통 '희양건'으로 부른다.
190) 도래주머니.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섣달 대서리 (아!, 저 장돗간에 뭐 다 잊이삤다.)

[부산진구 민요 294]

비 노래

안수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우리언니 시집가는데
가매꼭대기 물들어가몬
고운치마 얼룩진다

[부산진구 민요 295]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안수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앞니빠진 개오지야
새미둑에 가지마라
빈대한테 빰맞는다

[부산진구 민요 296]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안수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제집자석[191] 다죽고
제집죽고 자석죽고
서답빨래 누가할꼬
북국북국 북국북국 (거기라 내나.) (청중: 니 호무차 어찌 살고.) (조사자: 그렇지.) (우리 어릴 때 다 준어 들었다.) (조사자: 딴 데 가면은 "지집 죽고 자식 죽고 나 호무차 어째 살꼬.") ("서답 빨래 누가 할꼬." 우리는 또 그러 쿠대. 진주는.)

[부산진구 민요 297]

너냥 나냥

김상순(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청중이 함께 노래하며]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네

[부산진구 민요 298]

아리랑

김상순(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정든님이 넘어간다

191) 계집 자식.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떠나는 소리에
정든님은 간곳이없고 기차철로만 울고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고개고개로 나를넘겨주소 [청중 박수]

[부산진구 민요 299]

노랫가락

김상순(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기차떠난 철도우에는 검은연기만 남아있고
임이떠난 이내몸에는 백년고통이 남았구나
첫날은 하늘같은 낭군님이 백상같은 병을실어
치마를팔아 반지를팔아~ 심심산약을지어
낙동강을 걸어서놓고
여실요내 잠이들어 임가신줄을 몰랐구나
임이떠난 빈방안에는 담배와꽁초만 남아있고
불산 연락산끝물결에는 파도와물결만 남아있다 [청중 박수] (청중: 잘한다. 오늘마이 했다.)

[부산진구 민요 300]

모심기 노래

김종희(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휘청휘청 저벼락[192]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청중: 좋다!)
난도죽어서 후세상가서~이 낭군한분 만나볼란다 [웃음] (청중: 이히히~. 이후후~.)

192) 저 벼랑.

[부산진구 민요 301]

옹헤야

김종희(여, 1932년생), 김상순(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어데 가서 인자 놀다가 모두가 시간 나면.)

옹헤야
[청중들 박수로 장단 맞추며]
옹헤야
헤야헤야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논다 옹헤야
우물땅에 옹헤야
참개구리 옹헤야
시집살다 평생을났다 옹헤야
헤야헤야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논다 옹헤야
보리밭에 옹헤야
메두끼놈이 옹헤야
아들을놓고 옹헤야
미역국낋이놓고 옹헤야
헤야헤야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논다 옹헤야
열두남매 ○○[193]남매 옹헤야
참개구리 옹헤야
장개간다 옹헤야
벼슬길났다 옹헤야
헤야헤야 옹헤야

193)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음.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논다 옹헤야
(놀다가 시간나면 이라면 마.)

[부산진구 민요 302]

태평가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청중: 좋고!)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청중: 좋다!)
인생일장 춘몽인데 아니야놀고서 무엇하리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나비 요리조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야 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돌아온다
공수래 공수거를하니 아니야놀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나비 요리조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좋다! [일동 박수] (청중: 너무 잘한다.)

[부산진구 민요 303]

사발가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풀썩 나고요
여내야 가슴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에헤야 어~야 어햐라난다 디어라~
눈물 가다가 안난다.[194]

[부산진구 민요 304]

모심기 노래(1)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봐라 (청중: 얼씨구!)
많이보면 병이나고 쌀낱기만큼만 보고가자 (청중: 좋다!)

해다졌네 해다졌네 진주야덕산 해다졌네 (청중: 좋다!)
우리야부모님은 어데로가고 연기야낼줄 모르던가

[부산진구 민요 305]

모심기 노래(2)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서마지기 요논빰에[195] 모를심어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금실금실 영화로다

194) 가사를 얼버무려 정확히 알 수가 없음.
195) 이 논에.

[부산진구 민요 306]

모심기 노래(3)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한상할래 (청중: 좋다!)
이달크고 후달커서 내훗달에 한상할래 (청중: 좋다!)

세월이라 연당못에 이못비단이 꽃을피어
시누올캐 꽃다다가 연못에다가 빠졌구나

낭창낭창 배력끝에[196] 무정하다 정월하다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처자군석을[197] 챙겨볼래

[부산진구 민요 307]

진주난봉가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오마님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볼라거든 진주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어데다 어데다 빨래를하니
난데없는 발자국소리가 철썩철썩 들리오니
옆눈으로 젙을보니 하늘같은 갓을씨고[198]
거랑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도 지내간다

196) 벼랑 끝에.
197) 처자권속을.
198) 갓을 쓰고.

집이라도 돌아오니 진주낭군님 거동보소
열두가지 술을놓고 기생첩은 옆에두고
못본듯이도 앉아노네
아랫방으로 내려와서 아홉가지 술을먹고
석자야수건 목에걸고 자는듯이도 죽었구나
진주낭군 그말을듣고 버선발을 뛰어나와
어예어예 니보이나 너그래갈줄을 내몰랐다
본댁정은 백년이고 첩으야정은 삼년인데
너그리갈줄은 나는몰랐다 (안 카나.) [일동 박수]

[부산진구 민요 308]

두껍이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두껍두껍 옴두껍아 함안땅에 담두껍아
무슨정에 너는잤니 그렇게도 너는오나
석산에다 남개를심어[199] 심이들어서[200] 잠이온다

(이기 함안 땅에 움두꺼비가 옛날에는 하도 빡빡하이 첫날밤에 가이까네. 그 뜻이, 첫날밤에 신랑이 보니 빡빡 얽어가 있는데, 너무 저 뚜껍이를 보이, 참 여자를 보이까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놓고 신랑잩에 잠이 들어 자이까네, “두껍 두껍 움두껍아 니는 무신[201] 정에 잠이 오노? ” 하이, “내가 이 석산에 남개 숨아[202] 힘이 들어 잠이 온다.” 이 카거든. 그래 참 옛날에 그래 했는데.)

199) 나무를 심어.
200) 힘이 들어서.
201) 무슨.
202) 나무를 심어.

[부산진구 민요 309]

쌍가락지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을 닦아내야
먼데보니 달일래라 졑에보니 처녈래야
그처녀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홍달박시 오라바님 거짓말씀을 말았으소
남풍이 디리부니[203] 풍지떠는 소릴래라 [웃음]

[부산진구 민요 310]

노랫가락(1)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이내몸이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대[204]에밑에다 묻어주소
우리친구~ 날찾거들랑~ 그꽃한쌍 끊어다가
주보[205]에다가 걸어놓고~ 그꽃한쌍을 선사하소
(옛날에 그래 노래 불러쌌다. 우리 클 때에.)

[부산진구 민요 311]

노랫가락(2)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3) 남풍이 들이부니.
204) 연꽃 대.
205) 문설주를 말함.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밀양이라 궁리못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일랑 제끼야들고 내품안에 잠들으소
언제나를 보았다고 그대의품에서 잠잘소냐 [웃음]
(옛날에 밀양에 궁리못에다가 그래 우리가 전에 불러쌌다.)

[부산진구 민요 312]

노랫가락(3)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유자야감자야 어느니좋아 한웅클에서 둘썩맸네
처녀야총각이 어느니좋아 한비개[206]에서 둘이빈다
(그개 거, 옛날에 그래 노래 불러쌌다.)

[부산진구 민요 313]

노랫가락(4)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임이죽어 연자[207]가되아 천막끝에다 집을짓고
날님보고 달님봐도 임인줄은 내몰랐네
(그래, 옛날에 임이 죽어서 연자가, 제비가 되어 천막 끝에 집을 지어도 난 임을 보더라도 임인 줄은 몰랐다 안 카나.)

206) 한 베개.
207) 제비.

[부산진구 민요 314]

시집살이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접살이[208] 어떻더노
시접살이를 하고보니
둥글둥글 수박께우에[209]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제놓기도[210]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동생에 말하기도 어렵더라

[부산진구 민요 315]

댕기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한번적어 접은댕기 두번을적어 접은댕기
우리부친 나당댕기 우리오빠 ○○[211]댕기
담장안에 널을뛰다가 담장밖으로 걸렸구나
꾼아꾼아 서당꾼아 주완댕기를 나를주소
너의부친 나의부친 도포자락을 맞닿이고
사돈될적에 너주꾸마
(이기 인자 이 총각이 그 카는 기라. 주왔는데, 서당꾼이 주와갔는데 댕기로. 그래 서당꾼한테 돌라 카이까, "너의 부친 나의 부친 도포자락 맞대이고 사돈될 때 너 주꾸마." 이래 하거든. 뜻이 있어.) (조사자: 노래 가사에 오빠 댕기가 무슨 댕긴데예?) (그래 댕기풀이 노래라. 그래가지고 내 말을 들어봐. 이기 의미가 깊다.

208) 시집살이
209) 수박 식기에.
210) 수저 놓기도.
211) 가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음.

도포자락 맞대이고 사돈될 때 너 주꾸마 했는데, 우쨌노 하면은)

너의부친 나의부친 도포자락을 맞닿이고
사돈될쩍에 너주꾸마
열두폭 치알밑에 암탁장달을[212] 마주놓고
동백나무를 마주꼽아 청실홍실도 걸어놓고
한삼에족두리는 너가씨고 사모야관대는 내가쓰고
하늘을보고 맹세를하고 땅을보고 다짐하니
북방재배를 (북방재배를 세 번 한다 아이가.)
북방재배를 하올적에 백년가약을 언약을하고
백주동방 첫날밤에 부끄럼도 가이없고
임의평풍 내평풍을 좌우편으로 둘러치고
샛별같은 남녀강은 같이옛다가 펼쳐놓고
비단이불을 짝지어놓고 석자서치 지은비게[213]
둘이누워서 손잡았네 조선의낙지가[214] 여기로다
(맞다 아이가? 샛별같은 남녀강은 같이 옛다가[215] 펼치놓고 비단이불을 짝찌어놓고 석자서치 지은 비게[216] 둘이가 누웠으니까. 그기 인자 댕기를 가지고 인연을 맺었는 기라. 댕기를 주아가, 서당꾼이 주아나이께네, 돌라카이 "너의 부친 나의 부친 도포자락 맞대이고 사돈 될 때 니 주꾸마." 그래가 그 인자 인연을 맺아가 그래 잘 됐다. 이기 댕기풀이 노래라.)

[부산진구 민요 316]

다리세기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212) 암탉과 장닭.
213) 지은 베게.
214) 조선의 낙지(樂地).
215) 여기에다가.
216) 베게.

동서맹근 도맹근
도리줌치 장두칼
니하나 내하나
묵고
(그랬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317]

노랫가락(5)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주베짜는 저큰아가
애간장을 녹일라꼬 눈매야저참 저리곱나
낙숫대를 낚아낼까 손을쳐서러 불러낼까
우예낚아[217] 손을치면 남이알고 낙숫대를 낚아낼까

[부산진구 민요 318]

주초 캐는 처녀 노래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황해도라 구월산밑에 주추[218]야캐는 저큰아가
너의집은 어데다두고 주추에전부 주추캐나
나의집을 오실라거든 저산을넘어 저등을넘어
상신산 안개속에 초가야삼칸이 내집이요 (그래 한다.)

217) 어떻게 낚을까.
218) 주초.

[부산진구 민요 319]

다리세기 노래

하덕순(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도맹근
짝빨래 해양근
육두 육두 전라도

[부산진구 민요 320]

밀양아리랑

하덕순(여, 1935년생), 신점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하덕순]
정든님이 오신다고 인사를못해~
행자치마[219]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또 생각이 안 나네.)

[심점순]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영남로 맹성을[220]찾으러가니~
아랑의 어화가 걸려있네

219) 행주치마.
220) 명승지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남천강 구비돌아 영남루를 감돌고
백공에[221] 걸린달은 아랑각을비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부산진구 민요 321]

시집살이 노래

김옥순(여, 1937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성아성아 사촌성아 (뭐)시집살이 어떻더노 (카이.)
도리도리 도리판에 시집살이 어렵더라 (조사자: 수저 놓기도 어렵더라.)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부산진구 민요 322]

너냥 나냥

김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야밤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221) 뜻을 알 수 없음.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조사자: [노래로]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호박은 늙으면 맛이있고요
사람은 늙으면 좋은곳으로 간단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323]

노랫가락[춘향 노래]

김월출(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고
(뭐, 또 어디갔노?) (청중: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몸은 이도령오도록 기다리고
(커는 거는 안 나오네. 갑자기 하라하이 딱 막히뿌고.)

[부산진구 민요 324]

모심기 노래(1)

김월출(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커고.)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맨다 (커고.)

[부산진구 민요 325]

모심기 노래(2)

김월출(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물끼야와장창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갔구나 (그거 모린다.)

[부산진구 민요 326]

모심기 노래(3)

김월출(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퐁당퐁당 찰수지비[222]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커고. 그 다음에는 뭐더노?)
(조사자: 에미년은 어디 가고.) (아!)
딸년은 어디가고 사우야판에 다올랐노 (카더라. 참 맞다.)

[부산진구 민요 327]

모심기 노래(4)

김월출(여, 1922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222) 찰수제비.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소년이 울고가노
골목골목이 연기맺는데
(아!)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리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가 (모르겠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이 지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은 행상이 떠나간다 (카는 거.)

[부산진구 민요 328]

모찌는 노래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모판을 드러내자
서마지기 논빼미 (그거 내가 다 잊어삤네. 무엇을 들어내어 그래 쌌는데 아! 모르겠다.)

[부산진구 민요 329]

고사리타령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고사리고사리 내리가면 늦고사리
올금달금 끊어다가
앞냇물에 씻거다가 뒷냇물에 헹궈다가
제비같은 저동끝에 말똥겉은 저질러이
알작자작볶아 열두상놓고나이 한대가리씩 남는거로
앞집담치 줄라카이 뒤집담치 누이할꼬

뒤집담치 줄라카이 누이할꼬
(내사 마 지 입에 뭂다 하대. 내 지 입에 털어옇고. 많다 마. 천지라도 뭐 헷갈리 가지고 몬 해.)

[부산진구 민요 330]

모심기 노래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마, 모 노래싸 많다 뭐.)
물아물아 산도물아 뭣이바빠 달려가노
낙동강고기 병안이났어 병낫우러[223]내가간다 (뭐 오만 거 다 있어도.)

[부산진구 민요 331]

남녀연정요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크다커는 큰나무도 쪼금만한 딱따구리
요리앉고 조리앉는데 [웃음] (그거로 하도 못 한다. 그런 거는.)
니가날로 뱃길라꼬 (하고.)
쪼금만한 신랑아 니가날로 뱃기라고가이
크다크는 갈땅말땅 뒷동산을 뱃기는데[224]
내가니를 몬뱃길까 (하고.) [조사자 웃음] (노래 많다. 많아요. 그것도 몇 마디 된다.)

223) 병을 낫게 하러.
224) 벗기는데.

[부산진구 민요 332]

구멍타령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뒷동산 딱따구리는 참나무궁지도[225] 뚫는데
우리집 저문디는 뚫어논구녕도[226] 모른다 (이래 안하더나? 그래 쿠대.)

[부산진구 민요 333]

양산도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낭군 나를안고 돈다 [이라지 뭐.]

[부산진구 민요 334]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227] 둘이타자꼬 군대를매어[228]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민다

225) 참나무 구멍도.
226) 뚫어진 구멍도.
227) 추천당 세모진 나무,
228) 그네를 매어.

(그래가 떨어짔는 갑대. 우쩌다가.) (청중: 줄 떨어지면 마 정 떨어진다 안 카나.)
[말로 하며]
임아임아 줄잡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고, 마 그래.)

[부산진구 민요 335]

화투타령

박달막(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솔헌마음
이월매저리[229]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고, 그래 안 하요?)
구월국화 굳은마음은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고, 고래뿐이지. 뭐 그기라.)

[부산진구 민요 336]

화투타령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229) 이월 매조.

이월매조리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청중: 사월.) (잊어삤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솟았다 [웃음]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다 [웃음]
(몰라. 오동은 동짓달이거든. 그리고 또 비는 섣달이고.) (조사자: 그래가 오동은 예? 오동추야 달이 밝아.) (노래는 모르지 뭐.)

[부산진구 민요 337]

모심기 노래(1)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230] 시누올캐 꽃꺾다가
남강물에 떨어졌네 (우리 그 보고 별로 씨부렸지 그때.)
공부하시는 울오라비 오시더니
우리올키 껀지내고 이내나는 밀어였네
나도죽어 후승가면 낭군부터 샘길라네[231] [웃음] (그런 소리 옛날에 별로 들었지.)

[부산진구 민요 338]

모심기 노래(2)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230) 벼랑 끝에.
231) 섬길라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카는 그거는.)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환승한다 (카고 뭐.)

(뭐!) 바다장어같은 이못자리 (뭐!) 장어판만침 남았네
장어판은 좋구마는 장구틀이 없다 (카고, 많다. 천지빼까리다.)

[부산진구 민요 339]

다리세기 노래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하내나 두내나
매구 때구
진대 모대
서방 가꾸
두루미 짝
끈 문 책 (이 카는데.) [일동 웃음]

[부산진구 민요 340]

장가 노래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밑에내가 여기왔소~ 바람에 날려서왔나~
구름속에서 쉬어왔~나
[말로 하며]
(아이고! 모르겠네.) 아마도 나여게온것은 꽃을보고 나여게 [웃음]
(조사자: 이기 무슨 노랜데예?) (내나 그거. 장개 와서.) (조사자: 그래갖고예?)
꽃은좋구만은 배게가려 몬보겄네.

[부산진구 민요 341]

모심기 노래(1)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물끼야와장창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쿠고.)
부채야 손에들고 첩의집에 갔다 (쿠고. 그것도 있고 하는데, 천진데 뭐. 갑자기 하라카이 안 된다.)

[부산진구 민요 342]

모찌기 노래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하늘에다가 목화를숨가[232] 목화따기 어렵더라
한강수 모를부여 모쪄내기 어렵더라 (카고, 모 노래 참 많다. 많은데.)
(청중: 어째 목화를 따겠노? 어렵지 그거는.)

[부산진구 민요 343]

모심기 노래(2)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바다같은 이논에 모를심어 영화로다

232) 목화를 심어.

우리엄마 산소등에 솔을숨가[233] 영화로다 (뭐, 그래.) [웃음]

[부산진구 민요 344]

모심기 노래(3)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먹으러 내가간다

(그라고.)
홍달같은 오라바씨 거짓말씀 말아씨소
동지섣달 서남풍에 풍지떠는 소리로세

[부산진구 민요 345]

모심기 노래(4)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서울이라 황골못에 금붕어노는 구경가자

[부산진구 민요 346]

모심기 노래(5)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33) 솔을 심어.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저게가는 저구름은 비들었나 눈들었나
비도눈도 아니들고 소리명창 내들었다 (칸다.)

[부산진구 민요 347]

모심기 노래(6)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알금살금 곱운독에 너를길러 정남주요
(아!) 배들어온다 배들어온다 압록강에 배들어온다
압록강에 배들어오만 술도팔고 임도보지 (카고 뭐.)

[부산진구 민요 348]

모심기 노래(7)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등넘에다 첩을두고 잘사람이 잘바위네
한절나락을 모를부여 잠나락이 절반이다 (카고 뭐, 오만 거 다 그런 기 있어도.)

[부산진구 민요 349]

못 갈 장가 노래

박월출(여, 1923년생),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박월출]
궁합에도 못갈장가 책력에도 못갈장가
한모래기 넘어가니 (뭐.) 까막까치 째작째작
두모래기 지나가니 여수새끼[234] 길을넘어 (또 모르것다.)

[박분점]
지붕밑에 울던야시 우째저래 좋을꼬
한모래기 돌아가니 까막까치 진동하고 (청중: 두 모래기 돌아가니.)
울음소리 진동했네 (그래 곡소리, 마누래 그 했는데 가이 여자가 죽었어.)
한대문을 툭차고 드가니 울음소리 진동했네
두대문을 툭차고 드가니 (그거 뭣이고.) 대목이 널을짜네
(또.) 방문을 열어보니 멧방겉이 땋은머리 [웃음]
자는듯이 누웠구나 [웃음] 자는듯이 누웠구나
가요가요 나는가요 오던질로[235] 돌아가요 [웃음] (처가집에 하루만에.) [웃음]
어제왔던 새사우야 발치잠이나 자고가세
적어도 대장분데 발치잠이 당할소냐
어제왔던 새사우야 묵던밥은 묵고가세
적어도 대장분데 먹던밥이 당할쏘냐
이제가면 운제올래[236]
뒷동산 고목나무 잎이보면 내가고마
동솥에다 앉힌밥이 싹나거든 내오꾸마
동솥에다 앉힌닭이 홰치거든 내오꾸마 (그것도 여러 많은데. 그것도 다른가? 안 다른가?)
동솥에다 앉힌밥이 싹나거든 내오꾸마
(카는. 죽은 거를.)

234) 여우 새끼.
235) 오던 길로.
236) 언제 올래.

[부산진구 민요 350]

댕기 노래

박월출(여, 1923년생), 박분점(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박월출]
총각낭군 떨어지는 홍갑사댕기
(그래)열둘이모았다 하얀처마 입었다벗었다 다떨어지고 (뭐 그런 소리대.)
댕기는 (마) 밤에댕기미 다떨어졌다 (하대.)

[박분점]
총각낭군 떠다주는 홍갑사댕기
○○○○○○○○[237] 담밖으로 흘맀구나
주었다네 주었다네 수틀연이 주었다네
수틀연이 [말을 바꾸어] 연아연아 수틀연아 그댕기를 나를도라[238]
누어매랑 울어매랑[239] 사돈될때 내줄꾸마
연아연아 수틀연아 그댕기를 나를도라
당신하고 내하고 (뭐.) 장뚜바리 마주놓고
밥묵을때 니줄꾸마 (그것도 여러 질인데, 여러 질이 뭔데 다 모른다.)

[부산진구 민요 351]

징검이타령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내돈 석냥 내놔라 (하이께네)
내머리 떼가라 내주꾸마(또 하니.)

237)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들을 수 없음. 보통 "댕기자랑 하다가"로 부름.
238) 나에게 달라.
239) 너의 엄마와 우리 엄마가.

아따 이놈우 징검아
내돈 석냥을 갚아라 (카이, 뭐 팔아 준다 카고. 그것도 여러 가지다. 뭐 뭐 해가 준다 하고. 모르겠다.)
(조사자: [팔을 가리키며] 요거는 까꾸리전에 팔고. 다리는.)
다리는 괴기전에[240] 팔고
(조사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예?) [웃음] (조사자: 그런 것도 있던데. 내장도 팔고 그라던데.)
손으는 까꾸리전에 팔고
(뭐!) 팔아가 주꾸마
(카이, 내 돈 석냥 내놔라 카이 전신에 그걸 띠가 줄라 카더란다. 팔아가.)

[부산진구 민요 352]

비 노래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갈때
가마꼭지 비맞는다

[부산진구 민요 353]

다리세기 노래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맹근 도맹근

240) 고기 파는 가게를 말함.

추무리빡구 돌빡구
이니타이 열두양
가 사 머 리
양두 칼
(카는 거.)

[부산진구 민요 354]

알강달강요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알강달강 (카매.)
밤을한개 주워다가
껍데기는 아바이주고
보늬는 애미주고
알키는 니캉내캉 갈라먹자 (카며.)
알강달강
(알라[241] 알강달강 안 해쌌나? 그 전에.)

[부산진구 민요 355]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이불매가 누불매고
(뭐 어데?) (조사자: 경상도 대불매.) 대불매
첨에는 어데시고

241) 아기.

(전라도는 무슨 절이라 카더노? 다 잊아뿌고 모른다.)

[부산진구 민요 356]

보지타령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말로 하며]
칙량빗으로 베았나 쪽바르기도 나갔네
상주곶감을 먹었나 감씨는 와나왔노 [웃음]
만주지방 갔던가 털모자는 왜썼노 [웃음]
감기도 퍼뜩걸맀나 콧물은 와흘리노 [웃음]

[부산진구 민요 357]

남녀연정요

박월출(여, 1923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일천간장 다녹히고 달무리 고운밤 (어! 할라 하이 잊아뿌노?)
고요한밤에 당신만 생각해요 (우야꼬! 아는 거 할라 하이 안 되노?)
수평선이 흘러가는 무정한 저물결은
언제나 임이라꼬 만나서 살겠소
앞뒤산에 꽃이피어 만발이 되었건만
당신만 생각해요
봄이오면 (알았는데 이리 안 되네.) 고향산천 꽃이피고 (우야꼬! 알았는데 안 된다. 잊어뿠다. 안 되네.)

[부산진구 민요 358]

사발가

정덕자(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는데
이내몸이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난다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네 [웃음]

Ⅱ. 연제구 민요

[연제구 민요 1]

모심기 노래

박선자(여, 출생연도 미상[242])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모를심자~ 모를심자~
(무슨 논가에 모를 심자 이래 샀대, 옛날 우리 엄마가 하는 걸 들었는데 잊어삤다.)

[연제구 민요 2]

노랫가락 [봄배추 노래]

박선자(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아이구! 모르겠네, 인자 다 까뭈네.)
(조사자: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인자 잊어뿌리가 모르겠다.)

[연제구 민요 3]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선자(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42) 제보자가 극구 출생연도를 밝히지 않았음.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추천당) 세모진낭개[243] 오색실에 (조사자: 군대를 매어.) 그네를매어
니가타면 내가밀고 내가밀면 니가타고

[연제구 민요 4]

다리세기 노래

박선자(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조맹근
조래김치 장독간
헌댕기 담밧대
상초 마초 고양초

[연제구 민요 5]

화투 타령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한내맘은
이월단풍에[244]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이내간장을 다녹인다

243) 세모진 나무.
244) 이월 매조를 이월 단풍이라 함.

사월흑싸리 흩여놓고
오월단오에 떨어지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을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으난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동짓달에 오신단님은
섣달이되어도 아니온다 [청중 웃음]

[연제구 민요 6]

권주가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받으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조사자: 이 술은 술이 아니오)
첫째잔은 (무슨 술이고?) (조사자: 이 술은 술이 아니고.) (아!) 묵고놀자는 동백주요

[연제구 민요 7]

너냥 나냥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245] 운다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245) 임이 그리워.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열흘만 불어라

[연제구 민요 8]

성주풀이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낙양산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무덤은
[가사를 얼버무리며 콧노래를 하다가] 몇명이냐 절세가인이 그누구냐
우리네인생 한번가면 다시올줄을 모른다 [청중 박수]

[연제구 민요 9]

사발가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웃음]

[연제구 민요 10]

청춘가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이팔의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조사자: 좋다!) 닦아를 봅시다~

무정 세월아~ 오고가지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조사자: 좋다!) 다늙어 가누나~

[청중이 이어어 부르며]
천길 백발은~ 씰곳이 있어도~
낭군님 없이는~ 못살이로다 (청중: 신랑 없이는 몬 산단다.)

[연제구 민요 11]

창부타령

배양순(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이~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백구야훨훨 날지를 마라 너잡으러 내안간다
청순이[246] 가로선데 너를쫓아 내왔노라

[연제구 민요 12]

노랫가락

이옥주(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오 달도차이면은 기우나니 (그러 칸다.)

246) 뜻을 알 수 없음.

[연제구 민요 13]

춘향 노래

이옥주(여, 출생연도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모질도다 모질도다 신간사또가 모질도다
열녀춘향 잡아놓고 우랄겁탈 하자한다
송죽같이 굳은절기 매맞는다서 허락할까

[연제구 민요 14]

진도아리랑

정갑순(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고갠가 구비야 구비구비를 눈물이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청중이 이어 본조 아리랑을 부르며]
나를 버리고 가시는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나네

[연제구 민요 15]

파랑새요

정갑순(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247]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고거는 안다.)

[연제구 민요 16]

너냥 나냥

김금이(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구요
밤에 우는새는 명태잡아 온다

[연제구 민요 17]

밀양아리랑

김금이(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 1동 한새 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아리랑 고 고개를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몰라.) (조사자: 입만 빵긋.) 입만빵긋

247) 녹두나무

[연제구 민요 18]

너냥 나냥

김금이(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몰라.)

[연제구 민요 19]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말로 하며]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령[248]오기만 기다리고

[연제구 민요 20]

모심기 노래(1)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이 떠나오노

248) 이도령.

이태백이 본처죽은 이별행상이 떠나온다

[연제구 민요 21]

모심기 노래(2)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그 받을 때는 뭣고? 쿠면!)
우리의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그렇게 받는다.)

[연제구 민요 22]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둥게 둥게 둥게야
나라에는 충성동
부모에는 효자동
은을주고 너를살까
돈을주고 너를살까

[연제구 민요 23]

파랑새요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 1동 한새 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그래.)

[연제구 민요 24]

사발가

김덕선(여, 1930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구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가짐도 안난다

[연제구 민요 25]

모심기 노래

김말덕(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모르겠다.)

[연제구 민요 26]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말덕(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앞집개도 짖지말고

뒷집개도 짖지말고
멍멍개도 짖지말고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연제구 민요 27]

다리세기 노래

김말덕(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앙캐 당캐 버무개야
삼순이 갔다 왔나
어데 갔다 왔노
(이래 이런 식으로 해가 "갔다 왔다." 카면 다리를 든다.)

[연제구 민요 28]

모심기 노래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포랑포랑 봄배추는 찬이슬오길만 기다리네 (내 노래 끝을 다 모른다.)
[제보자가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청중이 이어 부르며]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롱오기만 기다린다 (이기다. 보이.)

[연제구 민요 29]

노랫가락[나비 노래]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또 뭐이더노? 가다가 밤이슬오면은.)

[연제구 민요 30]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수천당 세모진낭개[249] 떨어진나무에 군대를[250]매여 (청중: 좋다!)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연제구 민요 31]

청춘가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산이 깊어야~ 꼴짝도 깊제
조그만한 나여자속이~ 얼마나 깊을꼬

[연제구 민요 32]

권주가

249) 세모진 나무.
250) 그네를.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조사자: 받으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우리 형부가 우리 어머이한테 하는 거를 들었거든.)
(조사자: [노래하며] 이술은 술아니라.) 먹고놀자는 술이로다 [웃음]

[연제구 민요 33]

다리세기 노래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짝발이 해양근
도래줌치 장독간
냉 냉
끝에 깐치집

[연제구 민요 34]

파랑새요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밭에 앉으면 녹두꽃이 떨어진다
청포장사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35]

진주난봉가

김도자(여, 1941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아마시 하는말씀 애야아가 메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자 진주남강 빨래가니
물도좋고 돌도좋고 [웃음] (고 다음에는.)

[연제구 민요 36]

모심기 노래

김옥자(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연제구 민요 37]

도라지타령

김옥자(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디야 난다 기화자 좋다
내가내간장 아리슬슬 다 녹인다

[연제구 민요 38]

양산도(1)

신말필(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함양산청 물렛방아는 물을안고 돌고요
우리집 저문딩이는 나를안고 돈다 (그때 우리 그랬다.)

[연제구 민요 39]

양산도(2)

신말필(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장구열차 건디리면 내신명나고~
시아마씨 건드리면 잔소리난다~
에헤라 두여라 어기여차 [웃음] 난다

[연제구 민요 40]

파랑새요

신말필(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녹두낭개[251] 앉지마라 녹두새가 울고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41]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신말필(여, 1942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자장자장 잘도잔다
앞집개도 짖지말고
뒷집개도 짖지말고
우리아기 잘도잔다 (그거마 해.) [웃음]

[연제구 민요 42]

모심기 노래

신정숙(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연제구 민요 43]

백발가

신정숙(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251) 녹두나무.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아래 소년인데 백발되기 잠깐이다

[연제구 민요 44]

노랫가락 차차차

신정숙(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운하니

[연제구 민요 45]

노들강변

임창희(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서 매여나볼까
  에헤헤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흐르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좋다.)

[연제구 민요 46]

도라지타령

임창희(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반실에만되노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이야 난다 기화자자 좋다 (청중: 좋다!)
내가내간장 아리슬슬 다녹인다 (오늘 좋다!)

[연제구 민요 47]

파랑새요

임창희(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그렇지.)

[연제구 민요 48]

양산도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함안산청 물렛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낭군임은 나를안고 돈다 (이라대.)

[연제구 민요 49]

화투타령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정월솔가지 속속한내마음
이월매자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내마음
사월흑싸래 흩쳐놓고
오월난초 나르는나비
육월목단에 앉았꾸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구나
구월국화 구식한내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고
오동추야 [웃음]

[연제구 민요 50]

너냥 나냥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조사자: 너냥 나냥) 두리둥실 하구요
낮이낮이냥 낮이낮이냥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립어[252]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밤이밤이냥 낮이낮이냥 참사랑이 온다
(조사자: 우리 집 낭군님은 명태 잡이를) 갔는데 바람아불어라 석달열흘로 불어라

252) 임이 그리워.

[연제구 민요 51]

다리세기 노래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도
논에짐치 장독간 [웃음] (모르겠다.)

[연제구 민요 52]

청춘가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청춘하늘에 잔별도많고요~ 요내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구나~
네가잘라서 일색이더나~ 내가몬나서 (뭣이고?)

[연제구 민요 53]

시집살이 노래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고추당추 맵다하더라도 시집살이만치 매울까

[연제구 민요 54]

모심기 노래

정순삼(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여)]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어머니 산소가에 젖먹으로 나는간다 (그랬다.)

[연제구 민요 55]

창부타령[사랑가]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뭄날에 빛발같이도 반긴사랑
구년칠수 긴장마에 햇볕같이도 반긴사랑
당명화에 양귀비여 이도령의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일은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랑사랑 사랑이다니 사랑이란게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를사랑 믿다고 속은사랑
오목조목 알뜰사랑 왈칵달칵 싸움사랑
구월삼경 깊은사랑 공산양월 달밝은데
이별하니 ○○○○[253] 소근소근 얽은사랑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253)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들을 수 없음.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봄이왔네 봄이왔네
무궁화 이강산에 새봄이 왔네
방실방실 웃는얼굴 우절우절 능수버들
비비베베 종달새는 졸졸흐르는 물소리가
앞집에 수탉이 꼬끼오울고~
뒷집에 삽싸리 컹컹컹짖네
앞논에 암소가 음메음음메
뒷집 산꿩이 끽끼끽끼
울고가는 큰애기걸음 함춘에 흥얼대며
사뿐사뿐 아기장아장 흥얼걸음 걸어가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어화 이봄을 즐겨보세 [일동 박수]

[연제구 민요 56]

화투타령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정월솔가지 훨훨날라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살란한마음이
사월헛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아온나비
육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으난마음이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우에[254]씌워서 유람가자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이렇게 좋다가는 딸놓겠네 [웃음] [일동 박수] (청중: 아! 잘 한다.)

[연제구 민요 57]

청춘가(1)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이팔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나봅시다

청춘 홍화에~ 네자랑 말어라~
방안에 홀연이~ 좋~다 다늙어가누나~

떴다 보아라~ 무엇이 떴느냐~
컴컴한 그믐밤에 좋~다 반달이 떴구나~

담넘에 뛸때는~ 큰맘을먹고 뛰었는데~
문고리 잡고서 좋~다 발발발 떠누나~ (청중: 아이고! 잘한다.)

[연제구 민요 58]

청춘가(2)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이내 날같이~ (또 뭐라 하노?) 사랑을 준다면~

254) 우비를 말함.

까시밭이 천리라도~ 발벗고 가누나~

오리막 내리막~ 잔기침 소리는~
자다가 들어도 좋~다 낭군님 지침이라[255]~

아실아실 춥거덜랑~ 내품에 잠들고~ (또 뭐 카노? 아이고 또 모르겠네.)

백두산 만댕이~ 허리안고 돌고요~
나어린신랑 품에 좋~다 잠잔동 만동혀~

[연제구 민요 59]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어제아래 치운[256]처녀 신랑오기만 기다린대

[연제구 민요 60]

너냥 나냥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냥 낮이낮이냥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255) 기침이라.
256) 혼례를 치뤘다는 의미.

저녁에 우는새는 임을찾아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다

한질가 넓어서 길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다

[연제구 민요 61]

양산도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에헤이여~
간다 몬간다 얼마나 울어서~
정거장 마당에 한강수 됐네~
  에하라 놓아라 아니놀지를 둥기를 하여도 몬노니

에헤이여~
니가 잘나서 일색이 되었나
내눈이 어두워서 환장이 들었나
  에하라 놓아라 두둥기디어라

밀어라 당기라 잡아라 댕기라
못놓으니 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다

[연제구 민요 62]

주초 캐는 처녀 노래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황해돌아 구월산밑에 주초캐는 저처녀야
너의집은 어디다두고 여기와서 주초캐노
나의집은 알고싶으면
이산저산 넘어가서 초가삼간이 내집이오
오실라면 오십시오 가실라면 가십시오

[연제구 민요 63]

창부타령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젊은 청춘 곱던 그때가 어저께인 줄 알았는데
오늘보니 늙었구나
껌던머리 희어지고 곱던얼굴 주름지네
키는낮고 눈은 흐려지니 가는세월이 원수로구나
세월아네월아 가지를 마라 아깝은 청춘 다늙는다

[연제구 민요 64]

다리세기 노래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전주만주 두만주
짝발에 생쥐
연지 한통 스무 냥

[연제구 민요 65]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연제구 민요 66]

노랫가락

이용하(여, 1940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배꽃일래 배꽃일래 큰애기수건이 배꽃일래
배꽃같은 수건밑에 눈매고운 저처녀야
누간장을 읽힐라고 눈매조차 그리곱노
오니가니 빛만비고[257] 대장부간장을 다녹인다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연제구 민요 67]

본조아리랑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257) 빛만 보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청중: 잘한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중: 아! 잘하고.)
청춘 하늘에 잔별도많고~
이내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문고리 잡고서 떨지를말고~
심중에 있는말을 다하고가소 (청중: 아이고! 잘하네.)

[연제구 민요 68]

도라지타령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놈 실넘어 도라지
하도 날데가 없어서~
두바위 사이에서 났더냥 (2절부터 먼저 했네.)
.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바굼이[258] 반쯤만 되노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는다

258) 바구니.

[연제구 민요 69]

진주난봉가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259]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님 하신말씀 어라야야 메늘아가
진주낭군을 볼라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하늘같은 갓을씨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몬본듯이 지나가네
껌은빨래 껌끼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고
집이라꼬 돌아오니 시어머님 하신말씀
어라야야 메늘아가 진주낭군을 볼라거든
사랑방을 들어가라 진주낭군 사랑방을 들어가니
오색가지 술을놓고 기생첩을 옆에두고
오죽가를[260] 하고있네 하도보기 애닯아서
아래채로 내려와서 석자수건 명지따가[261]
목을잘라 가뿠구나 [웃음]
진주낭군 그말듣고 버선발로 썩나섰네 [청중: 좋다!]
어허라여보 기생첩은 삼년이오 본댁처는 백년인데
오동토동 말도없이 너죽을줄 내몰랐네 [웃음]

[연제구 민요 70]

백발가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259) 시집, 시집살이를 말함.
260) 권주가를 잘못 말함.
261) 명지는 명주. '명주 수건으로'를 의미함.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청중: 좋다!)
(뭣고?) (조사자: 나도 어제.)
나도어제 청춘이더니 오늘되기가 잠깐이네

[연제구 민요 71]

사발가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는구나

[연제구 민요 72]

창부타령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오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길봄이라 아니늙어서 무엇하나

[연제구 민요 73]

노랫가락

장옥란(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3동 부인경로당]

꽃과같이 곱다던님은 열매가지도 맺어놓고 (청중: 좋다!)

가지가지 받은정은 뿌리같이도 깊어놓고
아니보면 사생결단 보고나면은 심상만사
깜짝사랑은 영이별이오 설둥말둥은 장례서라
얼씨구 좋네~ 정말로 좋네~
어짜몬 요로콤 좋을소냐

[연제구 민요 74]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미상(여, 출생연도 미상[262])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검둥개야 짖지마라

[연제구 민요 75]

다리세기 노래(1)

미상(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천사만사 국거리
대장군 허리끈
똘똘말아 장두칼 [웃음]

[연제구 민요 76]

다리세기 노래(2)

262) 제보자가 본인의 성명과 나이를 극구 밝히지 않았다.

미상(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독간
까마구 까악

[연제구 민요 77]

파랑새요

미상(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78]

도라지타령

미상(여, 출생연도 미상)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말로 하며]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그거밲에 몰라.)

[연제구 민요 7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현정수(여, 1955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자장자장 잘도잔다
앞집개도 짖지말고
뒷집개도 짖지말고 (그래 하거든. 그 뭐 거 밖에 더 있나?)
우리애기 잘도잔다

[연제구 민요 80]

청춘가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라
알뜰한 요내청춘 다늙어 간다
어헤에헤야
우리야 청춘은 어데로 가노

[연제구 민요 81]

노랫가락(1) [그네 노래]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수천당 시모진낭게 높고낮은데 그네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잡지마소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연제구 민요 82]

노랫가락(2) [나비 노래]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나비야 흰나비야 너도같이 청산을가자
(조사자: 가다가 날 저물거든.)
가다가 길저물거든 꽃밭수렁에 자고나가소

[연제구 민요 83]

노랫가락(3) [무궁화 노래][263)]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공자님 심으신낭게 용인서녀가 물을줘서
스스로 버든가지에 맹자님에게 꽃이로세
아마도 이꽃이름은 춘추만대로 무궁화꽃이로세

[연제구 민요 84]

두꺼비집짓기 노래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뚜껍뚜껍 은두깨비
너는 어디가고

263) 제보자는 "시주 노래를 한 번 불러볼까요."라며 시작했다.

나만혼자 냉기놓고
못짓는 집을 지라카니
이가슴이 터지는가

[연제구 민요 85]

잠자리 잡는 노래

구동순(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잠자리 꼴꼴
먼데가면 죽는다
붙던자리 붙어라
(청중: 앉은자리 앉아라.)

[연제구 민요 86]

청춘가

구동순(여, 1929년생), 이정선(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구나
이내야 가슴에는 좋~다 수심도 많더라

[연제구 민요 87]

모심기 노래

이정선(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모야모야 나락모야 니운제커서[264] 환상[265]할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환상하지
[앞의 노래에 이어서 조사자가 다음 노래를 요청하자 제보자가 먼저 말로 읊음]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조사자: 한 번 해보입시다.) (다 까먹묵고 다.)
[조사자가 먼저 "이물끼"하며 부르자 제보자가 가창함]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가고
(아이고.) (조사자: 문어야 전복.) (아! 다 까묵고 모르겠다.)

[연제구 민요 88]

비 노래

이정선(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비야비야 오주마라[266]
우리언니 시집가마
우단처매 얼룽진다[267]

[연제구 민요 89]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이정선(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구구구구 구구구구

264) 너 언제 커서.
265) 화승(花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
266) 오지 마라.
267) 비단처마 얼룩진다. 제보자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말로 "비단처매"라고 했는데, 노래로 부를 때는 "우단처매"라고 했다.

어미죽고 구구구구
자석[268]죽고
내한체[269] 우째사꼬

[연제구 민요 90]

두꺼비집짓기 노래

이정선(여,1936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두껍아 두껍아
헌집 주게
새집 주꾸마

[연제구 민요 91]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김기순(여, 1939년생) 가창
2018년 0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둥둥 내사랑
이리봐도 내사랑
저래봐도 내사랑
둥둥 내사랑

[연제구 민요 92]

태평가

268) 자식.
269) 내 혼자.

오혜석(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많은
노래도 부르면서 살아가자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절씨구 좋다
봄나부[270]는 이리저리 훨훨
꽃을 찾아서 날아간다

[연제구 민요 93]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이순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0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조사자가 먼저 부르자 제보자가 따라 부름]
불매[271]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노불매

[연제구 민요 94]

파랑새요

이순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1월 29일 채록

270) 봄나비.
271) 풀무의 방언.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노래는 '노세노세'의 가락으로 부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272]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95]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순례(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0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임이 타면은 (조사자: 내가나 뛰고.) 내가타면은 임이뛰고
[조사자와 함께 부름]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아진다

[연제구 민요 96]

파랑새요

노숙자(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97]

모심기 노래

272) 녹두나무에.

김덕수(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우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조사자: 좋다!)

[연제구 민요 98]

도라지타령

김순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우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슬슬슬 넘는구나
  에헤이야 어헤이야 에헤요~
  에하라 난다 지와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스리슬 다녹는다

[연제구 민요 99]

아리랑

김순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우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연제구 민요 100]

밀양아리랑

김순이(여, 1938년생) 가창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우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둥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신다고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남넘겨주소 [일동 웃음]

니가잘나 내가잘나 그누가잘나~
우리동동 (뭐 우짜고. 모르겠다.)

[연제구 민요 101]

자장가

윤정수(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청운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조사자: 나라에는 충신둥이.)
나라에는 충신이고

[연제구 민요 102]

모찌기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모찌자 조찌자 모도다 잡아다 홀치자
모찌자 조찌자 모도다 잡아다 홍치자

[연제구 민요 103]

모심기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이물끼저물끼[273] 다헐아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나
문에야대전복[274]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모시야적삼 새적삼밑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많이보면 뱅들도요[275] 쌀낱마치만 보고나가소

남창남창 베를모아~ 시너보올키[276] 떠나는데
무습따라 올오빠야 처자 [더 부르지 못하고] (다 잊아뿠네.)

273) 이 물꼬 저 물꼬.
274) 문어야 대전복.
275) 병들기요.
276) 시누이 올케.

풍당풍당 찰수지비[277] 사우야판에[278]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년으로 맽깄느냐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기나네
우리야임은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가

[조사자가 "해다지고"로 시작하는 다른 노래를 아는지 물어보자]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지금은 내가 할란가 모르겠네. 음-, 내가 한 번 해보고.)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는데

[연제구 민요 104]

창부타령(1)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다
아니나 노지를 못하리라
울며불며 백해[279]야물에 한기[280]야지는 저나부는[281]
한기는 좋건마는 가지가지를 붙지마라

[연제구 민요 105]

창부타령(2) [사랑가]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277) 찰수제비.
278) 사위 판에.
279) 벽해(碧海).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줄여서 말한 것으로 보임. 즉, 넓은 뽕나무밭을 말함.
280) 향기.
281) 저 나비는.

사랑이 사랑을알면 설마사랑을 정할소냐
수천리 타관에와서 내사랑이라 할소인강[282]
아마도 요내이몸은 당신의사랑~
(요기 1절이고.) (조사자: 1절이고.)

작년에 정을두었다 당신을바래서 나여기왔소
(그런데 아이구 그 뒤에는 또 모르겠노 와.) ["나 여기 왔소"를 가창한 후에]
이몸이 새몸이되여 임자를만나서 나여기왔소
(요기 2절이고.) [조사자 청중 박수]

[연제구 민요 106]

청춘가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춘 좋~다 다늙어 가구나
세월이 가기는~ 바람길 같구요~오~
흐르는 물으는 좋~다 구름과 같구나

[연제구 민요 107]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우리 아부지가 그래 그거로 잘 부르더마는. 지금은 인자 내가 하겠나 몰라.) (조사자: 한 번 해보입시더.)

282) 할 수 있나.

불매 딱딱 불매야
이불매를 불라서[283]
논을사까 밭을사까
경상도 대불매
훌럭떡 훌럭떡 훌럭떡

[연제구 민요 108]

비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데
가마문에 비들친다

[연제구 민요 109]

다리세기 노래(1)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구 대맹구[284]
도리줌치[285] 장두칼[286]

283) 불러서.
284) 동사 망건 대망건.
285) 도래주머니.
286) 장도칼.

[연제구 민요 110]

다리세기 노래(2)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이치가께 니가께
상가께 시가께
고가께 요꾸가께 (이래 이래는 봤지. 일본말 그래 해봤지.)

[연제구 민요 111]

잠자리 잡는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앉은뱅이 꽁꽁
붙는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떡친다
(그래 그래 하대. 우리 거 기장 절로는. 거 가 곳곳마다 다 달라요.)

[연제구 민요 112]

권주가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만뱅주[287]요

287) 만병주.

[연제구 민요 113]

모심기 노래(2)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심차례가 늦어오네
올퐁덜퐁[288] 네따주면 백년살이를 내카살지 (이라던데 우리는.)

[연제구 민요 114]

화투타령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정월이라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힘을매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내마음
사월흑싸리 힘을매고
오월난초 앉안나비
유월목단에 놀아나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아 달밝았네
오동추야 달밝은데
달이밝아서 임보러갈세

[연제구 민요 115]

시집살이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88) 울퐁 줄퐁.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성아성아 올키성아
도리도리 수제[289]판에
수제놓기도 어렵더라

[연제구 민요 116]

노랫가락[나비 노래]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청산가자
[말로 바꾸어 읊음]
가자가자 가다가 나무에 붙으면
날이저무면 꽃밭에 자고가자 (그것도 다 잊아뿠네.)

[연제구 민요 117]

양산도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에헤이~요 (카는 그거.) [조사자가 “양산읍네”라고 부르자]
양산읍네 물레방아 물을안고 도~올~고
우리집에 저도독놈은 나를안고 도~온~다

289) 수저.

[연제구 민요 118]

아리랑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고개를 날냄기주소[290]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291]나요

[연제구 민요 119]

밀양아리랑

이매옥(여, 1929년생) 가창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마곡경로당]

날좀보소 날쪼금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쪼금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라리 고개로 날냄기 주소

[연제구 민요 120]

모심기 노래

서영순(여, 1932년생)[292]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290) 나를 넘겨주소.
291) 발병.
292) 제보자는 양산군(현 양산시) 웅상면에서 거주하다가 22살에 결혼하면서 부산으로 왔다고 함.

남창남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여 처자석을 [기억이 나지 않아 잠시 주춤하다가 말로] 건지낼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로 열매열래
(조사자: 이 달 크고 저 달 크고 칠팔월에 열매 열래.) (아아.)

퐁당퐁당 찰수지비 (에미 어 그거.) (조사자: 사우야 판에.)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매 사.) (조사자: 딸에년을 뭐 시켰든고.) 딸년으로 시겼던공

[연제구 민요 121]

모찌기 노래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안자 옛날에 모를 찌면서로 우리가 그런 노래를 했거든요.)
[제보자 가창]
쪼루자 쪼루자 요놈의쪼루를 쪼루자
(또.) (조사자: 쪼루자 쪼루자 영감상투를 쪼루자.) (아입니더.)
[제보자 가창]
요논빼미를 쪼루자 (거 와 그렇노 같으몬 모를 찌면서로 그거 쪼라야 그것이 인자 못집이 다 되거든예. 그래 그런 노래를 다 했거든요.)
(조사자: 한 번 더 그라모 우리 어머니, 쪼루자 쪼루자.) (요 논빼미를 쪼루자.)
(조사자: 요 논빼미를 쪼루자.) (요 논빼를 쪼루자 이 말 아인교. 그래.)

[다시 가창함]
쪼루자 쪼루자 요논빼비를 쪼루자
(이래 그런 노래를 했어요.)

[연제구 민요 122]

양산도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에헤~~이~요
양산도 (조사자: 양산 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문디는 나를안고 돈~다
  에헤어라 말어라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연제구 민요 123]

청춘가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일심부녀경로당]

[조사자가 “세월아 네월아”라고 부르자 이어서 가창함] 오고가지를 말어라
요놈의 청춘이 이~이 다늙어 지노라

[연제구 민요 124]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정상도 대불매다 (캐싸면서 그랬다.)
(조사자: “불어라 딱딱” 하고.) (야.)

[연제구 민요 125]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껌둥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앞집개도 짖지말고
뒷집개도 짖지말고

[연제구 민요 126]

다리세기 노래

서영순(여, 1932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어깨도깨 수도깨
너거 삼보[293] 어데 갔노
삼산[294]에 갔다
뭐 하러 갔노
새 잡으러 갔다
한 마리 주가[295]
꿉어[296] 묵자
두 바리 주가
찌지 묵자

293) '선비'의 방언으로 보임.
294) 심산(深山)인 듯함.
295) 주오. 또는 다오.
296) 구워.

찌질랑게[297] 불이 붙어
오줌이 찔끔
빵구[298]가 땡
(이렇게.) [일동 웃음] (우리 클 직에는 그랬거든요.)

[연제구 민요 127]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성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조사자: 임아 임아 줄 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연제구 민요 128]

노랫가락[나비 노래]

최성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란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걸랑 꽃속에라도 잠자고가~자
꽃이지고 없거들랑 잎속에라도 잠자고가~자

[연제구 민요 129]

다리세기 노래

297) 지지려고 하다가.
298) 방귀.

최성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만주 도만주[299]
짝발로 해양건[300]
도래줌치[301] 사래유[302]
육구육구 절라육구
당산에 먹을 발아[303]
콕 찍었다
팍 [일동 웃음]

[연제구 민요 130]

사발가

고순자(여, 191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심[304]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난다

[연제구 민요 131]

아리랑

옥계순(여, 1935년생) 가창

299) 일반적으로 “진주망건 도망건”으로 부름.
300) 휘양건.
301) 도래주머니.
302) 일반적으로 “사래육”으로 부름.
303) “갈아”를 잘못 부른 것으로 보임.
304) 이내 가슴.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님은
십리도 몬가서 발병난다.

[연제구 민요 132]

너냥 나냥

옥계순(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연제구 민요 133]

태평가

옥계순(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좋~다

[연제구 민요 134]

사발가

채봉옥(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말로 하며]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풀쑥 나는데
(조사자: 요내가슴.)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연제구 민요 135]

노랫가락[그네 노래]

채봉옥(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추천당 세모진.] [말로 하며] 낭개[305] 늘어진가지 그네를 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연제구 민요 136]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305) 나무.

채봉옥(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자장가 한 번 하까?) (조사자: 예.)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 잠잘때는
뒷집개도 짖지말고
앞집개도 짖지마라
우리애기 잠잘잔다 [웃음]

[연제구 민요 137]

다리세기 노래

채봉옥(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두맹두 도맹도
짝바리 애양근
도래줌치 사래육
육구육구 도래육구
먼산에 먹을갈아
엎어질똥 말 똥

[연제구 민요 138]

아리랑

하명순(여, 1934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연제구 민요 139]

사발가

김정출(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그래, 그래 한다.)

[연제구 민요 140]

백발가

김정출(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말로 하며]
너거도 어연간에 백발된다 (마, 그뿐이다 인자.)

[연제구 민요 141]

파랑새요

김정출(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306]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142]

모심기 노래

김정출(여, 1933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물기야[307]청청청 헐어라놓고~ 쥔네양반은[308] 어데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우야방에 놀라갔다[309] (이후후~ 하고.)

[연제구 민요 143]

모심기 노래(1)

이기연(여, 192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낭창낭창 벼루끝에[310]~ 시누부올캐가 빠졌구나
무정하신 울오라비~ (그 가마 있어봐라.) 올캐손부팅 (퍼뜩 잡아 건지고 지는 안 껀지 준다 하거든.)
나도죽어 남자되어~ (뭐 우앤다[311] 하더노?) (청중: 낭군부터 정할라네.) (낭군부

306) 녹두나무.
307) 물고.
308) 주인 양반.
309) 놀러 갔다.
310) 벼랑 끝에.
311) 어떻게 한다.

터 정할라 카더나?)

[연제구 민요 144]

모심기 노래(2)

이기연(여, 192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아[312]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솔를숨아 영화로다

[연제구 민요 145]

다리세기 노래

이기연(여, 192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두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두깐[313]
돌양반 도양반
진주댁이 열두냥
까마귀까욱 안기범
사슴이 노래기
동 태야

312) 모를 심어.
313) 장독간.

[연제구 민요 146]

모심기 노래(3)

이기연(여, 192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나도죽어 낭군되어 (뭐꼬?) 낭군부터 챙길라네[314]

[연제구 민요 147]

모심기 노래

김분석(여, 1926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이논빼메다[315] 모꾼을옇고~ 쥔네양반 어데갔노
담배이허랍아[316] 손에들고 첩우야집이[317] 놀러갔네
낮에가몬 놀러가고 밤에가면 잠자러갔다

[연제구 민요 148]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김필덕(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불매 불매를 갖다가요 인자 저거 손지거든요. 손지면, 인자 아를 갖다 달갠다고.)

314) 가사를 혼동해서 잘 못 부름.
315) 이 논빼미에다.
316) 담배와 허랍(?). '허랍'의 뜻을 알기 어렵다.
317) 첩의 집에.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저거 신랑이 인자 김생원이면 김씨몬.)
김생원네 불매로다 (이리 쌌다.)

[연제구 민요 149]

비 노래

김필덕(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말로 읊으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318] 사촌새이 시집간다
우리 사촌새이 옷에 얼룽진다
비야비야 오지마라(이래 그래쌌어. 다 잊이삤다 그것도. 그래 쌌다.)

[연제구 민요 150]

이갈이 노래

김필덕(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인자 아가 이가 빠지몬 그 이를 갖다가 웃니몬 웃지붕께 지내삠서로.) (조사자: 까치야 까치야.) (웃지붕께 지내삠서로 인자 저 저.)
우리애기 헌니 가가고
새이 우리애기 주라
(쿠면서 내삐고, 인자 아래 이가 빠지몬 아래 지붕께 지내삠서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저 저 새이 주라. 헌니 가가고 새이 주라고 저찌 내삐고.)

318) 새이는 '형'의 경상도 방언.

[연제구 민요 151]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필덕(여, 1931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자장 자장 자장
이잠 동네잠아 다오이라
군에잠아 다오이라
이잠을 누가 다오주노
우리집안 잠아
우리 애기한테 다오이라
잠아 잠아 오너라

[연제구 민요 152]

모심기 노래

이경애(여, 1933년생)[319]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조사자: “모야모야”를 선창하자 이어서]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구시월에 [말을 바꾸어] (칠팔월에) 칠팔월에 열매연다

[연제구 민요 153]

청춘가

이청자(여, 1943년생)[320]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319) 제보자는 경남 김해에서 살다가 22살 때 부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함.
320) 제보자는 경남 거창군에서 살다가 49세 때 부산으로 왔다고 함.

요골짝 저골짝 모심어 놓고서~
나락꽃이 떨어지면 좋~다 호출장 온다네

[연제구 민요 154]

모심기 노래

이청자(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봐라
만져보면 병날끼고 쌀낱만큼만 보고가자

[연제구 민요 155]

창부타령[321]

이청자(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아침이슬 참이슬에 보리똥[322]따는 저큰아가
보리똥도 좋지만은 고운홀목[323] 다젖는다
고운홀목 다젖는다고 지는보리똥 안딸소냐
보리똥은 내따주마 내품안에 잠들어라

[연제구 민요 156]

비 노래

이청자(여, 1943년생) 가창

321) 제보자는 이 노래를 모심을 때도 불렀다고 했다.
322) 보리수나무 열매.
323) 고운 손목.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말로 읊음]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뭐 무슨, 분홍 뭐.) (조사자: 가마문에 비들치몬.)
가마문에 비드간다[324]
가마문에 비드가면
우리언니 고운치마 얼룩진다

[연제구 민요 157]

다리세기 노래

이청자(여, 1943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사만사 다만사
짝바리 희양건[325]
도래줌치 장주칼[326]
육구육구 전래육구[327]
당산에 먹을갈아
시루 오모조모
천지발개 통 [일동 웃음]

[연제구 민요 158]

청춘가

324) 비 들어간다.
325) 휘양건.
326) 도래주머니 장도칼.
327) 전라 육구.

김봉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조사자가 먼저 “세월아 네월아”라고 부르자 이어서 가창] 네그리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춘~ 다늙어 가노라 (청중: 얼씨구.)

[연제구 민요 159]

도라지 타령

김봉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쓰리살살 다모인다
  에~헤이요 데~헤이요 에헤~요
  어햐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슬슬 다녹인다

[연제구 민요 160]

밀양아리랑

김봉자(여, 1944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못본듯이 날좀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연제구 민요 161]

창부타령

김봉자(여, 1944년생), 심계순(여, 1949년생)[328]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하늘과같이 깊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일년삼백 육십일에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조사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연제구 민요 162]

너냥 나냥

김봉자(여, 1944년생), 심계순(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너냥 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328) 경남 산청에서 살다가 25살 때 부산으로 왔다고 함.

[연제구 민요 163]

모심기 노래

김순덕(여, 1936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말로 읊음]
다풀다풀 다풀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먹으러 내가간다

해다지고 해저문날에 골목골목 연기나네
(고마 할란다. 숨 떨어진다.)

[조사자가 "모시야적삼 안섶안에"를 부르자 이어서 가창]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자기보면 병나는데

퐁당퐁당 찰수지비[329]~ 사우[330]야판에 다올랐네
(이거 딴 사람을 맽겼이면 거할 긴데 딸로 맽기 놓으이께네 저거 아버지 줄줄 모르고 지 서방만 다 믹이는 기라. 거거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예.) (청중: 욕심이 많다.)

낭창낭창 베로[331]끝에~ 무정하는 올오랍아
나도죽어 후세상에 낭군님한번 심기볼래[332]

[연제구 민요 164]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김순덕(여, 1936년생), 심계순(여, 1949년생) 가창

329) 찰수제비.
330) 사위.
331) 벼랑.
332) 섬겨볼래.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김순덕]
빠꾹빠꾹
기집[333]죽고 자식죽고
(뭐뭐 우짜고 저쩌고.) (조사자: 내 혼차 어째 살고.) (응. 어째 살고 그란다 하대.)

[한 청중이 “에미죽고 자석죽고”라고 한 다음 다른 사람이 부르라고 하자]
[심계순]
(우리는 “똥걸래는 누가 빨꼬” 이러든데.)
지집[334]죽고 자석죽고
똥걸래는 누가 빨꼬 (그러 쿤다.)

[연제구 민요 165]

사발가

심계순(여, 1949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연제구 민요 166]

다리세기 노래

윤옥연(여, 1935년생)[335]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333) 계집.
334) 계집.
335) 충청도에서 살다가 19살 때 부산으로 왔다고 함.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짝바리 사양고
오라 김치 사래 육 (이랬다.)

[연제구 민요 167]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윤옥연(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앞니빠진 갈가지[336]
우물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랜다
(이러대요. 우리 충청도는 그러더라.)

[연제구 민요 168]

이갈이 노래

김옥선(여, 1960년생) 가창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 주께
새이 다오
(하고 지붕에다 탁 던지뿠는. 웃니 빠지면 우에 던지고, 아랫니 빠지면 아래채 던지고.)

336) 범의 새끼.

[연제구 민요 169]

물레 노래

조재남(여, 1935년생) 가창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물레야 물레야 자세야
도롱뱅뱅 돌아라
(그런 노래들 할매들.) (조사자: 아까운 내 청춘 뭐뭐 그래 안 하나?) (인자 그거 노래가 “물레야” 이리 길쌈을 해갖고.) (조사자: 길쌈할 때.) (신랑 옷을 해준다는 그런 걸로 그런 노래가 있대.)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1)부산진구 민요

[부산진구 민요 1]

방구 타령 1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공필선(여 · 69세).

* 자청하여 불러 줬다. 혼자서 말하듯이 구연했다. 청중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다. *

시아바이방구는 호랭이방구
시어마이방구는 앙살방구
시누이방구는 할림새방구
서방님방구 단방구
지방구는 도둑방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18~319쪽.

[부산진구 민요 2]

쌍금쌍금 쌍가락지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공필선(여 · 69세).

*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러 줬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딲아내어
먼데보니 달이로다
절에보니 해가되고
처자한쌍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홍달바씨 울오랍씨
거짓말쌈 하지마소
둥지섣달 설한풍에
풍지떠는 소립니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19~320쪽.

[부산진구 민요 3]

베짜는 소리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공필선(여 · 69세).

*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러 주었다. *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지짜는 저큰아가
그베짜서 무엇할래
울오라비 씨름갈때
삼각대로 마련하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0쪽.

[부산진구 민요 4]

주추캐는소리1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공필선(여 · 69세).

*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다. 모두들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황하도봉산 무주산밑에
추치캐는 저큰아가
해다진데 주치캐노
소년아집이 어데건데
해저문데 추치캐노
소년아집을 찾을라면
한둥두둥 삼사고개를 넘어가야
소년아집을 찾아가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0~321쪽.

[부산진구 민요 5]

주추캐는소리2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최순점(여 · 84세).

* 앞의 노래를 듣고 있던 제보자가 자기도 아는 노래가 있다며 이 노래를 불러 줬다. 처음에는 노래로 부르다가 중간부터는 말로 했다. 독창으로 부른 것이다. *

비가오면은 줄기산이고
눈이오면은 백두산넘에
삼간초당이 내집이요
해다지고 다저문데
주추캐는 저처녀야

너그집이 어디걸레
해다진데 주추캐나
우리집을 갈라면은
비가오면 줄기산이요
눈이오면 백두산넘에
삼간초당이 내집입니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1~322쪽.

[부산진구 민요 6]

첩노래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곽숙조(여 · 83세).

* 독창으로 불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본처가 외도하는 남편에게 부른 노래라고 설명해 주었다. *

해다지고 저무신날에
옷갓을하고 어디가요
첩우집을 가실라면
나죽는꼴로 보고가소
첩우야집은 꽃밭이고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에고기는 사시사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2쪽.

[부산진구 민요 7]

임아임아 서방님아!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최순점(여 · 84세).

* 독창으로 부른 것이다. 남편에 대한 저항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

임아임아 서방님아
밥상받고 호령마소
실낱같은 법아니믄
나도마조 호령하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3쪽.

[부산진구 민요 8]

탄로가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곽숙조(여 · 83세).

* 신세자탄조로 읊조리듯 노래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꽃이라도 낙화가지면
오던나비도 아니오고
남기라도 고목이지면
오던새도 아니오고
물이라도 유수가지면
노던고기도 아니놀고
우리야청춘도 늙어지면

오던친구도 아니온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3~324쪽.

[부산진구 민요 9]

불똥꺾는노래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최순점(여 · 84세).

* 처음엔 노래로 부르다가 중간에 숨이 차서 말로 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아침이슬 채전밭에
불똥치는 저큰아가
불똥이사 치네마는
곱은홀목 다젖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4쪽.

[부산진구 민요 10]

임아임아 서방님아2

T. 진구 1-앞.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최순점(여 · 84세).

* 요사의 내용이 맞다고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독창으로 혼자서 불렀다. *

임아임아　　서방님아
꽃이곱소　　내가곱소

니아무리　　곱다고한들
꽃헌테다　　비하겄나
꽃을품고　　잠을자머
밤중이짝에　　써들싸들[337]
나를품고　　잠을자머
항상자도　　한색이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4~325쪽.

[부산진구 민요 11]

옥단춘노래

T. 진구 1-앞~뒤.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이수연(여 · 78세).

* 옥단춘전을 음영식으로 노래한 것이다. 혼자서 독창식으로 불렀다. 중간 중간에 요사의 내용에 대해 해설을 덧붙여가면서 노래했다. 노래를 들으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 노래를 마치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칭찬하였다. *

이몹씰 김진해야
니나를 모르다니
너와나와 한서당에 글배울때
너잘되면 날도우고
나잘되면 니도우고
금슬같이 언약할때
니가먼저 언약할때
내가먼저 언약할때
그후나는 살림이 도태하야
부모처자 봉양하네
사직을 헤매일때

337) 시들시들

평양감사 너됐다고
너를찾아 올라가니
노자한푼 전혀없어
처자의 머리까락 팔아가주고
너를찾아 내왔는데
너나를 모르다니
이몹씰 김진해야
옛일을 생각해보라
너는그시 조실부모하고
유리대절 나올적에
선친이 데려가고
데려다가 너를양육 하였거늘
너나를 모리다니
이몹씰 김진해야
이때순사또 거동봐라
사공을 불러가주고
저몹씰 길가는 미친갱이를
동정호에 던지라고 호령하니
사공의 거동봐라
활대같이 달려들어
등을밀고 손을끌고
등화같이 달려가니
이때기생 옥단춘이
이헐용매 해결뜰에
눈을들어 살펴보니
의복은 남루하고
얼굴은 초추시척하나
늠름한 저풍채는
진토에 묻혀있고
샛별같은 저눈동자
검은구름 끼였는데
양반자슥 분명하다
어찌하야 저사람을 구제할꼬
한꾀를 생각하야

김사또 앞에나가
어린몸이 피곤하니
조리할까 하옵니다
김사또 허락하니
옥단춘이 좋아라고
은자서대 품에품고
동정호로 달려가니
이때사공이 함어헐 용을씨고
동정호로 내닫는데
저그가는 사공님아
그사람은 죄가없고
없는것이 죄가오니
우리서로 살려줍시다
사공이 하는말이
항아말씀 좋으나
이말되면 사또분부
우리도 죽지마는
항아도 죽십니다
사공님의 말인데도
내이래 말안하믄
누가이래 하오리까
뱃전에 올라가서
아제피[338] 은자를
아제피 나눠주니
늙은사공 하는말이
우린들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일수가 있시리오
사또분부 위엄하니
할수없이나 우리들한데 주옵시다
사공이 뭍으로 나아가니
옥단춘이 좋아라고

338) 앞앞이

[제보자 : '사공님요 이뱃머리를 다시돌려 동정호 언덕에 올라가지고 잘 살게 건사해주면 뒷감당은 내합시다.'] [청중들 박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5~329쪽.

[부산진구 민요 12]

권주가

T. 진구 1-뒤.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공필선(여 · 69세).

* 노래가 끝난 후 술을 권할 때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노래로 하지 않고 말로 했다. *

이술은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배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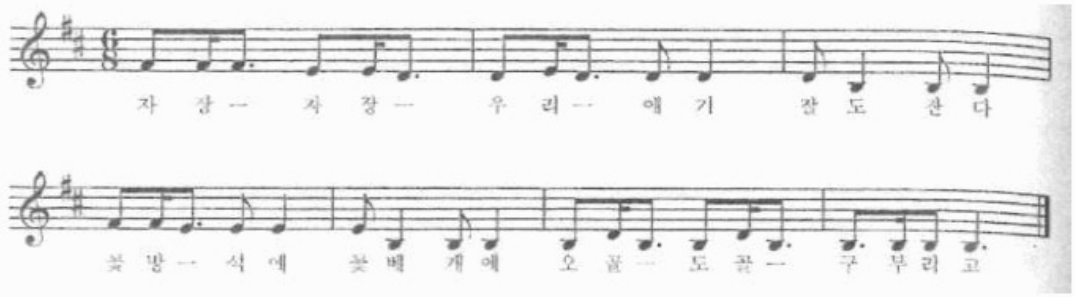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9쪽.

[부산진구 민요 13]

아기재우는소리1[C36]

T. 진구 1-뒤.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최순점(여 · 84세).

* 조사자가 아기 재울 때 부르는 소리를 해 달라고 하자 스스로 잘하는 것이라고 하며 불러 줬다. 독창으로 불렀다. *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울애기는 꽃방석에 꽃베개에
오골도골 구부리고
너애기는 개똥밭에 쇠똥밭에
오골도골 구부린다
둥구마친 꽃뱀인가
하구여문 알뱀인가
얼움굼게 수달핀가
문디산에 꽃봉진가
장독간에 다네긴가
담부락굼게 디에긴가
옷고름에 연길손가
챙이걸은기 바래긴가
둥게둥게 어허둥둥
앞을봐도 내사랑아
뒤를봐도 내사랑아
둥둥둥둥 울애기는 잘도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29~330쪽.

[부산진구 민요 14]

심청노래

T. 진구 1-뒤.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이수연(여 · 78세).

*제보자는 이것을 시조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혼자서 음영식으로 불렀다. 뜻이 깊은 노래라고 은근히 자랑하였다. 처음부터 '손에는 홀기로다'까지 부르다가 막혀서 처음부터 다시 부른 것이다. *

한곳에 다다르니
한풍에 일어나고
옥희소리 들리더니
에외한 주름사로
어떠한 두부인이니
두렷이 나오더니
머래는 화관이요
몸에는 용림포요
손에는 홀기로다
저그가는 심소저야
니나를 모르리라
우리성군 유유씨가
남수수 하시다가
장호여래 복하시니
속절없는 이두몸이
소상강 대소풀에
피눈물을 부릅뜨니
마디마디 아롱지오
잎잎이 원한이라
호소할길 없었더니
니다려 호소하니
수로만리 먼먼길에
조심하야 다녀오너라
심청이 생각하니
죽으러 가는몸이
조심하여 다녀오라하니
이도또한 괴이하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1~332쪽.

[부산진구 민요 15]

모심기소리1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박직선(여 · 70세).

* 혼자서 불렀다.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이다. *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커고 훗달커고 구시월에 열매열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2쪽.

[부산진구 민요 16]

꽃파는소리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춤을 추면서 불렀다. 모두들 매우 흥겨워했다. 청중들은 잘한다고 하며 손뼉을 치며 들었다. 혼자서 독창을 했다. *

꽃사시오 꽃을사
사랑사랑 사랑사랑에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러메고
꽃팔로 나왔소
뿔건꽃 푸른꽃
박꽃이라고도 하얀꽃
망고산에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꽃

아롱다롱에 구름꽃
꽃사시오 꽃을사
주렁주렁 달린꽃
봉을봉을 맺은꽃
방글방글 웃는꽃
나비앉아 춤춘꽃
이꽃저꽃 모란꽃
향기가 풍기나온다
꽃사시오 꽃을사
사랑사랑 사랑에 꽃이로구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3~334쪽.

[부산진구 민요 17]

아리랑고개

T. 진구 2-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독창으로 불렀다. 자신이 창작하였음을 은근히 자랑했다. 청중들도 처음엔 시큰둥하다가 다 듣고 나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아리랑아리랑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고개 첫째고개
이내몸이 탄생하야
우리어마보고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둘째고개
둘도없는 임을만나
시집간다고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셋째고개

철도없는 색시가
새신을신고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넷째고개
얼음어는 냇가에서
빨래씻다가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다섯째고개
알밤까는 다람쥐가
이빨이아파서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여섯째고개
여섯하면 엿장사가
가새로치며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일곱째고개
일곱하면 일본놈이
총칼들고서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여덟째고개
여덜하면 연어새끼
고향을찾아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아홉고개
아홉하면 한사람이
징용가메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열고개
열하믄 열녀춘향
이도령찾아서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열한고개
열한고개 넘어가네
영감할머니 둘이살다
저승간다고 오는고개
아리랑고개 열두고개
넘으말로 일삼는냐
웃는낯에 성내느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4~335쪽.

[부산진구 민요 18]

꼬불꼬불고개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이 노래를 참고하여 앞에 부른 아리랑고개를 창작했다고 한다. 독창으로 불렀다. *

꼬불꼬불 첫째고개 첫사람이 넘던고개
하나하면 할머니가 집방아찐다고 넘던고개
둘하면 두부장사 두부찐다고 넘던고개
세분하면 새사람이 새신신고 넘던고개
네분하면 넷가에서 빨래씻다가 넘던고개
다섯하면 다람쥐가 알밤까다가 넘던고개
여섯하면 엿장사가 가새로침서 넘던고개
일곱하면 일본놈이 총칼메고서 넘던고개
여덟하면 연어새끼 고향찾아서 넘던고개
여홉하면 안사람이 징을질한다고 넘던고개
열하면 열녀춘향 이도령찾아서 넘던고개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6쪽.

[부산진구 민요 19]

만구강산 유람할제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스스로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노래를 잘한

다고 주위에서 추켜세우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

만구강산 유람할제
일봉래 이방장가
삼신산이 어디메냐
죽장짚고 봉래산을 올라서니
천봉만학 부용들은
하늘우에 솟아있고
잘등두등해갔고 맑은하늘에 잠겼으니
천금일신이 분명쿠나
때는좋다 노춘이요
두견꽃 푸른잎은
마디마디 우는새는
춘가춘시 사랑하와
높은 치마밑에
능공타면이 오늘이야있고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엽전하날 쥐어줄까
서산에 지는해는
양산을 잡아매고
동진해 긴긴밤은
이승에서 머물러라
한없이 놀고가자
어이하예 잘넘는다
에라만수 대신이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6쪽~338쪽.

[부산진구 민요 20]

천자뒤풀이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스스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요사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창하는 부분이 많았다. 독창식으로 읊었다. 중간에 기억이 나지 잠시 머뭇거렸다. *

자시에 상처불은
행서시유유비창 하늘 천
축시에 선귀하니
오행을 만났으니
양생만물이 따 지
유행미모 홍천생
북방허물 가물 현
궁상각치우 동서남북
중앙토석이 누를 황
천지사방 몇만리에
하루광한루 집 우
연대국조 흥망성쇠
반고래등 집 주
유친홍소 기자총애
공동부주 넓을 홍
세세분생 수여중에
황급할황 거칠 황
요순성덕 장할시고
긴긴해일 날 일
역조청생 분양가에
강구영월 달 월
방자야해가 어찌되었느냥
일월중천에 기울 척
인생팔수 하도낙서
중생봉진이 별 진
갈음그냥 수천가락
원앙금침에 잘 숙

절대가인 좋은풍요
만반진수가 벌 열
사창열세 상근량
든금애정혜를 베풀 장
부귀공명 부운다기라
보해할상 찰 한
인생은 유수같애야
세월장차 올 래
만방천리 불목지
중거살아 더울 서
원구천리 착한보름
수천만년 갈 왕
금풍이 소를하니
낙엽오동 가을 추
백발이장차 오게되면
소년풍걸 거둘 수
오매불망 우리사랑
구주심청 감출 장
부용자냥 세우등에
천석을 부를 유
이러한 절세미인
일색보가 남을 행
이몸이훨훨 날아가서
천사만사를 이룰 성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38~340쪽.

[부산진구 민요 21]

남강노래

T. 진구 2-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이 노래를 부르기 전 제보자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 있는 '미주금주는 천명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락하니 가성고에 원성고라'라는 한싯구를 외우고는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노래는 앞의 한싯구에 이어 부른 것이다. 마치 시조를 읊조리듯 천천히 불렀다. 독창으로 불렀다. *

진양성도 남강수는 굽이굽이 백옥이요
촉석루하 일평석은 천고에 불인이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0~341쪽.

[부산진구 민요 22]

방구타령2

T. 진구 2-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노랫가락조로 불렀다. 다 부르고 나서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방구방구 이방구야
인지가면은 언제올래
친구방구가 나온다
옆에반장이 나온다
동네구장이 나온다
면에면장이 나온다
군에군수가 나온다
경찰서장이 나온다
도에도지사가 나온다
검사판사가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 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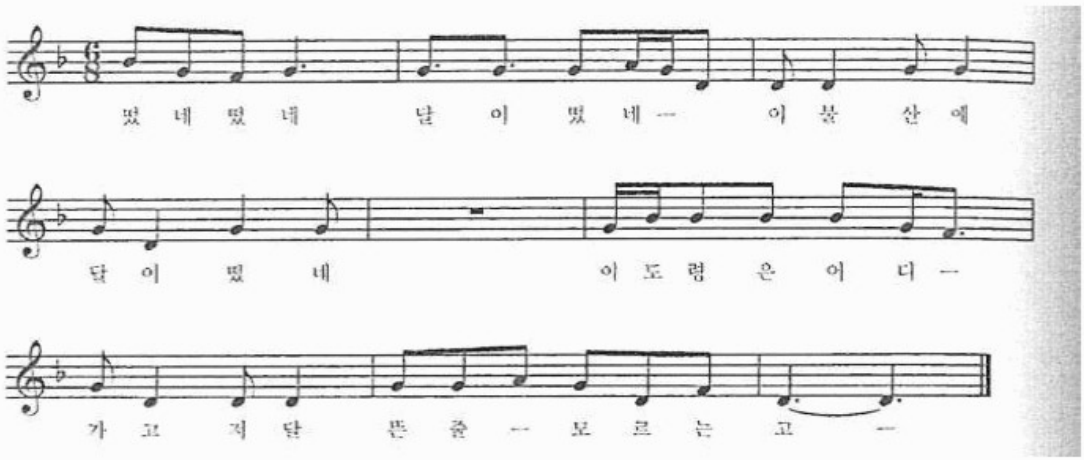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1쪽.

[부산진구 민요 23]

본처노래[C37]

T. 진구 2-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 노랫가락조로 불렀다. 남편이 본댁을 버리고 세 번이나 장가를 들자 본처가 저주를 퍼 부으며 빨리 죽으라고 악담하는 노래라고 설명해 주었다. 독창으로 불렀다. *



떴네떴네 달이떴네
이불산에 달이떴네
이도령은 어디가고
저달뜬줄 모르는고
이빠진데 박씨박고
머리센데 먹칠하고
밝은틈에 분칠하고

세불장개를 가고없네
한모랭이 돌거들랑
가매채가 이라지소
두모랭이 돌거들랑
말바리가 뿌라지소
삼세모랭이 돌거들랑
신부채가 돌아지소
대동강을 건네거든
명이대기 되고지라
마리청에 드서거든
사모작관 뿌라지소
밥상이나 받거들랑
수제작가 뿌라지소
안거들랑 잠이와서
눕거들랑 숨이차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2~343쪽.

[부산진구 민요 24]

물아물아 북청물아

T. 진구 3-앞.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안희순(여 · 72세), 박직선(여 · 70세).

* 안희순 할머니가 부른 것은 원래 모심기소리로 부르던 것을 단일기능요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직선 할머니가 부른 것은 모심기소리를 그대로 부른 것이다. 각각 독창으로 불렀다. *

안희순 : 물아물아 북청물아 어디갔다 저리가나
서산이 적막해서 대한수로 나리가네
나도죽으면 저승가서 처자임석 생길라네

박직선 : 낭창해창 비루끝에 무정할사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석 생기볼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3~344쪽.

[부산진구 민요 25]

사랑가

T. 진구 2-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황환희(남 · 79세).

* 손뼉을 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불렀다. 노랫가락조로 독창으로 불렀다.*

어하둥둥 내사랑아
어하둥둥둥 내사랑아
이리보아도 내사랑이요
저리보아도 내사랑이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넓은사랑
현종에는 양구비요
이도령에는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오일
파도가높아 못살갔네
얼씨구나좋구나 지화자좋다
아니노지는 못하리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4~345쪽.

[부산진구 민요 26]

강원도아리랑

T. 진구 2-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3.
오세길, 김창일, 김병찬, 김지혁, 김경희, 신자옥 조사.
황환희(남 · 79세).

* 스스롤 자청하여 불렀다. 모두들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고향 영주에 있을 때 배운 노래라고 했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넘겨주소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 구암자 무석사
법당뒤에다가 칠성당 모아놓고
팔자에 없는아들 아기잘놀라고 백일불공말고
타관객지에 외로이오신 손님을 괄세를마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5쪽.

[부산진구 민요 27]

아기어르는소리

T. 진구 3-뒤.
진구 초읍동 상록부인노인정,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곽숙조(여 · 83세).

* 곽숙조 할머니가 먼저 소리했으나 여러 할머니들이 함께 한두 소절씩 도와 완성하였다. 이 노래는 그만큼 보편화된 노래인 듯 했다. 노래로 부르지 않고 말로 했다. *

형제간에 우애동아
내외간에 금실동아
나라에 충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금자동아 옥자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나
금을준들 너를사나
얼음굼게 수달핀가
이불매가 누불매고
시가올은 소불매요
경상도는 대불매라
오슬끈 밟아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5~346쪽.

[부산진구 민요 28]

아기재우는소리2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이두리(여 · 71세).

* 제보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요사를 잊어 막히자 곽숙조 할머니가 나서서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하고 말로 거들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다른 요사로 끝을 맺었다. *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멍멍개야 짖지마라
니가지몬

[곽숙조 :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망간에는 네죽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6~347쪽.

[부산진구 민요 29]

아리랑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이두리(여 · 71세).

* 요사 내용은 밀양아리랑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곡은 강원도아리랑과 비슷하다. 독창으로 불렀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날낸가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몰라
행지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 열두고개
정든님 고개를 한고개요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됐나
내눈이 어둡아서 저나방됐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다 다리를놓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7~348쪽.

[부산진구 민요 30]

닭아닭아 우지마라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신재옥(남 · 90세).

닭하닭하 우지마라

니가울면 날이샌다
날이새면은 내죽는다
내죽기는 어렵잖으나
앞못보는 우리부친
뉘를믿고 사잔말이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8쪽.

[부산진구 민요 31]

닭이우네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신재옥(남 · 90세).

* 90세 노인인데도 옛날 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시집가는 동생과 오라비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닭히우네 닭히우네
모실산골에 닭히우네
열두달 내동숭아
닭울거로 니가했나
암닭울어 날이새나
장닭울어 날이새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9쪽.

[부산진구 민요 32]

십오야 밝은달은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신재옥(남 · 90세).

*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계면쩍어 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십오야 밝은달은
구름속에서 놀고
저게가는 저할매는
내품안에 논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49~350쪽.

[부산진구 민요 33]

없는 금전을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신재옥(남 · 90세).

* 놀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하였다. 독창으로 불렀다. *

없는 금전을 애씨지말고
있는정이나 변치맙시다
한번고생에 끝에는
행복이 옵니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0쪽.

[부산진구 민요 34]

이별노래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신재옥(남 · 90세).

* 해방 전 당시 유행하던 유행가 곡조에 따라 요사를 바꿔 부른 노래라 한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잘못됐다며 말로 다시 고쳐 주었다. *

역전앞에는 검은연끼만 남아있고
연락선떠난 부둣가에는 물기만 발라가있고
남아있고
캄캄하던 굴광안에는 한숨만눈물 가득하네
기차전차떠난[339] 역전앞에는 검은연기만 남아있고
연락선떠난 부둣가는 바닷물길만 남아있고
우리님떠난 굴방에는 눈물과한숨이 가득하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0~351쪽.

[부산진구 민요 35]

모심기소리2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조성남(여 · 72세).

*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렀다. 흥겨워서 손뼉을 치며 독창으로 불렀다. *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모판을 들어내자
이모판을 들어내니 점슴차비가 더디구나
짜른처마 진처마를 쩔쩔끌고 점슴차비가
더디구나
더디다 더디다 점슴차비가 더디다

339) 여기서부터는 앞의 요사가 잘못 되었다며 말로 다시 구술했다.

뭐하니라고 더디노
미나미 채국에 맛보니라꼬 더디나
더디다 더디다 뭐하니라꼬 더디나
숟가락 단반에 세니라고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뭐하니라꼬 더디나
바자기 죽반에 세니라고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뭐하니라꼬 더디나
뒤축없는 신짝을 끈니라꼬 더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1~352쪽.

[부산진구 민요 36]

모심기소리3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조성남(여 · 72세).

* 앞의 소리에 이어 불렀다. *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같이 내나가니
니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2쪽.

[부산진구 민요 37]

모심기소리4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조성남(여 · 72세).

* 모심기소리를 계속하여 불러 나갔다. 한 각편이 끝나면 조금 생각한 후에 다음 각 편을 이어 나갔다. 원래는 주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번갈아 가며 부르는 것인데 여기선 혼자서 계속해 불렀다. *

아래웃논 모꾼들아 반달같이 떠나가자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한량 어데갔노
건너매라 첩을두고 첩으야집에 가고없네
그의첩은 무엇인데 낮에가고 밤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간다
바람불고 비온날에 우비없이 어이갈꼬
갈모받쳐 씌고가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2~353쪽.

[부산진구 민요 38]

모심기소리5

T. 진구 4-뒤.
진구 연지동 연지경로당, 1999.10.24.
오세길, 김창일, 황성환, 정용민, 이현경 조사.
이상이(여 · 73세).

*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러 줬다. *

비묻었네 비묻었네 주야덕산 비묻었네
그것이야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일세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53쪽.

2) 연제구 민요

[연제구 민요 1]

모심기소리1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심증선(여 · 79세).

* 제보자의 요청으로 부르게 되었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청중들과 의논해 가면서 불렀다. *

[제보자: 모심기노래 그 무엇이고?]

낭창낭창 벼리끝에 무정한 우리오빠
나도죽어 혼자되어 나도죽어 혼자되어
처자변석 시키볼래 시키볼래

[제보자: 이러 커드나?] [청중: 모른다. 긋(그것)도 모른다.] [제보자: 자, 시작.]

지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제보자: 모르겄네. 모를 안 숨그고(심고) 뭘 듣고 있나?]

이논배미 모를심어 금실강실 영화로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6쪽~267쪽.

[연제구 민요 2]

부산삼팔선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이을분(여 · 89세).

* 과거 이 마을 주변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부관연락선이 부산을 떠날 때의 모습을 묘사한 노래이다. 밀양아리랑 곡에 붙여 불렀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했다. *

부산삼팔선 흰연락선 검은연기
오공콩콩 고동떼떼 불르고
일본아 시모나세끼가 바로바라다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만 아무나넘기머좋다

[청중: 아이고, 잘하네.] [조사자: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제보자: 부산 연락선. 일본으로 일본으로 떠나가는 노래.] [조사자: 아, 제일 끝에 뭐라 하셨어예?] [제보자: 부산 삼팔선.] [조사자: 부산 삼팔선예? 옛날에 많이 부르셨어예?] [제보자: 이전에 쪼께 젊을 때는 많이 불렀는데 너무 떡국을 많이 무서(먹어서.)] [조사자: 이런 노래는 어디서 들으셨어예?] [청중: 아주 옛날에, 아주.] [제보자: 우리 젊을 때 부르던 기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7쪽.

[연제구 민요 3]

청춘가1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이을분(여 · 89세).

* 혼자서 독창했다. 요즘도 놀면서 부른다고 했다. 중간에 요사를 잊어버려 제대로 잊지 못했다. *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나방창 소시절에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8쪽.

[연제구 민요 4]

모찌기소리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조두이(여 · 76세).

* 모를 찌면서 부르는 소리를 불러 달라고 청하여 듣게 되었다. 혼자서 독창했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

이논배미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논배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8~269쪽.

[연제구 민요 5]

모심기소리2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조두이(여 · 76세).

* 앞의 노래에 이어 조사자가 모심기소리도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제대로 끝을 맺지 못했다. *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여나행상이 떠나오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제보자: 그 다음은 모르겠네. 오래 돼서 모르겠네. 옛날에 참 잘했는데.]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9쪽.

[연제구 민요 6]

방구타령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조두이(여 · 76세).

* 노래로 부르지 않고 말로 구연하였다. *

시아바이방구는 유들방구
시어마이방구는 앙탈방구
딸방구는 앵두방구
며느리방구는 야시방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69~270쪽.

[연제구 민요 7]

모심기소리3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조두이 할머니가 앵두나무노래라며 불러 줬는데 들어보니 대중가요였다. 전승현장에서는 민요와 대중가요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노래는 조두이 할머니의 노래에 이어 제보자가 부른 것인데 제대로 끝을 내지 못했다. *

서마지기 이논배미 반달등실 떠나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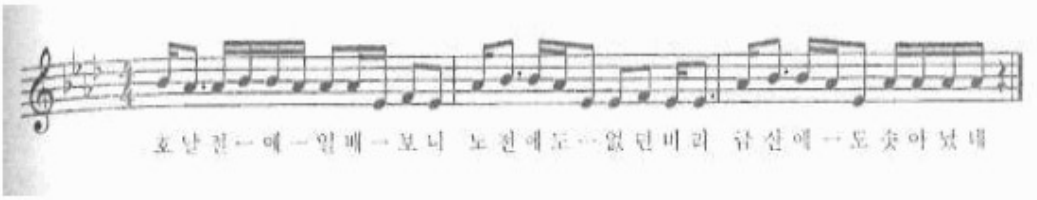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70쪽.

[연제구 민요 8]

남편살린며느리[C27]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아내가 전쟁에 나가 죽은 남편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 살려냈다는 줄거리이다. 구연하는 중간 중간에 요사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매우 긴 요사를 거의 막힘없이 구연해 주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청중 가운데는 우는 사람도 있었다. *



호날전에 일배보니
노전에도 없던비리
금산에도 솟아났네

[제보자: 옛날에 서울에 전야(전쟁)할 때 옛날에 인자 왕조시대 서울 전쟁할 때

그때요. 이 내 이름이요. 이…]
거덜나고 사흘만에
서울에서 편지왔네
한장을 들씨보니
붕에일부 부치왔네
두장을 들씨보니
날오라고 편지왔네
삼석장 들씨보니
어이오라 편지왔네
알방문을 반만열고
아버지도 하적하소
천금겉은 내자석아
만금삭에 다녀온나
울방문을 반만열고
어머님도 하적하소
천금겉은 내자석아
먼금삭에 다녀온나

[제보자: 이거 할라면 아죽(아직) 다섯 시간은 걸려야 하는데.] [조사자: 이게 무슨 소린데, 계속 해 주셔야지예. 그런 게 어딨어예. 노랩니까?] [제보자: 이게 노래가 아니고 옛날 서울에 전쟁할 직에 저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거든. 그래 저거 마누라가 신랑 구하러 간 기라.]

작은방문을 반만열고
누부님도 하적하소
천금겉은 내동상아
만금삭에 다니온나
누야동상 쏙내띠며
천금겉은 내오라바
만금삭에 다니오소
우리아버지 지은신도
시신도 열에다섯

[제보자: 지은 신이 시신(새 신)보다 낫단 말이요.] [청중: 아, 서두 달지 말고 계

속하라 말이요.] [조사자: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보자: 옛날에는 짚신이라도 요즘 시신보다 낫다 이 말인 거라.]

우리엄마 지은바지
시바지도 열에다섯
우리누님 지은적삼
시적삼도 열에다섯
누야동상 지은보신
시보신도 열에다섯
주고가소 주고가소
주고가소 주고가소
표적일랑 주고가소
뒷동산 치치거든
금산바우밑에 귀목나무
가지가지 죽거들랑
날죽은줄 알고있게
알었다 일이거든
잿반에 푸른동전 지치거든
날죽은줄 알고있게
한모랭이라 돌아가니
제중장수 앉았구나
한모랭이라 돌아가니
까막까치 진동하네
삼시모랭이 돌아가니
오내가심 총구녕가

[제보자: '총구녕가' 총 맞아 죽었다 이러거든.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하늘에라 대황범아
우리집에 가시거든
편지한장 전해주소
우리아버지 받은밥상 밀치놓고
악성통곡 하실랑가
우리엄마 받은밥상 밀치놓고

악성통곡 하실랑가
우리누님 받은밥상 밀치놓고
악성통곡 하실랑가
우리안해 지은창후
이리땎아 저리땎아 다딱아

[제보자: '저거 마누라가 지은 창후를 눈물 닦아 다 써뿔라나' 이런 뜻이거든. 그래 인자 저거 마누라가 답배를 하는 기라.]

하늘에라 대황범아
우리낭군 안오던가
오기사 오지마는
칠성판에 실리오데

[제보자: 죽었다 말이다. 요새 뭐냐 칠성판에 혼백이 실려 온다 이 말이야. 그래 인자]

칠성판에 실리오데
뒷동산 치치보니
금산바우밑에 귀목나무
가지가지 죽었거나
임죽은기 적실하다
아랫방채깐에 드다보니
푸른동이 치치구나

[제보자: 씨아바이한테 하직하는 기라.]

알방문을 반만열고
아버님도 하직하소
서울이라 하는데는
부녀들은 몬가는가
울방문을 반만열고
어머님도 하직하소
서울이라 하는데는

부녀들은 몬가는가
[제보자: 이래 놓고 인자]

짓마붙은 적삼입고
말마붙은 치마입고
상투머리 집어얹고
신은벗어 손에들고
잔솔밭에 토닥토닥
올라가니 우리낭군 죽었구나

[조사자: 아, 고.] [제보자: 그래 인자 옛날에 사상꽃이 있거든.] [조사자: 노래를 하셔야죠, 노래를.] [제보자: 설명을 할라니까 잘 안되네. 어휴, 조금 쉬었다 하자.] [조사자: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조사자: 이 노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보자: 이게 제목이 있긴 있는데 내 제목을 확실히 모르거든. 성주풀이는 아니고.] [조사자: 괜찮습니다.]

잔솔밭에 토닥토닥 올러가니
요전에도 사람사연
일당꽃이 금산에도 솟아났네
한싱이를 꺾어서
품안에다 딲아옇고
두싱이를 꺾어서
머리에다가 꼽아두고
삼시싱이 꺾어서
손에다가 들고
잔솔밭에 올라가니
우리낭군 죽었구나
한싱이를 씨시보니
훈기가 돌아오네
두싱이를 씨시보니
네마디 숨질소리 나는구나
삼시싱이 씨시보니
어히잠도 너무과히잤네

[제보자: 인자 그 저거 남편이 살아 일났네. 그 꽃을 씨시가지고, 세 송이를 씨시가 살아 일난 기라. 저거 남편이 살아 일라(일어나) 하는 소리가]

여호로세 영호로세
까막깐치 노는길에
자네오기 영호로세

[제보자: 총소리… 남게 까막까치 오는 게 만날 오는 게 만날 오는 게 영혼이라 이기라. 영혼이라 이 말이야.]

몬가겠네 몬가겠네
노자없어 몬가겠네
아홉폭 주춧단치마
일곱폭 주춧단치마
헌거는 닷냥이요
새거는 열냥이요
열닷냥주고 처마저고리사소

[제보자: 전부 그(그것)를 받아가지고,]

남자는 팽말타고
여자는 백말타고
집에라꼬 돌아와서
알방문을 반만열고
아버지한테 곱배드니
천금겉은 내자식이
만금삭에 다니오도
당돌밧슨 미누리년은
봄삼년을 못참아서
소리살짝 가고없네

[제보자: 그래 인자 앞 방문을 반만 열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니, 천금 같은 내 자식이 만금같이 대니오도 당돌밧은 며느리는 봄 삼년을 못 참아서, 남자 사겨 봄 삼년을 못 참아서 소리를 작작하고 없다 안카나.] [조사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 살릴 끼라고 살랴(살려) 같이 왔는데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온 걸 모르고 며느리가 도망갔다, 이래 생각하는 거 맞지예? 잘 알지예?] [제보자: 맞어. 그래 놓고 인자 저거 아들 하는 소리가, 저거 마누라는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기라.]

껌둥석을 내패치고
흰맹석을 드리씌고
천도설화 담패담고
청둥하리 불떠놓고
화주설대 뻗치놓고

[제보자: 그때는 담배설대라.]

아버지가 날살맀소
어머니가 날살맀소
누부니가 날살맀소
우리아내 날살렸지

[제보자: 그때 저거 마누라 궁디(엉덩이)를 탁 칭께 쭉 들어오는 기야. 그때야 경사가 난 기라.]

천금같은 내미느리야
쾌지나칭칭나네
만금삭에도 열녀로다

[제보자: 인자 이까지.] [청중들 박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70쪽~2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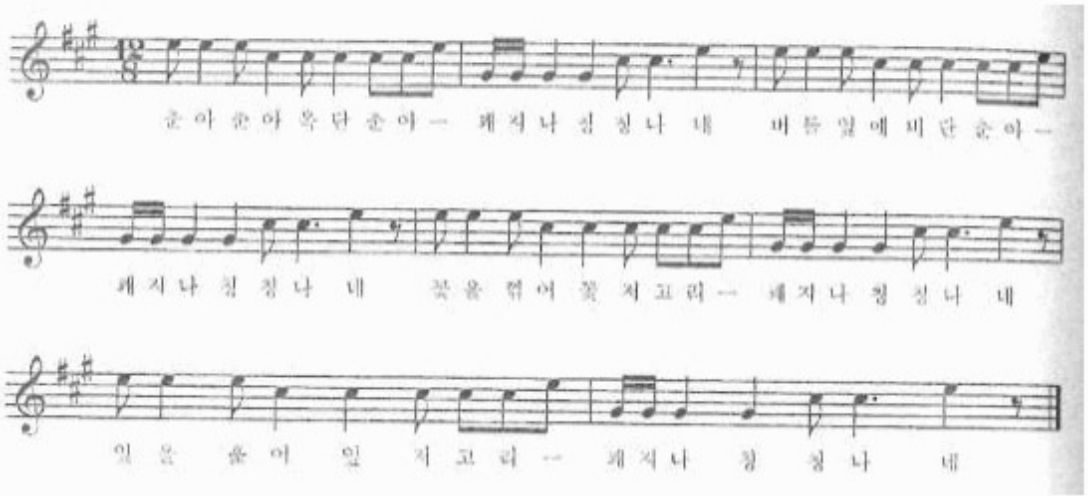
[연제구 민요 9]

쾌지나칭칭나네[C28]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처음에는 노래로 부르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을 다시 청하여 들었다. 매우 흥겹게 부르며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였다. 뒷소리는 청중들이 받아 주었다. *



춘아춘아 옥단춘아
쾌지나칭칭나네
버들잎에 비단춘아
쾌지나칭칭나네
꽃를꺾어 꽃저고리
쾌지나칭칭나게
잎을훑어 잎저고리
쾌지나칭칭나네
전주비단 접저고리
쾌지나칭칭나네
알송달쏭 지어입고
쾌지나칭칭나네
모양방을 놀러가니
쾌지나칭칭나네
이색같은 저처녀가

쾌지나칭칭나네
누간장을 녹힐라고
쾌지나칭칭나네
저리곱기도 생겼던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0쪽~281쪽.

[연제구 민요 10]

모심기소리4[C29]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혼자서 불렀다.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불렀던 것이다. *

산수야아초롱에 불케들고 첩우야방을 놀로가자
너도둡고 나도눕고 초롱에등불 누가끄랴

머리도좋고 곱운처녀으이 등세고울만 넘어가리
오명가며 빛만비고 대장부간장 다녹히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1쪽~282쪽.

[연제구 민요 11]

모심기소리5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앞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어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의 고향인 창녕 지방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

서마지기를 이논배미 반달둥실 떠나가니
지가무슨 반달인데 초승달이 반달이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2쪽.

[연제구 민요 12]

모심기소리6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다 부르고 나서 앞소리와 뒷소리로 대를 맞춰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

모야모야 나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조사자: 어찌 이렇게 소리가 좋으십니까, 할아버지] [제보자: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기 앞소리고,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이기 뒷소리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2쪽~283쪽.

[연제구 민요 13]

청춘가2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노래말 속에는 고향 창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조사자가 이 노래를 권주가냐고 물었더니 청춘가라고 답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춘복을 떨쳐입고
중경을 찾아가니
실종의 명화로다
창영의 동화로다
소식왔네 소식왔네
어떤소식 와싰던고
봄소식이 와셨다
동자야 술부어라
정다운친구 서로앉아
술잔이나 재끼보자
일배일배 부일배라
춘풍삼월 좋은날에
아니놀고 뭐하랴
꽃튼피어 만발하고
잎은피어 휘어진다

[조사자: 이게 권주가입니까, 청춘가입니까?] [제보자: 이게 권주가 아니고 청춘가.] [청중: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은 빵점이더니 이건 우야(어떻게) 잘 외어가지고 말야. 웃음] [조사자: 요새 학교 다녔으며 국어성적 잘 받으셨을 텐데.] [제보자: 그치? 인자 그만합시다. 자꾸 하라꼬?]
[조사자: 예, 아시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자: 옛날에 촌에서 논매기할 때 앞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맨날 따라만 했제.]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3쪽~284쪽.

[연제구 민요 14]

논매기소리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조사자가 논맬 때 부르는 소리를 들려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줬다. 그러나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만 논매기소리를 시작할 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 여겨져 그대로 보고한다. *

고쉬이어~

[제보자 : 이라거든.]

굽이굽이 돌아간들

[제보자: 이래 나오거든.] [조사자: 아, 그렇게 하셨어예? 밭매기나 김매기나 한 가지만.] [제보자: 밭매기노래나 김매기 노래나 전부 한 소리다. 밭매기는 여자가 많이 하고.]
[조사자: 예, 어르신, 보리타작노래는 안 하셨습니까? 참 힘 있고 좋던데예.] [제보자: 그거는 안 배웠어. 일꾼들 짝 옆에 세워놓고 앞소리 매기면 한다 아이가.] [조사자: 참 신난다 아닙니까?] [제보자: 그거는 안 배웠어.] [조사자: 그럼 옛날에 집 지을 때 집터 다지는 소리 안 했습니까?] [청중: (농담조로)에, 엉터리요 순 엉터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4쪽~285쪽.

[연제구 민요 15]

목도소리

T. 연제 1-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역시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렀으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 노래를 부른 뒤에 여러 가지 노래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

어야뒤야
어야뒤야
어 어야뒤야

[제보자: 이래 나오거든. 목도 메고, 어야뒤야 어 어야뒤야.] [조사자: 나무할 때 하는 소리가 있다 하데예.] [제보자: 그것도 내나 발 마치(맞추어) 가지고, 어야뒤야 어야뒤야 어.] [조사자: 발맞쳐 가지고 예? 어르신, 그 여자노래는 모르시지예? 김쌈노래 같은 거.] [제보자: 베틀노래?] [조사자: 삼삼기노래도 여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리고 맷돌도 여자노래고, 방아찧는 노래는예?] [제보자: 그것도 전부 여자노래제. 그러면 저기 옛날에 땅다지는 소리, 집터 다지는 게 매 한가지다.] [조사자: 달구소리도 그런 건가예?] [제보자: 다 같은 거지.] [조사자: 널뛰기노래 모르십니까? 할아버지 기왕에 하시는 김에 여자들 노래까지 다 해주세요. 그네뛰기도 있고, 엿날리기 노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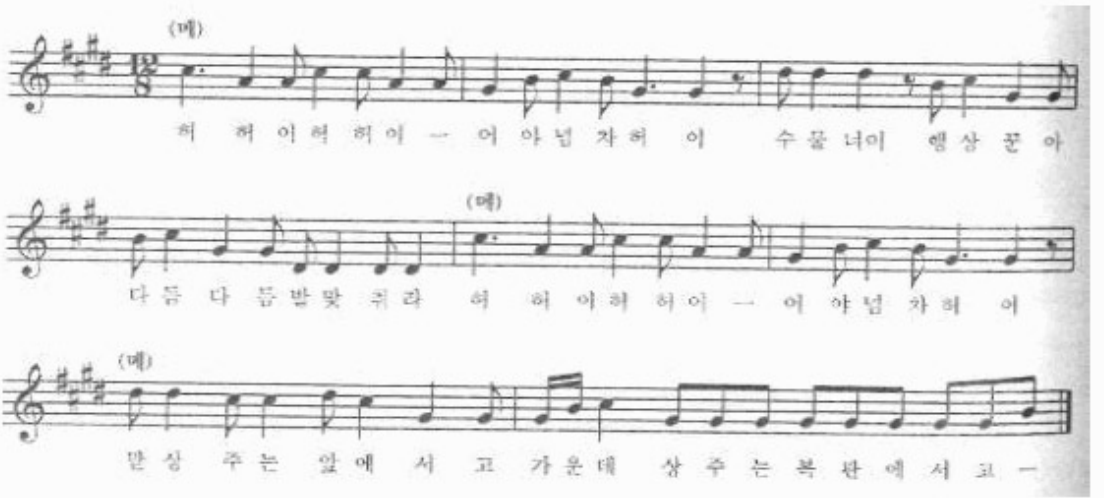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5쪽~286쪽.

[연제구 민요 16]

운상소리[C30]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소리를 하고 나서 후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제보자는 후렴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뒷소리까지 혼자서 불렀으나 청중들도 따라 부르기도 했다. 원래는 선후창으로 부르는 것이다. *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어이
수물너이 행상꾼아 다듬다듬 발맞춰라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이
맏상주는 앞에서고 가운데상주는 복판에서고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허이
맏상주는 급질상주 가운데상주는 호갈상주
끝에상주는 눈물상주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허이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저건너저산 북망산천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허이
저승길이 멀다해도 문앞이 저승길이네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허이
저승길이 문같으면 열고닫고 하지마는
허허이 허허이 어야넘차 허허이
저승길이 길앞이면 오며가며 보지마는
헤헤야 헤헤야

[제보자: 인자 그만 그만.] [조사자: 할아버지 그 "어허 넘차" 그거는 뭐하는, 그냥 후렴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보자: 그거는 인자 앞소리에 맞춰보는 소리다.] [조사자: 의미는 없고예?] [제보자: 그렇지. 의미는 없지. "헤 헤"하면 인자 상여꾼이 밀고 하면 "헤 헤" 맞잖아.] [조사자: 박자 맞춘다고예. 논매기소리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무(거미)야 왕거무야" 장기타령 안 들어보셨습니까?] [청중: 각

설이타령?] [제보자: 장기타령이 그게 각설이타령인가?] [조사자: 장타령이라고예, 모르십니까? 옛날에 자장가, 할아버지도 하십니까?] [제보자: 할매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조사자: 할아버지가 하셨습니까? 어르신은 아아 재울 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6쪽~287쪽.

[연제구 민요 17]

아기재우는소리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조사자가 아기재우는소리를 불러 달라고 하자 할머니들도 부르고 할아버지들도 부른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줬다. 다 부른 뒤에 청중과 더불어 앞에서 노래한 운상소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

앞집개야 짖지마라
뒷집개야 짖지마라
우리강생이 잘잔다

[조사자: 강생이예?] [제보자: 우리 아기 잘잔다.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

자장자장 자장개야
앞집개야 짖지마라
뒷집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잘잔다

[청중: 뒷소리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 북부지방에는 그리 안하거든.] [조사자: 그러면 뒷소리가 어찌 다른데요?] [청중: 북부 저 가면 '너화 넘차 너화 훠' 이리 나오는데.] [조사자: 아, 다르네요. 그지예? 어찌 그리 다를까요?] [청중: 모심기소리는 북부지방과 비슷한데 "헤 헤 헤라 영차" 이리 나오거든.] [조사자: 북부지방이

더 느리네요. “너화 넘차 너화 휴”. 숫자풀이노래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청중: 그건 알지.] [조사자: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8쪽~289쪽.

[연제구 민요 18]

화투풀이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독창으로 불렀다. 화투를 치며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월솔가지에 송송한맘에
이월매달에 맺아들고
삼월사쿠라 산란하니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날에
유월목딱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눕어
팔월동산에 달도밝고
구월국화 굳은맘이
시월단풍에 씨러지고
허송하다 허송하다
동지섣달 긴긴밤에
홀로자기 허송하다

[제보자: 이런 노래다.] [조사자: 어르신 그 노래 제목을 뭐라 하시는데요?] [제보자: 화투노래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89~290쪽.

[연제구 민요 19]

산골중이 동낭왔네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중이 동냥 와서 남의 부인을 넘겨다보는 노래라고 설명해 주었다. 매우 흥겹게 불렀다. 독창으로 불렀다. *

동냥왔네 동냥왔네
산골중이 동냥왔네
지넘우중 거실봐라
대문밖에 섰다가
대문안에 들어서서
동냥왔네 동냥왔네
산골중이 동냥왔네
지넘우중 거실봐라
대문밖에 섰다가
문지방밑에 썩들어서서
동냥왔네 동냥왔네
산골중이 동냥왔네

[제보자: 안주인을 넘바다(넘겨다) 보는 거라.] [조사자: 나쁜 중이네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0쪽.

[연제구 민요 20]

청춘가3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자청하여 혼자서 불러 준 것이다.

꿈아 무정한꿈아
오시던이를 와보냈노
오시던이 보내질말고
잠든나를 깨어주지
간밤에 꿈좋다더니
임우님께서 편지왔네
핀지사 왔더라마는
님은와그리 못오시나
동자야 먹갈아라
임우에게를 답장씨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1쪽.

[연제구 민요 21]

청춘가4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앞의 노래에 이어 같은 곡의 이 노래를 자청하여 불러 주었다. 매우 흥겹게 불러서 청중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독창으로 부른 것이다. *

영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야 돌고
부산에 큰애기가
나를안고나 돈다
어르마동떼 동다디여라
아니나 못노리로구나

열님이 꺼꾸러지도
나는 못노리라

[조사자: 어찌 그리 힘차게 부르십니까?] [청중들 환호]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1~292쪽.

[연제구 민요 22]

모심기소리7[C31]

T. 연제 1-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노래가 끝나자 청중들은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는 반응이었다. 원래는 주고받기 식으로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가 독창으로 불렀다.*

머리도좋고 고운처녀 울뽕남게서 슬피우네
울뽕줄뽕 내따줄게 명지야도포 나를주게

[청중: 여태까지 부르는 소리가 가사만 다르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2~293쪽.

[연제구 민요 23]

모심기소리8[C32]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해가 질 무렵에 부르는 모심기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원래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는 것이나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다 부르고 나서 노래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

[제보자: 해 다 질 때 하는 노래다.]

서어리 어데갔노
서어리 산에갔다
오시거든 보고가지
뒤떤들 보고가지
앞집에 감자정자
뒷집에 유자정자
유자나할마씨 노들정자
어어그정자 좋을신데

[조사자: 모심기하고 저녁때예?] [제보자: 으응, 저녁때 하는 기라.]

오늘해는 다졌는데 산골마작 연기나리
우리할마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제보자: 오늘 해가 다 졌는데 산골마다 연기가 나는 기라.] [조사자: 이것도 모심기하고 시마이할(끝마칠) 때 하는 소리라예?] [제보자: 저거 할마이가 어디 가고, 딴 집에 보니 연기나고 펄펄, 우리 집은 연기가 안 올라오니까 '우리 할멈은 어디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네'] [조사자: 서럽어서 하는 노래라예. 뭐 또 생각나는 거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3~294쪽.

[연제구 민요 24]

모심기소리9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자청하여 계쏙 모심기소리를 불러줬다. *

농청해청[340] 저비륵끝에[341] 무정하다 내오랍아
나도죽어서 후시상가서[342] 낭군한번 심기볼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4쪽.

[연제구 민요 25]

모심기소리10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나는불씨 탁탁쳐서 담배야한대 묵어보자'라구 댓구 없이 혼자서 부르는 것은 모를 심다가 잠시 쉬자고 하는 뜻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

[제보자: 나는 불씨, 아아, 옛날에 생활이 불씨거든. 이 짝에 탁 쳐서 저 짝에 붙였거든.]

나는불씨 탁탁쳐서 담배야한대 물어보자

[제보자: 첫 번에는 담배고 뒤에 번에는 담배 아이고.] [조사자: 담배 불씨네요.] [제보자: 모 쉴 참에(모심기 쉬는 틈에)하는 기라. 아아, 한 차례 쉴 참에.] [조사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제보자: 그 다음에]

나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눕었으니

340) 넘실넘실.
341) 저 절벽 끝에
342) 후 세상. 즉, 저승

나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눕었으니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5쪽.

[연제구 민요 26]

청춘가5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모심기소리와 진주난봉가가 조합된 듯한 노래이다. 제보자는 이 노래를 청춘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합기능요가 단일기능요화 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노래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독창으로 불렀다. *

시우올키 꽂다가[343]
한강수에 떨어졌네

[제보자: 그래 가지고 치러보니(쳐다보니)]

서울갔던 우리오빠
올멍들명 내려온다
한쪽손에 잡책들고
한쪽손에 연필들고
올명들명 내려오네
동생손목을 덥썩쥐어
한강수에 내던지고
처자손목을 덥썩쥔다
무정하다 내오랍아
꽃같은 요내몸이
고기밥이 된단말가

343) '꽃 따다가'인 듯.

나도죽어 군자가되아
처자한번 심겨볼래

[조사자: 그것은 청춘가.] [제보자: 시누 올케 꽃 따다가 시누 올케 꽃을 따러 가가지고 어떻게 미끄러져뿠는 기라. 밑에 한강수에 떨어져뿠는 기라.] [조사자: 꽃 따러 갔다가예?] [제보자: 꽃 따러 갔다가 저거 시누 올케가 꽃 따러 갔다가 한강수에 미끄러 떨어져뿠네. 그래가지고 서로 발버둥을 치는데, 참 쳐다 보니까 서울 갔던 오라비가 흘명들명 내려오는 기라. 내려오면서 한쪽 손에 연필 들고, 한쪽 손에 잡책 들고, 동생 소쿠리는 덥썹 물에 다부(다시) 던져 블고(버리고) 마누라를 살려. 마누라 소쿠리를 덥썩 지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무정하다 내 오라바 내 꽃같은 몸이 고기밥이 된단 말가. 그래 나도 죽어서 군자가 되어 저거 마누라 한번 챙겨 보겠다' 이기라.] [조사자: 꽃 따다 떨어졌네요.]
[제보자: 응, 꽃 따다] [조사자: 그 사람은 어째 할아버지처럼 동생을 안 구하고 마누라를 구해 이런 얘기를 다 하게 합니까?] [제보자: 갑작스레 생기니까 마누라를 구해주지. 깊이 생각하면 동생을 구해야 되는 기라.] [조사자: 혈육인데요?] [제보자: 죽고 나면 동생은 한번 다시 낳을 수 없는 기라. 젊어서면 몰라도. 마누라는 장가가면 마누라고 자식은 낳으면 자식인데.] [조사자: 뭐 맞습니다. 같은 피가 몸에 도는데, 그지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5~297쪽.

[연제구 민요 27]

그네뛰는소리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독창으로 불렀다. 요사의 뜻을 "줄이 떨어져뿌리면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실제 그네를 뛰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라고 했다. *

[청취불능] 무지난데
오색가지를 군디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띠면은 임이미네
임아임아 줄잡지를마오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제보자: 줄이 떨어져뿌면 정도 떨어진다.] [조사자: 그네뛰기 노래지예. 그네 탈 때 하던 노랜가예?] [제보자:그래 남자가 밀어주고 그래 인자 줄 떨어지면 정 떨어진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7~298쪽.

[연제구 민요 28]

인사노래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독창으로 불렀다. 모임자리에서 인사를 대신하는 노래라고 하였다. 혼자서 불렀다. *

좌중에 초면이요
만물지중에 인사로되

[제보자: 이게 인자 어디 놀러 가서 인사 노래거든.] [조사자: 인사하는 노래라예?] [제보자: 인사하는 노래거든. 좌중에 초면이거든. 처음 만나니까 전부 초면이거든.]

좌중에 초면이요
만물지중에 인사로되
잘하면 찬성이요
잘못하면은 흉이로되
잘하든지 몬하든지
좌중에손님들 용서하소

[제보자: 잘 하든지 못 하든지 방안에 든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 이기라. 잘하면 찬성이고 못하면 흉이거든.] [조사자: 딴 사람들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나 보지요?] [제보자: 모인 자리에서 인사노래 내는 이 노래를 많이 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지. 바람 불고 비 날릴 때 이걸 왜 몰라.] [조사자: 이건 진짜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들어 봤는데예.]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8~299쪽.

[연제구 민요 29]

노랫가락1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노래말의 내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부산의 지명이 등장하는 토속적인 내용이다. *

고기가그리워 죽은사람
자갈치복판에 묻어주고
임이그리워 죽은사람은
완월동골목에 묻어주고
술이그리워 죽은사람
양조장앞에 묻어주고
돈이그리워 죽은사람
한일문앞에 묻어주고
내가그리워 죽은사람
우리집문앞에 묻어주고
처녀가그리워 죽은사람
조방문앞에 묻어주고

[제보자: 그것 전부 다 아는데 왜 모른다 캐쌓노?] [조사자: 처녀가 그리워 죽은 사람은 어디에 묻는다고예?] [제보자: 조방문 앞에. 옛날 자갈치 앞에 조방 있었

거든. 조방에 나오면 처녀들 많이 나온다 아이가. 그냥 노랫가락 비슷한 거.]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99~300쪽.

[연제구 민요 30]

노랫가락2

T. 연제 2-앞.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앞의 노래에 이어 같은 가락의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 중간에 노래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

할매영감 정들기는
담배야 꼭따리

[제보자: 인자 영감 할매 옛날에 담뱃대 아이가.]

할매야영감 정들기는
담배야꼭따리 정이들고
과부호부래비 정들기는
공단이불속에서 정이들고
처녀총각 정들기는
저건네 보리밭에서 정이들고
니하고내하고 정들기는
막걸리잔에 정이든다

[조사자: 막거리잔에예?]

니한잔내한잔 정이든다
막거리한잔에 정이든다

[제보자: 영감 할매는 단배를 푸니까 담뱃대 서로 나눠주니까 정이 들고, 과부 호부래비는 공단 이불 속에서 정이 들고, 총각 처녀는 보리밭 속에서 정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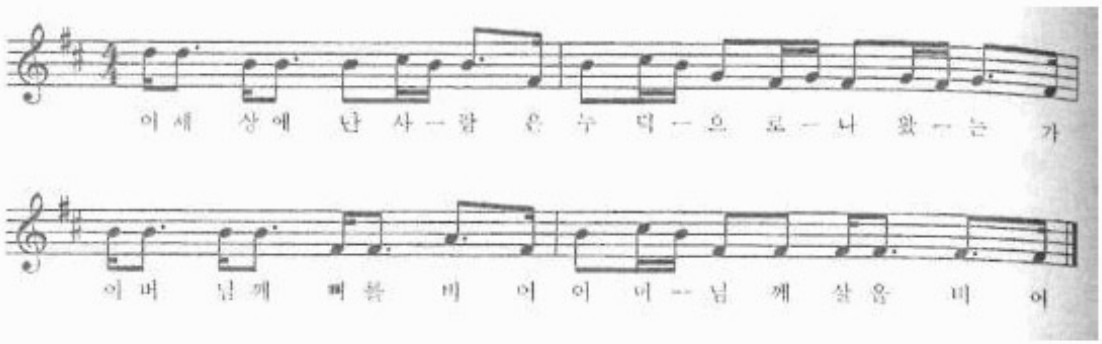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0~301쪽.

[연제구 민요 31]

아기어르는소리[C33]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르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하며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독창으로 불렸다. *



[제보자: 할배가 손자 어루는 기라.]

이세상에 난사람은
누덕으로 나왔는가
아버님께 뼈를비어
어머님께 살을비어
칠성님께 공을들이
부처님께 명을받아
온자동아 금자동아

사랑방에 봉래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랴
금을준들 너를사랴
하늘에서 널찠나
땅에서 솟았나

[제보자: 자기 며느리가 머슴아를 놓으낀께, 원래 아버님 삐거든 어머님 살이거든. 그래 인자 나오는 기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1~303쪽.

[연제구 민요 32]

청춘가6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신세 한탄조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칭칭이 앞소리로도 부른다고 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가요가요 나는가요
천리타향에 나는가요
만리가도 따라가요
천리가도 따라가요
기차떠난 서울역에
검은연기만 남어있고
배떠난 인천항구
바닷물길만 남아있네
임떠난 빈방안에
담배야꽁추만 남아있네
못살겠소 못살겠소
임없는 요시상에

누를믿고 산단말가

[제보자: 앞소리도 되고 노래도 되고 다 되는 기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3~304쪽.

[연제구 민요 33]

청춘가7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자청하여 부른 것이다. 제보자는 계속하여 임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독창으로 부른 것이다. *

[청취불능] 연당안에
잠든큰아가 문열어라
바람불고 비올직에
날올줄모르고 문닫았나
치다보아라 기러기반자
내려다보아라 도배장판
공단이불 접치놓고
두자두치 지은비게
머리맡에 던지놓고
새별같은 금요강을
발치밑에 밀치놓고
둥실둥실 놀아보자
두몸이 한몸이되어
두둥두둥실로 놀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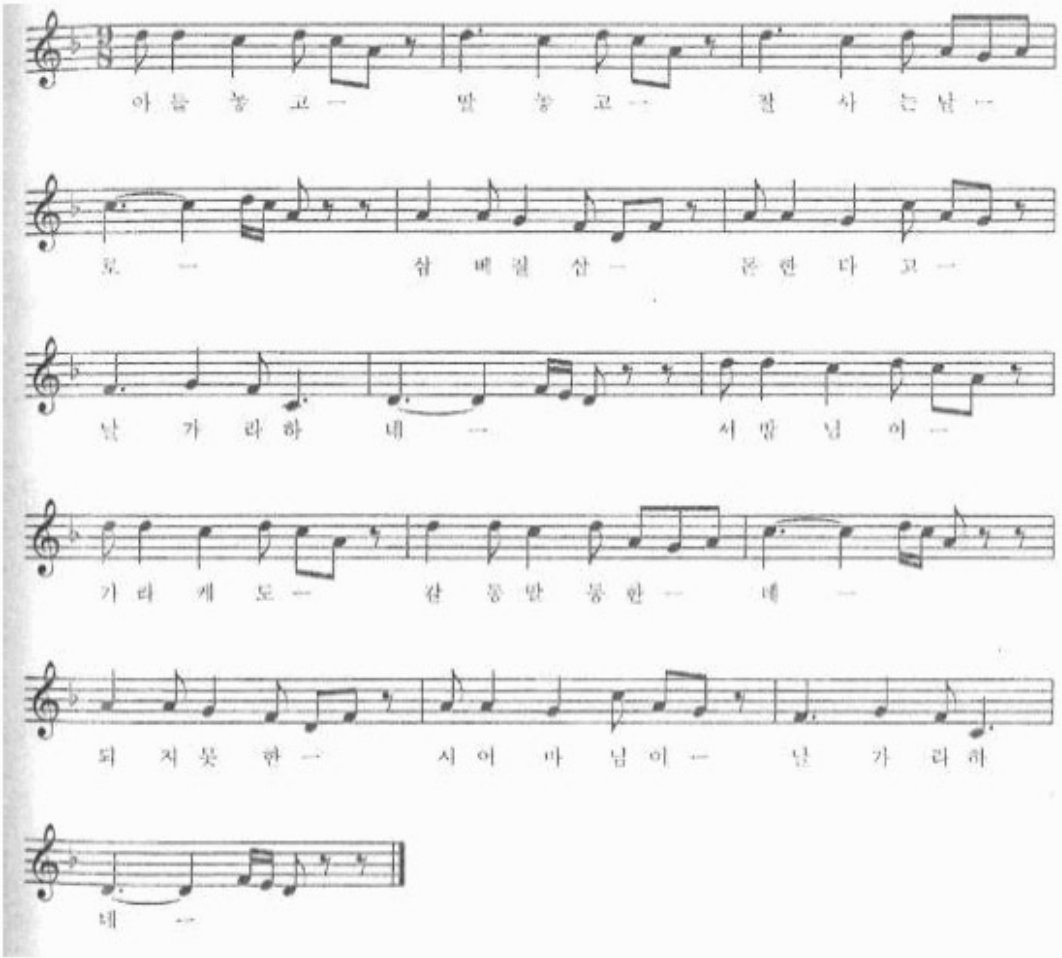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4쪽.

[연제구 민요 34]

노랫가락3[C34]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명(남 · 70세).

* 제보자는 이것을 노랫가락이라 했으나 밀양아리랑 가락에 맞추어 불렀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거한다는 내용이다. 독창으로 불렀다. *



아들놓고 딸놓고 잘사는날로
삼베질삼 몬한다고 날가라하네

서방님이 가라케도 갈동말동한데
되지못한 시어마님이 날가라하네
삼동시야 사동시야 어서모이라
시어마니 잡아뭉쳐서 단지고옴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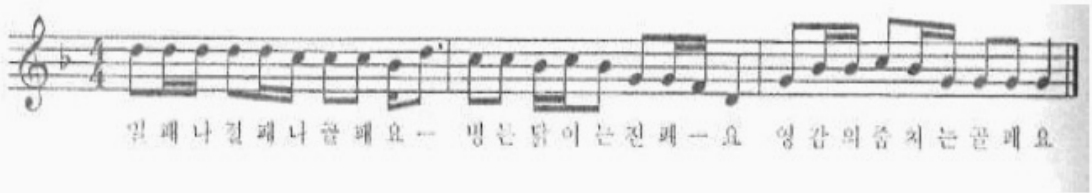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5~306쪽.

[연제구 민요 35]

각설이타령[C35]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5.
김상용, 백경숙 조사.
성진영(남 · 70세).

* 제보자는 이 노래를 '패각설이타령'이라고 했다. 제보자가 고향 창녕에 있을 때 배운 것이라 한다. 독창으로 불렀다. *



[제보자: 패각설이타령이다.]

일패나절패나 골패요
병든닭이는 진패요
영감의줌치는 골패요
까불락까불락 조리는
정지간에 놀이개요
이라좌라 홀칭줄
큰머슴그게도 놀이개요
우리함매 놀이개는

물레꼭따리 놀이개요
우리엄마 놀이개는
화죽설대가 놀이개요
가지크다 대구장
무삽아서도 몬가겄고
풀었다 홍해장
미끄라봐서도 못가겠고
우깨우깨 우깨장
우깨그래서도 못가겠고
시브적시브적 심훈장
시브적그래서도 못가겠네

[조사자: 각설이타령을 어디서, 내나 시골에서 들었어요?] [제보자: 그래, 시골에서.]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6~307쪽.

[연제구 민요 36]

모심기소리11

T. 연제 2-뒤.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노인정, 1999. 10. 17.
김상용, 백경숙 조사.
김옥련(남 · 80세).

* 할머니들로부터 민요를 듣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노래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파편에 불과하다. *

서마지기 논배미는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승날이 반달이제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307~308쪽.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1) 부산진구 민요

[부산진구 민요 1]

아기 재우는 노래 / 새는새는 낭게자고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아기 어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가사가 재미있었는지 청중들도 웃으면서 경청하였다.

새는새는 낭게자고
쥐는쥐는 궁기자고
엉클방클 할머니는
영감품에 잠을자고
어지옸던(어제 왔던)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 잠을자요

[부산진구 민요 2]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창부타령을 한 자락 부르기 시작한 후, 가사가 계속 기억이 났는지 연속으로 불러 주었다.

하늘같이 높은사랑 하해와 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왕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사랑
구년진수 신장바에 햇빛같이도 반긴사랑

당면하에 양귀비요 이도롱에 춘향이다
일년삼백 육십일에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3]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너냥 나냥>을 부르자 청중들도 흥겹게 함께 따라 불러 주었다.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 지느냐-
날두고 가신님은 가고싶어 가느냐-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구나

옥당루 주적사 첫물에 좋고요
새처녀 새총각 첫날밤이 좋다네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구나

놀다가 가세 노다가 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노다가 가세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구나

신장로 넓어서 집가기 좋구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구나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장로 내리다리 뽀뿌라 나무는
쉴때를 따라서 단발하구나

[웃음] 거기 인자 사꾸라나무.

[부산진구 민요 4]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한 곡을 부른 후 이어서 다음 <창부타령>을 불러 주었다.

노세좋다 젊어서 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일생은 일장춘몽에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5]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좌중에 묻자 제보자가 나서서 <청춘가>의 곡조로 여러 편 연속해서 불러 주었다.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좋~다 허송을 맙시다~

술이라꼬 먹거든~취정을 말고서~
임이라꼬 만나거든 좋~다 이별을 맙시다~

당신은 반다시 본처가 있다면~
외롭다 요몸은 좋~다 갈곳이 없구나~

술과 담배는~ 나심중 알아도~
한품에 든님도 좋~다 나심중 모르더라~

바람불어 쓰러진 남기~눈비온다고 일어나니
만년에 병들어 누여난 사람 약을 씬다고 일어날소냐

백양산 꼭대기~ 외로이선 나무~
날캉 같이도 좋~다 외로이 섰구나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으지~
조그만한 여자속에 좋~다 깊을속 없더라

산중에 큰것도~ 원통타 하는데~
도래도래 돌산중에 좋~다 내어짠 말이냐~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 지느냐~
날두고 가신님은 좋~다 가고싶어 가느냐~

[부산진구 민요 6]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도라지타령>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다음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반상만 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사리살살 다녹는다

[부산진구 민요 7]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어렸을 때 많이 부른 <다리 세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손으로 다리를 치며 장단을 맞추어 천천히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온도맹도 도맹도
짝두리 히가네
도래줌치 장두칼
머구밭에 덕사리

[부산진구 민요 8]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청중들이 불매소리를 해보라고 권하자, 제보자는 직접 아기를 어르는 것처럼 다리를 펴서 양팔을 흔들며 구연해 주었다.

[양 팔로 안아서, 앞뒤로 움직이며]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맨고
경상도 대불맨가
후두락 딱딱 대불맨가

[부산진구 민요 9]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보리타작 노래를 부탁하자 제보자는 일어나서 보리타작을 하는 흉내를 내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혼자서 메기고 받는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속해서 부른 것이다.

어하
밟아라 밟아라
밭보리 이삭을 밟아라
요리받고 저리받고
때리고 때려고 밟아라
어화 우아

[일어나서, 보리타작 하는 흉내를 내며]

에화
때리고 때려라
요리 조리
때리고 때려라

[부산진구 민요 10]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각설이 타령>을 잠시 부르다가 <화투타령>이 생각이 났는지,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리 내상하네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리난 나비
육월목단에 꿈돌아들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오동장농 값많다한들~
비삼심오륙을 당할소냐

[부산진구 민요 11]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모심기 노래를 짧은 소리로 가사를 읊듯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리고 다시 긴 소리로 모심기 노래를 불러 주었다.

땀빡땀빡 수제비는 사우상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딸의동자 시킸던고

오늘해도 다졌는가 골골마중 연기나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묵으로 내가가요

[부산진구 민요 12]

진주난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KHI_001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학임,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가사의 운을 띄어주자 제보자는 그제서야 가사가 기억났는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오마시 하시는말씀 아아아가 우리아가
너거낭군을 볼라면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야남강에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돌도좋네
하늘같은 서방님이 구름같은 갓을씌고
태산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도 지나가네
검은빨래 검기하고 흰빨래 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오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을 볼라면 아릿방으로 니려가라
아릿방을 니려가니 백옥같은 술잔을들고
기생아잡년이 누워있네
웃방에다 올라와서 열두가지 약을먹고
아릿방에 내려가니 간곳이 없어요

[부산진구 민요 1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N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노정순,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큰 소리로 불러 주었다.

오늘해가 다졌는가~우리할멈 어디를가고~
골골마다 연기낼리-연기낼중 모르는고~

[부산진구 민요 14]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모심기 노래가 끝나자, 이어서 바로 불러 주었다.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구연하였다. 실제 모심기 노래로 부르는 것도 있고, "사래질고~ 내사싫다" 부분은 서사민요가 끼어 든 것이다. 청중들은 노래를 경청하면서 웃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으면서 분위기를 맞

줘주었다.

물꼬청청 헐어놓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첩아첩아 사랑첩아~ 내가너와 좋건만은
우리본댁 간장은 다썩는다

사래질고 너른뜰에~ 갱피훑는 저부인아~
훑던갱피~ 다시훑네
여보낭군 들어보소
내손가락 명은질고 이런고상(고생) 내아니요
당신따라 나도가서 말죽이나- 낋이주고
소죽이나 낋이주고 당신따라 내가가네
말죽도 내사싫고 소죽도 내사싫다
고기도 내사싫다
카더란다.

달막달막~ 수지비는~ 사우판에 다올랐네-
노랑감티~ 삐따기씨고~ 국물씨가 더웃었네~

서울갔던 사부님아~ 우리선부 안오는가
오기사 오지만은 칠성판에 실리오네

아이고답답 내팔자야 우리낭군 청사감사 바랬더니~
칠성판이 우짠일고 아이고 아이고
커더라.

[부산진구 민요 15]

치마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를 구연하다가 흥이 겨운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자진모리장단으로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해서 몸동작까지 넣어가며 재미있게 구연해 주었다.

듣고치매 날재기는(날 적에는)~
비눈볼줄 몰랐더나

오빠리치매 날재기~
오발할줄 몰랐더나

올길치매 날재기~
고랑될줄 몰랐더나

나이롱치매 날재기는~
난리날줄 몰랐더나

삼비치매(삼베 치마) 날재기는~
상주될줄 몰랐더나

다홍치매 날재기는~
시집갈줄 몰랐더나

오빠리치매 날재기~
오발할줄 몰랐더나

[율동과 함께 자진모리장단으로 속도를 빠르게 부르면서]

오빠리치매 날재기
오발할줄 몰랐나~

삼베치매 날재기~
상주될줄 몰랐나

다홍치매 날재기~
시집갈줄 몰랐나~

빤짝이치매 날재기~
번개칠줄 몰랐나

올때치매 날재기~
고랑날줄 몰랐나

나이롱치매 날재기~
난리날줄 몰랐나

[부산진구 민요 16]

각설이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래를 구연했다.

들어왔네- 들어왔네~
각설이가 들어왔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안하고 살아왔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우리행지(형제) 삼행지~
한서제 글을읽어
각설이 재롱보러 다나갔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웃음]

일자로 한장 들고보니~
일리 동동

이자라 한장 들고보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라는데
　어-허 품바라 각설아 [청중 웃음]

삼자라 한장 들고보니~
삼천리밖에 난리가 났어
대포소리가 진동한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사자로 한장 들고보니~
사월이라 초파일날~
부처님 탄생하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오자로 한장 들고보니~
오쭐오쭐 큰아기~
밥돌라고 우짖이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육자로 한장 들고보니~
유월사변에 난리가 나서
오만천지가 다디비지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칠자로 한장 들고보니~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네
　어-허 품바라 각설아

팔자로 한장 들고보니~
올긋볼긋 보깨이꽃
처가가고 친정가고 난리가 났네

구자로 한장 들고보니~
우묵에 가는 구십에 난 노인이

우묵에서 똥싸놓고 뛰비뛰바 뛴다 [웃음]

[부산진구 민요 17]

꽃 좋다 꽃 꺾지 마소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옛날에만 불렸던 귀한 노래라면서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노래를 들었다.

꽃좋다꽃 탐내지말고
모진손을 꺾지마소

모진손을 꺾고보면~
척실부인이(적실부인이) 어데있고-
충신열녀는 오데있노

꽃좋다꽃탐내지말고
모진손을 꺾지마라
모진손을 꺾고보면~
열녀충신이 어데있고-
척실부인이 어데있노

[부산진구 민요 18]

밭 매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불러 주었다. 노래가 너무도 구슬펐는데, 제보자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며 불러 주었다.

살기싫은~시집살이로 살고나니
엄마죽은 부고왔네-
아이고 아이고 울엄마야~
엄마한테 찾아간다
한모리를(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까치소리가 진동하고
두모리를 돌아가니~
까막소리가 진동하네
푸전에 떠서 엄마엄마 울엄마야~
부적을 띠놓고
넘의가문에 나가서러 살았더니
엄마엄마 죄송하요
무슨죄가 많아서
여자몸이 되어서러
엄마공은 못갚고~
엄마엄마 이제 어짠일고
아이고 답답한 내신세야
나는죽어 그릉가서
남자몸이 되어서
부모한테 효도할래

불같은 더운날에~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시시번 메고나니~
엄마죽은 부고왔네~
아이구답답 내신세야~
첫통만통 돌아가서
한모리를 돌아가니
까치소리 진동하고

두모리를 돌아가니
까막소리가 진동하고
부모접역(부모집에) 들어서서
엄마엄마 불러보니
울엄마는 간곳없네
엄마엄마 불러봐도~
엄마소리 간곳없네~이
엄마중을 띠다가
넘의가문에 붙이놓고~
엄마를 못보고
엄마가 올게 못하고
아이구답답 내신세야~
엄마엄마~
나는죽어 서웅가서~이
남자몸이 되어서~
부모공을 갚아볼래

카더란다.

[부산진구 민요 19]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예전부터 불러오던 노래라고 하면서 불러 주었다. 다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어서 불러서인지 긴 소리로 부르지 않고 짧은 선율로 불러 주었다.

농창농창~ 베루 끝에~ 시누올키 빨래씻다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밀양삼당에 떨어졌네

삼단겉은 요내머리~ 무정한 저오랍아~
나도죽어 후승가서 낭군한번 섬기볼래
섬길수는 또있어도~
처장에선 또있어도 챙길사람 또없는데
꽃일랑 건지주고~ 행지는(형제는) 그치뿌네
아이고 아이고~ 울오빠야~ 무정한 울오빠야

카더란다.

[부산진구 민요 20]

가족 자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가사를 잘 몰라 제보자가 옆에서 읊조리고 있자,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큰 소리로 불러 달라고 부탁하였다. 제보자는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일월동동 내아들아~
만고풍경 내자부야
기화요춘 내손자야
일등미생 내딸이야
만고허을 내사우야~
은양반 금양반에 구실담아
살그랍단 내사우야
내딸저건 자네하고
자네정은 내딸주고
백년해로 지내보라
변치말고 살아주면
이장부 가슴이 다풀린다

[부산진구 민요 21]

이방 저방 다 댕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며, 노래를 거듭 불렀다. 그런 후 다시 가사를 생각해서 구연했다.

이방저방 다댕기도~
서방밲이 좋은기 없고
이집저집 다댕기도~
지집밲이 좋은기 없더라

이방저방 다댕기도
서방밲이 좋은기 없고
이집저집 다댕기도
지집밲이 좋은기 없더라

알금삼삼 곱은처지
돌무고개로 넘나드네
오고가고 빛만비고
자고간자리 다녹겠네

[부산진구 민요 22]

신세타령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GY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계연,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쌍가락지 노래를 부탁하였는데, 첫 소절은 쌍가락지로 시작하였으나, 다른 가사의 내용을 붙여 불러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해작질로 닦아내네

신일사 담넘다가
무주일간 죽지마게
한바재를(한 바지를) 째였다네

사랑사랑 내사랑아~
치침바늘 당사실로~
부칠거든 요내손을
보세보세 떼아줄거요

[부산진구 민요 23]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DM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달막,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노래를 듣던 중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인지 함께 불러 주었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을기려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네 논에는 솔방울 여는데
바람아 불어도 뚝떨어진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어서 맛이나 있고요
사람은 늙으면 쓸데가 없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부산진구 민요 24]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DM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달막,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노래를 듣고 나서 갑자기 다음 노래를 구연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노세놀아 젊어서놀아 늙고뱅(병)들면 못노나니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25]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DM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달막,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가 가사의 운을 띄어주자 그제서야 노래가 생각났는지 자신있게 구연해 주었다.

새들새들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린다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아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26]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PDM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달막,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운을 띄어주자 다음 노래를 바로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모두 아는 노래인지 박수를 치며 함께 불러 주었다.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고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만포볼썩 나네요

[부산진구 민요 27]

이갈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D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동순, 여,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어렸을 때 이빨을 지붕에 던지면서 불렀던 동요가 있는지 묻자, 다음 노래를 짧게 구연해 주었다.

까치야 까치야
내 헌니 가지가고
좋은 새이 내 주라

[부산진구 민요 28]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M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묘희,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부끄러움이 많아서인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어더메 날데가 없어서~
요방구 요모습에 나느냐
에헤~라 에헤~라 어야라난다 디여라~
영사연기로~다

[부산진구 민요 29]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지고 애절한 목소리로 불러 주었다.

명주여~ 잔줄받이 못다입고~ 황천가네
팔십당시~ 부모두고 황천가는~ 날만하리

해다지고~ 저문날에~산골마주 연기나네
울언님은 어디가고~이 연기낼줄 모르던공

[부산진구 민요 30]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음 노래의 앞 운을 띄어주자 제보자가 짧게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상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두칼

[부산진구 민요 31]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첫 구절을 불러주며 노래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아는 노래라고 하며 가사를 읊듯이 구연해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이 처일래라
잩에보이 달일래라
그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청두박숭(천도복숭) 오랍에요
거짓말씀 말아시소
나한풍이(남풍이) 들이부니

풍지떠는 소릴래라

[부산진구 민요 32]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래의 첫 구절을 띄워주자 잘 아는 듯이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여서인지 함께 따라 불러 주었다. <창부타령>의 곡조로 연이어 2편을 불렀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롱오도록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도라지병풍 미닫이방에 잠든처녀야 문열어라
바람불고 비온다고 날올줄모르고 문걸었나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민요 33]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창부타령>을 부르고 난 뒤 이어서 <양산도>를 불러 주었다. 노래가 흥겨워 즐거운 분위기에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에헤~이~요~
양산읍네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정든임 나를안고 돈~다
에하라 누워라 아니 못노리~라
너능~기를 하여도 나는 못노리로~다

에헤이요~
세월세월아 봄한철아 오고가지를 마라
아까운 내청춘 다늙어진~다~

강원도금강산 봄팔만구암자 아들딸놓기 좋~은지~
야밤중에 오신손님 괄세를 마~라~
에하라~ 누워라 아니 못노리라
너능~기를 하여도 나는 못노리~로다

[부산진구 민요 34]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는 연이어서 <청춘가>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제보자의 노래에 감탄하여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노세- 놀아라~ 젊어 놀아라~
늙고 병이들면 좋~다 못노리로다~
세월이 가거든~ 지혼차 가지요~
아까운 내청춘~ 다데꼬 가네요~

울넘에 담넘에~ 인심은 높고요~
호박줄 껑거서 좋~다 전화를 거는구나

우연히 싫더냐~ 누말을 들었노~

날만 보면은~ 생짜증 내노야~

오르막 내르막 잔기침 소리는~
자다가 들어도~ 우리영감 소리네~

[부산진구 민요 35]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앞 운을 띄우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소절은 말하듯이 읊었다.

저 건너~ 남산밑에 나무비는 남대룡아
이나무저나무 다비
카더란다.
더라도 초성대하나 비지마소
올키와 내년키와 도리지동(두리기둥) 할라

[부산진구 민요 36]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시작하자, 청중들도 모두 즐거워하며 흥겹게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었다.

오동동~ 춘향에~ 달이동골 밝아~

이내동골 생각이 새로동골 동골난~다~
에하라 누어라~ 아니 못노리라
너능기를 하여도 나는 못노리~다

[부산진구 민요 37]

베 짜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PJH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재화,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울도담도 없는집에"라고 앞 소절을 꺼내자, 제보자는 창부타령의 곡조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주베짜는 저큰애기
그맹주가 참맹주냐 조작조작 잘도짜네

[부산진구 민요 38]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서정순, 여, 8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부르고 나자 바로 이어서 다음 모심기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를 부른 후에 가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집에 주인양반-거동을보소~
서마지기 논배미를 반달같이 이어놓고

살필께를 옆에미고
등넘어라 첩의집에 놀러가네

첩에집은 금붕아요 나의집은 미나리라

그 첩은 암만 좋아도 꽃이기 땜에 지는데, 미나리는 사시사철 미나리인 기라.

[부산진구 민요 39]

숫자풀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S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서정순,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예전에 부른 노래가 있다며 부른 것이다. 숫자에 맞추어 노래를 진지하게 끝까지 불러 주었다.

일자로 한장 아리리다(아뢰리다)
일평석은 우리군자
일가삼촉 보군제도 일부종사 구진마
일신능에 가서러
임난변을 죽사고
일본나변 나리가

이자로 한장 아리리다
이구불사 충신인데
이구불여 열녀란다
이혼혀도 맺인가약
선경명하는 이천리
유찬하는 중심을 두오릿가

삼자로 한장 아리리다
삼생가야 중한몸은
삼월학교 알지마고
사자로 한장 아리리다

사서삼경 성원님대
사육사단 어떤일고
사경안도 바랐더니
사육채질이 왠일이요

오자로 한장 아리리다
오고구행 제일이여
오십삼중 우리동네
오경불경 제일이요

육자로 한장 아리리다
육은비상 춘양절~
묵고놀자 간데~
육신을 찢어주어

칠자로 한장 아리리다
칠석간 견우직녀
연년상봉 하건만은
울언님은 어데가고
칠년도 못오더나

팔자로 한장 아리리다
팔십서이 대구만단
팔백대우 기수한단
팔자상명 춘양추복
팔분님아 굽히리까

구자로 한장 아리리다
구곡에 학이되어
구만장천 높이날아
구곡이 맺힌한을 풀어볼까

십자로 한장 아리리다
십이서로 한숨인데

십에친들 해전하리
십오세야 밝은달이
구름속에 들었구나
하늘님에 맺힌인연
내친다고 허락하리

[부산진구 민요 40]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SK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심경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기억하느냐고 청중들에게 묻자, 제보자가 긴 소리로 구연해 주었다. 구연을 시작하자 청중은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여네

[부산진구 민요 41]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OO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오옥남,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스스로 박수를 치며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처음에는 긴 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으나, 속도를 점점 빨리 하더니 아리랑의 선율로 바꾸어 불러 주었다.

물꼬철철~ 물실어놓고~ 우리낭군님은 오델갔노

문에전복을 손에다쥐고~ 첩의방에 놀러를갔네

[부산진구 민요 42]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OO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오옥남,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모심기 노래>를 부르고는 이어서 다른 가사로 부를려는데, 막상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노래로 부르지 않고 가사로만 읊어 주었다.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모자리 들어내세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네

[부산진구 민요 43]

동지섣달 긴긴 밤에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LS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소복,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혼자 중얼거리듯 다음 노래로 했다. 조사자가 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지만 약간 큰 목소리로 읊어 주었다.

동지섣달 진진밤에 임없이는 잠을자도
이삼사월 진진해에 점심굶고 못살래라

[부산진구 민요 44]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LO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이옥금,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앞운을 띄어주자 제보자가 그제야 생각이 난 듯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작은 목소리로 구연을 하자 청중이 큰 소리로 해라며 소리치기도 하였다.

이물기저물기 다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으로 놀러갔네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마이는 어디가고~ 딸에동~자를 맽깄는공

[부산진구 민요 45]

아기 어르는 노래(1) / 알강달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LOK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이옥금,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다른 제보자가 짧게 구연을 한 것을 제보자가 다시 불러보겠다며 부른 것이다.

알캉달캉 서울가서
빰을한되 사가지고
살강안에 묻어났디
새앙주가 다까묵고
하나 남안거를
껍데기는 애비주고
보늬는 에미주고
알키는 니캉내캉 갈라묵자
알캉달캉 알캉달캉

[부산진구 민요 46]

아기 어르는 노래(2)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LOK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이옥금,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 어를 때에 부르던 노래를 더 구연해 달라고 제보자에게 부탁을 하자, 다음 '불매소리'를 구연해 주었다.

불매 불매
이불매가 누불매고
정상도 대불매가
왈강달강 왈강달강

[부산진구 민요 47]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09_PKS_LOK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이옥금,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첫 구절을 제시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하니, 청중들도 박수를 치면서 모두 함께 따라서 불러 주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도김도 안나고
요내가슴 타는데~ 연개도 김도 안난다
어히야~ 어히야 에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다녹힌다

[부산진구 민요 48]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LJ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정자,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권주가를 듣고 있던 중에 자신이 있었는지 큰 소리로 구연해 주었다. 창부타령 곡조 로 부른 것이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백주~요

[부산진구 민요 49]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LJ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정자,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랫가락으로 그네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춰 주었다.

수천당 세모시낭게~ 늘어진가지다 군데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부산진구 민요 50]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LJ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정자,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도라지타령 1절을 하자,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2절을 시작하였다. 청중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어데 날때가 없~어서~
한바디 등석에 났느냐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여라난다 지화자 좋네
니가 내간장 서리살살 다 녹힌다.

[부산진구 민요 51]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LJ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정자,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첫 구절을 읊어주자, 제보자는 다음 다리 세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맹건 또맹건
짝발로 희양근
도리줌치 사리육

[부산진구 민요 52]

탈 것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JB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전복남,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소극적으로 있었지만, 다른 청중들이 권유하자 용기를

내어 다음 노래를 구연했다. 막상 노래를 부르자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불러 주었다.

영척은 소를타고
청송자는 학을타고
이태백이는 고래타고
일대장군 나귀선타고
우리고을 원님으는
탈것이 없어
조그만한 인력거타고
지근지근 나갈적에
이도룡은 탈것이 없어
춘향이로 탄다요~

[부산진구 민요 5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JB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전복남,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낭창낭창"이라고 가사를 제시하자 제보자는 다음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불러 주었다. 청중들이 잘 부른다며 추임새를 넣어주기도 했다.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우리오빠
나도죽어 후승가여~이 처자한번 지킬라네

[부산진구 민요 54]

물방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4_PKS_JS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조성교,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그러나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게 가락을 만들어 불렀지만, 노래의 가사는 또렷하게 불러 주었다.

방아방아 물방아야
쿵쿵찧는 물방아야
떨어지는 콩에소리
빌새없이 울리면서
한섬두섬 찧어내니
배꽃같은 흰쌀일세
흰쌀갖다 밥을지어
양친부모 보양하세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역락, 2015, 536~576쪽.

2) 연제구 민요

[연제구 민요 1]

상여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D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상여소리>를 부탁하자, 상여노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없어 했지만, 조사자의 부탁에 <상여소리>의 일 부분만 간략하게 구연해 주었다.

가네가네 나는가네

북망산천으로 나는가네
어화 넘차 너화호

북망산이 머다더니
대문밖이 북망일세

하든가 그래 하고.

[연제구 민요 2]

농부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D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농부들의 노래가 있다면서 구연해 주었다.

사해창생 농부들아
일생신고를 원치마라
사농공상 생긴후에
정전지법 생겼으니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연제구 민요 3]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DC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들이 서로 하기를 꺼려하자, 제보자는 자신이 해보겠다며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었다.

에헤헤~이~요-
양덕맹산 흐르는물~은 감돌아든다고 부벽루하로다
삼산은반락에 모란봉이~요 이수중분 능라도라

[연제구 민요 4]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DC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창부타령>으로 부르는 일명 '봄배추 노래'를 아는지 물어보자, 제보자가 그것은 쉬운 노래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러 주었다.

포롬포롬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성춘향이는 이도령올때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연제구 민요 5]

굴뚝새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무척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낸 후에 다음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지 <굴뚝새 노래>를 읊듯이 불러 주었다.

새야새야 꿀뚝새야
부엌으로 쏙드가서
굴뚝으로 쏙나와서
물동이에 날름앉아
물한번 찍어묵고
조래끝이 날름앉자
쌀낱하나 찍어묵고

그래 마 홀 날라가뿌더란다.

[연제구 민요 6]

아기 어르는 노래 / 알강달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앞의 사설을 띄어주자 제보자는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구연했다. 마치 이야기를 해 주듯이 노래 가사를 읊어 주었다.

알캉달캉 서울가서
밤을한되 사가지고
독안에다 여놨더니
머리까진 새앙쥐가
오미가미 다까묵고
다문한개 남안거
부엌에 여놨디
부엌에 여가 꿉어가지고 인자
껍디기는 아버지주고
비늘은 엄마주고
알콩이는 지가 다묿단다(다 먹었단다)

알캉달캉 니캉 내캉 살자 이카면서러.

[연제구 민요 7]

아기 재우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1 : 고계순, 여, 80세
제보자 2 : 손기조, 여, 92세
구연상황 : 고계순 제보자는 다른 청중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며, <아기 재우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기억력이 좋아서 긴 가사로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노래가 끝나자 손기조 제보자가 이어서 한 구절을 더 불러 주었다.

제보자 1 새는새는 낭게자고
쥐는쥐는 궁게자고
땅구땅구 영감땅구
할마이품에 잠을자고
각시각시 고분각시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아기들은
엄마품에 잠을자고

제보자 2 납당납당 송애새끼
돌담밑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아기들은
엄마품에 잠을자고

[연제구 민요 8]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산 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예전에 많이 불렀다며 시원하게 긴 소리로 구연해 주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화생할래
이달크고 흣달크고~ 구시월에 화생하요

유월달이 두달인데 첩을팔아서 부채삼네
구시월이 돌아오니 첩어야생각이 절로난다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엄마 산소등에~ 젖묵으~러 내가가요

아침이슬 채전밭에~ 눈매곱~운 저처녀야
누간장을 녹힐라꼬~ 저래곱기도 생깄던강

[연제구 민요 9]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화투타령>을 부르고 나자, 조사자가 똑같은 노래도 가사가 다르다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스스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정월솔가지 쏙쏙한마~음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흩어지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 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았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춤을추네
동지섣달 설한풍에
꽃을만날리도 임의생각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임도잠도 아니오고
모진강풍이 날속인다

[연제구 민요 10]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를 하는 도중에 가사를 다 까먹었다고 하면서 멈추었다가 스스로 다시 노래를 정리해서 구연했다.

수천당 세모진낭게 오색가지에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소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연제구 민요 11]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랫가락>에 이어서 바로 다음 <청춘가>를 여러 곡 연달아 불렀다.

앞강에 뜨는배~ 물실러 가고요
뒷강에 뜨는배~ 좋~다 남실러 가고요

나를 실어다~ 정든님 주고요~
물은 실어다~ 좋~다 꽃밭에 주세요~

울너매 담넘에~ 꼴비는 총각아~
니언제 커서러~ 좋~다 내사랑 될기냐

꼴은 비다가 떤지놓고, 날 손목 잡고, 그라니끼네, "야이 총각아. 나 손목 놔라. 호랑이 같은 우리 오빠 보면, 우리 오빠 보면 큰일 난다꼬." 그래 그라더란다. 맞다.

울넘에 담넘에~ 꼴비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든~ 좋~다 이떡을 받아라~

떡은 받아서~ 팔매를 치고요~
부채같은 내손목 좋~다 덥석 쥐는구나~

야이 총각아~ 나손목 나여라(놓아라)~
호랑이같은 우리오빠 보면~

큰일난다.

[연제구 민요 12]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권주가>를 아는지 물어보자,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자 청중들도 따라서 불러 주었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백주요

[연제구 민요 13]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조사자가 노래 가사의 운만 띄워주자 곧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룡오기만 기다린다

[연제구 민요 14]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GS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1 : 고계순, 여, 80세
제보자 2 : 박옥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너냥 나냥>의 앞 구절을 말하자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중간에 다른 제보자도 참여해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불렀다.

제보자 1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씰곳이 없더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제보자 2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섣달열흘만 불어라
제보자 1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고요
밤이 밤이나 낮이 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럽아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좋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연제구 민요 15]

덜구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KN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남진, 남,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앞소리의 운을 띄우자 다음 <덜구소리>를 구연해 주었는데, 받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사자가 받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여음만 몇 구절 부르고 그치고 말았다.

어허이 덜구야
어허이 덜구야
덜구야 덜구야 얼씨구 좋다
어허이 덜구야

[연제구 민요 16]

진도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P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옥순, 여, 84세
구연상황 : 고계순 제보자가 <양산도>로 시작을 하였으나, 이내 가사를 잊어버리자 박옥순 제보자가 <진도아리랑>으로 받아서 불러 주었다. 박수를 치며 즐겁게 구연하였다.

가는님 허리를 아다담썩 안고
직이라 살리라 사생결단 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꽁꽁꽁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이내야 가슴속에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꽁꽁꽁 아라리가 났네

산천이 좁아서 내여기 왔나
임살던 곳이라 내가여기 왔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꽁꽁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인가 지랄인가 용천~인가
얼마나 좋아서 요지랄을 하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연제구 민요 17]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SG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기조, 여, 9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리 세기 노래>를 작은 소리로 구연하자, 조사자가 다시 크게 불러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

콩 하나 팥 하나
앵기 댕기
가매 꼭지
넘어간다
딱개 동

[연제구 민요 18]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SG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기조, 여, 9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부르고 나니, 제보자가 다음 노래가 생각이 난다면서 불러 주었다.

문에야부채 손에들고 주인네양반 어데가노
문에야부채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다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 선산등에~ 젖묵으러 내가간다

[연제구 민요 19]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G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계연, 여, 78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제보자는 어렸을 때는 그것과는 다르게 불렀다며 다음 <아기 재우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잠못잔다

[연제구 민요 20]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G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계연,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남편이 <화투타령>을 이렇게 부른다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의 구연이 시작되자 옆에 있던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불렀다.

정월솔가지 꺾어들고
이월매조를 찾아간다
삼월사쿠라 피는꽃위에
사월흑초에 묻어놓고
오월난초 나오는 나비에
유월목단에 날아든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을 바라보며
구월국화 피는꽃위에
시월단풍에 다떨어졌고

오동지섣달에 꽃이피니
우리집영감이 춤을치고~

[연제구 민요 21]

베짜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G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계연, 여, 78세
구연상황 : 청중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보자가 갑자기 <베 짜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불러 주었다. 가사의 일부분만 부르고는 그만 그치고 말았다.

일광단 월광단 다짜서~
우리 서방님

옷 해줄라고 짰다 카대.

[연제구 민요 2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J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거송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종기, 남,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좌중에 <모심기 노래>를 아는 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한 자락 부르겠다며 나섰다. 손뼉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큰소리로 불러 주었다.

지시골~바람이~ 살짝불어~ 일용사가 멋~지게 잘커간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이달크고 저달크고~오너석달남~아서 환승하나

[연제구 민요 23]

파랑새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C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채옥,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새야새야"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구연 여부를 다른 청중들에게 물어보고는, 청중들이 하라고 하자, 그제야 자신있게 구연 해주었다. 가사를 읊는 식으로 구연해 주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우러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연제구 민요 24]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CO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채옥,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잘 모른다며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청중들이 한 번 해보라고 부추기자 아는 만큼 구연하겠다며 짧게 읊어 주었다.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중도에 끊어졌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망건 도망건
먹수밭에

[연제구 민요 25]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LH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해선, 여,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자신도 <다리 세기 노래>를 한 번 불러보겠다며 다리를 세는 흉내를 내며 불러 주었다.

이다리 저다리 각다리
진주맹근 또맹근
짝바리 희양단
도리줌치 장독간

[연제구 민요 26]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CG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금이,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 재우는 노래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자, 제보자가 옛날엔 이렇게 불렀다면서 아기를 재우는 시늉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구연하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청중들도 함께 불러 주었다.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기 착하다
앞집개도 짓지마라
뒷집개도 짓지말고
자장 자장 자장

[연제구 민요 27]

논매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2_PKS_CG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금이, 여, 87세
구연상황 : 상스러운 노래라면서 제보자가 구연을 거부하였지만, 조사자가 부탁을 하자 용기를 내어 과감히 불러 주었다. 노래 가사에 욕이 섞여 있다. 노래 솜씨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영감아 영감아 내영감아~
작은좆 팔아가지고 큰좆 살라카지~
요찌발아~ 보찌객이 왜묵었노

이등저등 해치고~ 좁쌀서되를 흐쳤더니~
공알새가 다까먹고~ 빈좆대만 꺼떡꺼덕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역락, 2015, 630~647쪽.

Ⅲ. 문헌 소재 민요

- 부산진구 민요

Ⅲ. 문헌 소재 민요

[부산진구 민요 1]

달

[九四一][344]
달노모아 달노모아
천지옥지 달노모아
심지업는 불을캐여
천상국에 달아노니
백만국이 다발도다
불도발다 불도발다
저불쓰리 누가잇노
천태산 만구름아
너안쓰면 누가쓰노

東萊郡 西面 田浦里 辛東燁 報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6쪽.

[부산진구 민요 2]

파랑새

[九四二]
새야새야 파랑새야
너의엄마 어듸갓노
용상강에 배를타고
쉬양강에 놀너갓다
언제시대 오실난가

344) [九四一]부터 [九四三]까지 "東萊郡 西面 田浦里 辛東燁 報"에 의해 김소운, 『조선언문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6쪽에 수록되어 있음.

꼿픠고 입픠는
그시대 오신단다

東萊郡 西面 田浦里 辛東燁 報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6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9쪽.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0쪽.

[부산진구 민요 3]

나물노래

[九四三]
뒷집에 동모들아
압집에 동모들아
꼿바구니 엽헤씨고
나물캐러 가자시라
올나가면 올꼬사리
내리오면 늣꼬사리
아금자금 쓱거다가
뒷도랑에 씻서가주
압도랑에 행가서는
반달이라 동솟안에
샛별갓치 밧처서는
생강후초 양님하야
열두판상 채려놋코
아부님요 어무님요
어서어서 일어나서
오좀긔에 세수하고
비단수건 낫흘닥고
아침조반 하오시오

東萊郡 西面 田浦里 辛東燁 報

*김소운, 『조선언문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6쪽. 이상 [부산진구 민요 1]부터 [부산진구 민요 3]까지는 신동엽(辛東燁)이 먼저 『매일신보』 1930년 11월 1일자에 독자 투고한 것으로 확인함.

[부산진구 민요 4]

榮華로세(釜山)

三嘉陜川 너른野에
왼갓花草 숭상하야
鳳仙花는 길을잡고
芙花을낭 동을걸고
茄子쏫흔 짓을달고
苦淑올낭 돌씨매어
朝참이슬 살작맛쳐
銀다리비 쌈을맛처
우리任을 입힛더니
京城길노 가시더니
첫명지를 들여밧처
壯元及第 하엿다네
닉린다네 내린다네
시가을노 내린다네
길러닉든 우리父母
오늘날이 榮華로세
갓치크든 우리동긔
오늘날이 榮華로세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133~134쪽(78번).
*『동아일보』(1923. 11. 4)의 '지방동요'란에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로 '경성(京城) 강경영(姜慶永)'이 제보한 것으로 제목 없이 발표됨. 엄필진의 『조선동요선』에는 이에 대한 기록 없이 '부산' 민요로 표시하고 중요 용어를 한자로 바꿈.

[부산진구 민요 5]

영화로세

삼가 합천 너른 뜰에
왼갖 화초 숭상하야
봉선화는 질을 잡고
외꽃을랑 동을 걸고
가지꽃은 짓을 달고
고초꽃은 동정 달고
분꽃을랑 돌띠 매여
아침 이슬 살작 맞쳐
우리 임을 입혔더니
서울 질로 가시더니
첫 명지를 들여 바쳐
장원 급제 하였다네.
내린다네 내린다네
시가을로 내린다네.
질러 내던 우리 부모
오늘날이 영화로세.
같이 크던 우리 동지
오늘날이 영화로세.

(1934年 8月 釜山市 草梁洞 李在鳳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3쪽.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수고본), 1930, 186쪽. 제목은 <영화>. 제보자 장씨 장모(張氏 장모(丈母) 67세, 조사일시는 1930. 8. 22, '엄씨(嚴氏)가 발포(發布) 부산(釜山) 유행(流行)한 것'으로 기록함.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34쪽. 다른 채록 정보 없이 '부산지방' 민요로만 기록함.
*이하 문헌에 기존 서지 사항 없이 동일 민요 또는 유사 민요를 재수록.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72, 121쪽(512번)에 <남편요>(대구지방)가 있고, 유사 민요로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21쪽(725번)에 <치장요>(창원지방),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82-283쪽(864번)에 <꽃노래>(부산지방)로 기록.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9쪽. / 금정구

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5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3쪽에 출처를 『조선민요집성』으로 밝히고 작품만 수록.

참 고 문 헌

신동엽(辛東燁), 「나물 노래」, 『매일신보』, 1930. 11. 1.
강경영(姜慶永),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 『동아일보』, 1923. 11. 4.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동래지 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5.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수고본), 1930.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72.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제보자 색인

ㄱ

강대창 344, 345, 346
강윤철 65
강팔문 6, 7, 8
거창댁 119, 120
고계순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4
고순자 220
공필선 241, 242, 243, 250
곽숙조 244, 245, 264
구동순 199, 200, 201
권태순 130
금자야 56, 57
기정분 120, 121
김갑례 40
김계숙 11
김귀자 131
김금이 173, 174
김기남 91, 92, 93
김기순 203
김길자 128
김남진 353
김덕선 174, 175, 176
김덕수 206
김도자 177, 178, 179, 180
김말덕 176, 177
김말순 99
김봉자 232, 233
김분석 227
김상순 136, 137, 138
김서운 113, 115, 116
김순덕 234
김순이 206, 207
김옥련 307
김옥선 236
김옥순 149
김옥자 180
김월출 150, 151
김유화 77
김은희 65, 66
김정자 78
김정출 224, 225
김종희 137, 138
김처녀 58, 59, 60
김천등 33
김춘자 34, 35
김필덕 227, 228, 229
김학임 60, 61, 62, 63, 308, 309, 310, 312, 313, 314, 315
김행임 44
김화자 94

ㄴ

노상주 81, 82
노숙자 205
노정순 316

ㅁ

맹분남 101
문봉순 66, 67
문봉자 23, 24

ㅂ

박갑식 25
박계연 316, 318, 319, 321, 323, 324, 325
박달막(초읍동) 152, 153, 154, 155
박달막(당감1동) 326, 327, 328
박동순 328
박두복 95, 96
박묘희 329
박병순 82, 83
박부임 131, 132, 133
박분점 155, 156, 157, 161, 162
박선자 167, 168
박순득 83, 84, 85, 86
박순옥 12, 13, 14, 15
박영순 121
박옥순 352, 354
박옥주 97
박용순 16, 22
박월출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박윤금 67, 68, 69
박재화 329, 330, 331, 332, 333, 334
박직선 253, 562
박형식 109
배분돌 70
배양순 168, 169, 170, 171
백윤자 117, 118
변상희 122, 123

ㅅ

서당내 118
서영순 215, 216, 217, 218
서정순 334, 335
성덕순 16
성진영 276, 283, 284, 285, 286, 287, 288, 290, 291, 292, 293, 294,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손기조 348, 355
손도점 101
손태금 78, 79
손희기 104, 105, 106, 107
송순금 17, 18, 19, 20
신동엽(辛東燁) 363, 364
신말필 181, 182
신재옥 266, 267, 268, 269
신점순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신정숙 182, 183
심경옥 337
심계순 233, 234, 235
심증선 272

ㅇ

안수자 134, 135
안의자 87
안희순 253, 254, 256, 258, 260, 261, 262
양순연 79
오가화 119
오순근 70, 71, 72
오옥남 337, 338
오진삼 89, 90, 91
오혜석 204
옥계순 220, 221
윤두이 128
윤선이 63, 64
윤옥연 235, 236
윤정수 207
이경애 229
이경연 3, 4, 5, 6
이계연 356, 357
이기연 225, 226, 227
이기자 45, 46
이덕숙 106, 107, 108
이두리 265, 266
이매옥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이명순 101
이복심 103
이상이 271
이상해 109, 110
이소복 338
이수연 247, 251
이순녀 67
이순례 204, 205
이옥분 37, 38, 39, 40, 41, 42
이옥순 119
이옥주 171, 172
이용하 187, 188, 189, 190, 191, 192, 193
이을분 273
이재봉(李在鳳) 366
이정길 35
이정선 201, 202, 203
이정자 341, 342
이종기 357
이채옥 358
이청자 229, 230, 231
이해선 359
이희순 72
임창희 183, 184

ㅈ

장옥란 193, 194, 195, 196
전덕순 72, 73, 74, 75
전명란 128
전명수 123, 124, 125, 126, 127, 128
전복남 342, 343
전봉연 102
전수정 24, 25, 26, 27, 28, 29, 30, 31
정갑순 172
정기저 83, 88
정김해 102, 103
정덕자 166

정명남 46, 47, 48, 49, 50, 51, 52
정복조 98, 99
정순삼 184, 185, 186, 187
정형순 129
조덕진 99, 100
조두이 274, 275
조성교 344
조성남 269, 270, 271
조우임 21, 22
조재남 237
조필수 36
진주댁 110, 111, 112, 113

ㅊ

채봉옥 222, 223
최경순 64
최귀자 80, 81
최금이 359, 360
최명남 9, 10, 11
최성남 219, 220
최순점 243, 245, 246, 250
최옥남 75, 76
최재옥 43

ㅎ

하덕순 148
하명순 223
하영조 130
허학순 53, 54, 55, 56
현정수 199
황봉선 44
황환희 263, 264

민요 제목 색인

ㄱ

가족 자랑 노래 324
각설이타령 47, 306, 319
강강술래 59
강원도아리랑 263
강피 훑는 부인 노래 121
개타령 25
객귀물리는 소리 95
결치 노래 97, 111, 117, 119, 120, 128, 130, 135
고사리타령 152
구멍타령 154
권주가 22, 39, 80, 169, 178, 212, 250, 340, 351
그네 노래 3, 43, 44, 54, 75, 83, 105, 128, 154, 167, 178, 199, 205, 219, 222, 341, 350
그네뛰는소리 298
기차 소리 흉내 노래 95
꼬불꼬불고개 256
꽃 좋다 꽃 꺾지 마소 321
꽃타령 26
꽃파는소리 253

ㄴ

나물노래 364
나비 노래 12, 20, 21, 106, 127, 177, 200, 214, 219
남강노래 259
남녀연정요 153, 165
남편살린며느리 276
너냥 나냥 3, 6, 9, 16, 17, 27, 40, 47, 53, 57, 67, 72, 79, 88, 108, 121, 125, 136, 149, 169, 173, 174, 185, 190, 221, 233, 309, 326, 352
노들강변 7, 12, 68, 107, 183
노랫가락 3, 4, 12, 20, 21, 22, 37, 38, 43, 44, 51, 52, 54, 58, 63, 73, 75, 76, 83, 86, 105, 106, 127, 128, 137, 143, 144, 147, 150, 154, 167, 171, 174, 177, 178, 190, 193, 196, 199, 200, 205, 214, 219, 222, 300, 301, 305, 341, 350
노랫가락 차차차 56, 183
논매기 노래 359
농부가 345
늴니리야 27

ㄷ

다리세기 노래 6, 9, 16, 21, 23, 24, 50, 56, 64, 65, 67, 74, 79, 82, 83, 87, 88, 98, 100,

103, 106, 110, 117, 118, 120, 124, 129, 131, 133, 134, 146, 148, 157, 163, 168, 177, 179, 186, 192, 197, 211, 212, 218, 219, 223, 226, 231, 235
달 363
달거리 창부타령 92
닭아닭아 우지마라 266
닭이우네 267
댕기 노래 145, 162
덜구소리 353
도라지타령 6, 7, 10, 70, 180, 183, 194, 198, 206, 232, 311, 329, 341
동지섣달 긴긴 밤에 338
두꺼비집짓기 노래 34, 200, 203
두껍이 노래 142
둥게요 175, 203

ㅁ

만구강산 유람할제 256
모심기 노래 4, 12, 13, 14, 17, 18, 19, 39, 43, 53, 63, 66, 67, 72, 73, 76, 84, 96, 103, 122, 123, 132, 133, 137, 140, 141, 150, 151, 153, 156, 158, 159, 160, 167, 174, 175, 176, 177, 180, 182, 187, 201, 205, 208, 213, 215, 225, 226, 227, 229, 230, 234, 314, 316, 323, 329, 334, 337, 338, 343, 348, 355, 357
모심기소리 253, 269, 270, 271, 272, 274, 275, 284, 285, 294, 295, 296, 307
모찌기 노래 13, 131, 132, 158, 208, 216, 338
모찌기소리 274
목도소리 287
못 갈 장가 노래 160
무궁화 노래 200
무정한 오빠 원망 노래 51
물레 노래 237
물방아 노래 343
물아물아 북청물아 262
밀양아리랑 10, 28, 35, 36, 48, 61, 68, 81, 85, 104, 126, 148, 173, 207, 215, 232

ㅂ

방구타령 260, 275
방귀타령 5
밭 매기 노래 321
백발가 8, 55, 60, 71, 72, 100, 182, 195, 224
베 짜는 노래 334
베짜기 노래 357
베짜는 소리 242
보리타작 노래 44, 313
보지타령 165
본조아리랑 193
본처노래 261

봄배추 노래 167, 174, 190
부모부음요 115
부산삼팔선 272
불매소리 20, 36, 41, 53, 73, 101, 112, 130, 164, 193, 204, 210, 217, 227, 312, 340
비 내리기 비는 노래 110
비 노래 33, 60, 64, 70, 97, 98, 135, 163, 202, 211, 228, 230

ㅅ

사랑가 187, 209, 263
사발가 3, 8, 16, 29, 39, 54, 58, 70, 81, 99, 126, 139, 166, 170, 176, 196, 220, 222, 224, 235, 328, 340
산골중이 동냥왔네 292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98. 101, 108, 109, 111, 118, 119, 130, 135, 202, 234
상여소리 344
새는새는 낭게자고 308
새타령 28, 69
성주풀이 29, 45, 170
숫자풀이 노래 335
시집살이 노래 5, 19, 48, 49, 82, 115, 116, 145, 149, 186, 213
신세타령요 325
신아리랑 38
심청노래 251
십오야 밝은달은 267
쌍가락지 노래 13, 84, 85, 143, 330
쌍금쌍금 쌍가락지 241

ㅇ

아기 어르는 노래 20, 36, 41, 53, 73, 101, 112, 113, 123, 129, 130, 164, 175, 193, 203, 204, 210, 217, 227, 312, 339, 340, 347
아기 재우는 노래 14, 42, 74, 108, 116, 122, 176, 182, 197, 198, 218, 222, 229, 308, 348, 355, 359
아기어르는소리 264, 302
아기재우는소리 250, 265, 290
아리랑 9, 60, 136, 206, 215, 220, 223,
아리랑고개 254
알강달강요 113, 164, 339, 347
양산도 20, 49, 55, 56, 66, 69, 74, 107, 154, 181, 184, 191, 214, 216, 331, 333, 345
없는 금전을 268
연정가 51
영화(榮華)로세 365, 366
옥단춘노래 247
옹헤야 138
운상소리 288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97, 111, 117, 119, 120, 128, 130, 135, 236

이갈이 노래 23, 34, 64, 78, 97, 102, 117, 128, 228, 236, 328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109
이방 저방 다 댕기도 325
이별노래 268
인사노래 299
임 생각 노래 127
임아임아 서방님아 245, 246

ㅈ

자장가 14, 42, 74, 108, 116, 122, 176, 182, 197, 198, 207, 218, 222, 229, 355, 359
잠자리 잡는 노래 94, 101, 110, 112, 201, 212
장가 노래 157
주머니 노래 51
주초 캐는 처녀 노래 147, 191
진도아리랑 24, 40, 46, 58, 172, 354
진주난봉가 30, 82, 113, 141, 180, 195, 315
징검이타령 162

ㅊ

창부타령 8, 11, 57, 89, 90, 91, 105, 125, 127, 171, 187, 192, 196, 209, 230, 233, 308, 310, 327, 331, 333, 346, 352
천자뒤풀이 257
첩노래 244
청춘가 37, 42, 45, 62, 89, 91, 106, 121, 170, 178, 186, 189, 199, 201, 210, 217, 229, 231, 273, 285, 292, 293, 297, 303, 304, 310, 332, 350
춘향 노래 76, 86, 150, 172
치마타령 317

ㅋ

쾌지나칭칭나네 282

ㅌ

탄로가 245
탈 것 노래 342
태평가 30, 68, 93, 139, 203, 221

ㅍ

파랑새 363
파랑새요 11, 22, 41, 54, 63, 65, 71, 78, 80, 87, 99, 100, 172, 175, 179, 181, 184 198, 204, 205, 224, 358
풀국새 노래 130

ㅎ

할멈 그리는 노래 102
화투타령 15, 25, 33, 35, 45, 62, 75, 76, 77, 86, 155, 184, 188, 213, 314, 349, 356
화투풀이 291
회심곡 31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 · 교열 · 주석)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 졸업.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문학회, 한국민요학회 회장 역임. 부산시문화상(2017)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2011), 『현대시의 문화 읽기』(2020),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2021) 외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0~22 -부산광역시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4~26 -경상남도 남해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7~28 -경상남도 산청군 편』(2014~19) 외 여럿.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 졸업. 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플랜비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2000), 『부산의 민속문화』(2003),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2020) 등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2014), 『6 · 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201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2014) 외 여럿.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 · 채록, 자료 타이핑 등, 2018년)

• 김다련, 김대희, 김서연, 김은진, 박수민(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김남희(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 조사팀 별 조사지역

• 조사1팀(박경수 팀)

- 부산진구 : 범천1-2동, 부암1-2동, 양정1-2동, 전포1-2동(8개 동)
- 연제구 : 연산1, 3-4, 6, 8-9동(6개 동)

• 조사2팀(황경숙 팀)

- 부산진구 : 가야1-2동, 개금1-2동, 당감1-2, 4동, 부암3동, 초읍동(9개 동)
- 연제구 : 거제1-4동, 연산2, 5동(6개 동)

■ 시사편찬위원회(2021. 4. 3. ~ 2024. 4. 2.)

위 원 장 : 김동철(부산대)
부위원장 : 김강식(한국해양대)
위원(가나다순)

강정원(부산대)	권영오(대저중)	김대래(신라대)	김정선(동아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창희(스토리랩 수작)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우양호(한국해양대)	유영옥(동아대)	이종봉(부산대)	전성현(동아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 13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부산진구·연제구 편

발 행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21년 8월 31일
인 쇄	성진종합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38-8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사진 제공 및 출처 :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과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에 있습니다.